소형교회의 협력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THE REVITALIZATION OF SUNDAY SCHOOL THROUGH THE MUTUAL COOPERATION OF SMALL CHURCHES

By

Kim, Haesu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yack, New York

2012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소형교회의 협력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THE REVITALIZATION OF SUNDAY SCHOOL

THROUGH THE MUTUAL COOPERATION OF SMALL CHURCHES

presented by

Kim, Haesung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2

ABSTRACT

THE REVITALIZATION OF SUNDAY SCHOOL
THROUGH THE MUTUAL COOPERATION OF SMALL CHURCHES

by

Kim, Haesung

One of the urgent problems modern Christianity has to deal with is to find methods of revitalizing small churches, which are nearly ubiquitous in the world. Many current conditions; such as the excessive number of seminary graduates; churches being opened right next to each other like grocery stores; the decrease of actual conversion because of the change in the church vision from soul-saving to numerical growth; unwaveringly point to the difficulty of healthy growth in a small church. While a good number of popular churches are dashing after worldly richness, many small churches, which fall behind, are forced to suffer from inferior church conditions and the sense of frustration and inferiority.

The dissertation was written for small churches to have real hope; to have the biblical characteristics; to provide good examples for believers; and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The author first suggests that the small-church pastors have the correct view of the church, the view that Christ is the head of all churches in the world; and that all believers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pastors not be judged by or judge other pastors according to the church size or according to how they have made their churches thrive, because pastors are not the owners of the church.

Furthermore, the author acutely studies the issue of Sunday-School-revitalization as one of the key methods to revitalize small churches because the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is easily neglected for different reasons in small churches. The revitalization of

the Sunday school in small churches begins with the recovery of self-esteem in the mind of a small-church senior pastor,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correct church view, and with his open mind. Finally, the author introduces and discusses an organization named CSO and its inter-church ministry in depth as a substantial example of revitalizing small church Sunday schools.

The ministry of CSO (Church Support Organization), a non-denominational Christian organization, was launched to support and help Sunday schools of small churches. The leading ministry of CSO is to assign and send seminary students or lay ministers to small-church Sunday schools every Sunday and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 for the children. To supplement the regular field ministry an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stry in general, CSO is facilitating joint-events among small churches, such as a joint summer Vacation Bible School, a joint youth revival, and so on. The ministry of CSO began merely with assisting a few Sunday schools. However, each year its ministry scope is being expanded rapidly as more and more small churches are asking for help. The areas of CSO ministry now encompass providing Sunday school education, training Sunday school teachers, holding parent seminars, training worship teams, and more. To cover all these demands as much as possible, CSO has now established a network of ministers and supporters. Through CSO ministry there is now new awareness that the cooperation of churches is truly effective, useful, possible, and bibilical. The author hopes that her dissertation will expedite the revitalization of small churches and enrich their true Christian experiences.

ACKNOWLEDGEMENTS

NYTS 박사과정은 저에게는 자그마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십사 년 동안의 전도사 생활을 뒤로 하고, 아이 셋 딸린 엄마가 책가방을 메고 맨하탄 통근을 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의 환경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학업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려워하는 저에게 첫 발걸음을 딛을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제 책상 옆 자리를 지켜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논문 주제 설정을 놓고 갈등하다가, 제가 섬기고 있는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는데, 논문을 써 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CSO는 삼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독교 단체이므로, 신학적 이론 정립이 미흡했는데, 논문을 쓰면서 CSO의 방향성과 신학적 배경과 사역 방법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논문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던 날, 과연 제가 힘든 논문 과정을 마칠는 날을 맞을 수 있을지 의문을 던졌는데, 그런 제가 가여웠는지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논문의 잉태에서 해산까지 전과정을 옆에서 지켜 보시며 함께 해 주신 백창건 교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어설픈 논문을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저의 사역에 대해서 귀기울이시며,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에 필요한 책들을 제공해 주고, 많은 회의와 의견들을 나누며, 실제적인 현장에서 함께

뛰면서, 저의 논문의 내용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신 겸손하고 순수한 CSO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노릇을 잘 못해도, 엄마의 학업을 응원해 준 든든한 나의 아들 은용이, 딸 루비와 멜로디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은 어깨만큼이나 넓은 사랑으로 극성스러운 아내를 인내와 믿음으로 후원해 준 남편 김영준 목사에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한국에서 딸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 년 봄, Nyack 에서

김 혜성

목　　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서론(Introduction)

1. 연구의 목적과 목표

1) 연구의 목적

교회는 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소산물이며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어야하는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들은 그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급속한 문명의 발달과 급변하는 의식 구조의 혼돈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에 수용하여 물량주의, 외형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등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실속 위주의 교회로 키워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권위는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현대의 한탕주의와 물량주의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성장주의는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동요하고 개교회 부흥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하고 교회간의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교회의 재력과 인력의 규모를 따라 갈 수도 없고 대형교회처럼 교인들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여러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는 소형교회들은 상대적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7 년 보고에 따르면 뉴욕교회협회 주소록에 등재된 뉴욕과 뉴저지 소재의 500 여 한인교회 중에 교인 1000 명 이상인 대형교회는 20 개 정도였으며, 미국인과 한인 교회의 평균 교인 숫자는 90 여명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소형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1] 그렇다면 주류인 소형교회들이 왜 4% 정도에 해당되는 대형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전력질주하는 것인가? 이런 기독교계의 풍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나 사회복지 참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기독교 교육이나 문화도 더 육성시킬 수도 있고, 평소 사역 비젼을 더 힘 있게 추진해 갈 수도 있지만,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저변에는 대형교회는 성공한 목회이고 소형교회는 부실한 목회라는 판단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은 분명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어 질 것이며, 목사에게는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지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2]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Church Support Organization(CSO)[3]은 바로 이런 소형교회의 가치관의 혼돈과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의 좌절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소형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려 나기 쉬운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사역으로 출발하였다. 이 밖에도 소형교회 지도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론 재정립, 교사, 부모 등 소형교회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 방법론 간구하며, 이를 위한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과 기독교 단체들 간의 다각적 협력사역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Church Support Organization 사역 고찰은 현대 기독교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소형교회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작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

[1]박종원, “소형교회만의 강점 살리며 건강해진다,” *뉴욕 중앙일보*, 2007년 5월 10일.

[2]안영혁, *작은교회가 더 교회답다* (서울: 겨자씨, 2001), 147.

[3]CSO에 관한 설명: 본 페이지 이후에 Church Support Organization은 약자인 CSO를 사용한다.

2) 연구의 목표

(1)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 고취

Dietrich Bonhoeffer 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고 했다.[4]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되신 오직 한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합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관계적 연합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됨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서로간의 경쟁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소형교회의 목사들은 개척 초기의 단계이거나 장기화된 제자리 성장의 단계거나 교회의 분열로 인한 침체 단계 또는 수적 성장보다도 제자훈련 등 내적 성장을 기하는 단계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 교회가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교인들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 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며, 하나님께로 시작된 교회는 어떤 인간적 사상이나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목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CSO 가 추구하는 소형교회의 협력사역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형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관 확립은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며, 목회자 자신은

---

[4]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8), 24.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2) 협력사역을 통한 교회학교 활성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섬겨야 하듯이 개 교회들 간에도 서로 나누고 섬겨야 한다. 각 교회는 각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몸으로서의 전체 교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교회는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들과 같아야 된다고 강요하여서는 않되며, 서로가 하나님께로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협력하며, 여러 사역의 양상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5] 대부분의 소형교회들은 재정적 또는 인력적인 열약함으로 인하여 교회학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CSO가 추진하는 교회 지체들 간의 은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협력사역을 통해 교회교육 활성화의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역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담을 쌓고 개 교회를 한 목사의 사역의 장으로 일구어 가는 현대의 교회들에게 이웃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참된 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3) 유기체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운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다.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귀중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존재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몸 안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동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

[5]Robert John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여수룬, 1981), 105-108.

한 지체가 온전치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은 서로서로 존중히 여기며 돌아보아야 한다.

소형교회들의 협력사역도 유기체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교회들은 서로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강한 부분들을 나누어 주며 서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교회가 반드시 주위의 기존 교회의 구조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개 교회에 적합하고 실용성을 가진 사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목사는 소규모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목회의 장점들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 즉 소형교회는 목사가 교인 한명 한명을 향한 직접적인 관심과 관리가 가능하며, 교인들 간에도 친밀한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소외계층이 없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형교회는 일반 교회들의 교회 행정 구조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개 교회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형교회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분야의 사역은 이웃 교회와 협력을 시도하고, 여러 기독교 단체들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해 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유기체적이며 역동적인 교회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배경과 방법

1) 연구의 배경

(1) 일반적 배경

Church Support Organization(CSO)은 뉴져지와 뉴욕 인근에 위치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며 사역을 펼치고 있다. CSO는 사무실을 한인 밀집 지역이자 CSO의 회원교회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New Jersey주에 있는 Bergen County의 Palisades Park에 두고 있다.

Palisades Park는 허드슨 강 연안의 Fort Lee에 인접한 교외 주택지역으로 1980년을 전후로 한인 이주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다. 2009년 6월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지역 인구는 19,422명이고,[6] 이들 중에 동양인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종이며 백인은 27%, 히스패닉은 16.4%, 흑인은 0.6%, 기타는 2%로 나타났다.[7] 동양인들 중에서 한국계가 절대다수이며, 인구 2만명이 채 안되는 이곳에서 한인 인구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한인 인구 증가는 Palisades Park가 맨하탄과 뉴욕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편리함을 그 첫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Palisades Park는 맨하탄 도심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시와 전원 생활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한인 급증의 둘째 이유는 Broad Avenue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 타운을 통해 미국 안에서의 한국생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타운에 즐비하게 늘어선 한국식 식당, 의류점, 가구점, 노래방 등은 미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생활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 편안함을 제공한다.

Palisades Park 한인들은 숫적 증가에 따른 생활문화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 교육, 경제분야 등 사회전반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6]http://en.wikipedia.org/wiki/Palisades_Park,_New_Jersey(accessed, 12.16. 2010).

[7]http://www.city-data.com/city/Palisades-Park-New-Jersey.html(accessed, 2.25. 2011).

[8]http://www.yonhapnews.co.kr/society(accessed, 12.16. 2010).

타운에서 두 명의 한인 시의원을 비롯하여 교육위원, 조정위원, 헬스보드, 도서관, 경찰관 등 각분야에 한인들이 진출해 있으며, 1천4백명 정도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9]

Palisades Park의 한인인구의 증가와 한인타운 형성 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교회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타운의 크기가 1.21스퀘어 마일로 비교적 적은 이 지역에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인교회는 14개이며, 이 중에서 CSO와 연합사역하는 소형교회는 3곳이다. 크리스챤투데이의 2010년 미주 한인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주의 총 4,075개의 교회가운데 뉴욕의 교회는 전년도보다 1개가 줄어든 441개이로 정체 상태를 보이는 반면, Palisades Park를 포함한 뉴져지의 교회는 6개가 늘어난 232개로 집계되었다.[10] 이러한 뉴져지 지역의 한인교회 증가 추세는 이민자들의 발길이 뉴져지로 옮겨지는 한 계속 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2) 목회적 배경 (Ministerial Setting)

Church Support Organization(CSO)는 2008년 8월에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전도사들의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CSO의 본격적 사역팀 결성을 위해 Nyack College 기숙사에서 10여명의 전도사들과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모임은 CSO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CSO의 우선 사명을 결정하였다. CSO의 우선 사명은 전도사나 전문 교사가 없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 CSO 사역자들이

---

[9]조종무,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시위," *미주한국일보*, 2010년 5월 17일.

[10]정보라, "크리스챤투데이 미주한인교회 현황통계," *미주한국일보*, 2010년 1월 18일.

정규적으로 방문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지원해 주는 현장사역[11]으로 정했다.[12]

CSO의 현장사역의 태동은 CSO의 사역자들 대부분이 현재 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 전도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들은 현 교회학교의 일선에서 사역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고, 개척교회 또는 소형교회의 경우 담임 목사의 손길이 교회학교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다. 어떤 교회의 아이들은 교회에 부모를 따라 출석을 하지만 예배는 커녕, 성경 한절, 찬양 한번 부르지 못하고 주일을 보낸다. CSO의 현장사역은 바로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소형교회를 찾아가, 교회에 와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추진된 현장사역이지만 실제적으로 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자는 단 두 명뿐이었다. 당시 CSO의 사역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었고, 대부분이 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직 전도사들이었기 때문에 주일에는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사역하여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한정적이었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으나 두 전도사들이 하루에 두 세 교회씩 돌며 꾸준히 사역을 이어왔고, 지금은 일곱 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열 개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일에 국한된 현장사역의 보강을 위해 2009년부터 여러 소형교회을 모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Holywin Night, Youth Rally, Youth Winter Retreat 등 다양한 협력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11]현장사역: CSO사역자가 주일에 담당 사역자와 교사가 없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정규적으로 방문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어린이 신앙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역이다.

[12]http://churchsupport.org/history(accessed, 1.30. 2011).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유급 사역자들을 채용하여 CSO 행정 전반, 외부 홍보,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계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Palisades Park 현 주소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매주 월요일 10여명의 사역자들이 예배와 회의로 진행되는 정규 회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현장사역팀의 지원을 받거나 협력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25여 교회이며 CSO에 자원 봉사하는 사역자들도 20여명에 이른다. CSO는 사역 대상 교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교회의 환경들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CSO는 2010년을 기준으로 활발한 활동과 영향력으로 소형교회는 물론 중 대형교회로까지 그 정신과 섬김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고,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도 복음 전파와 소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하는 CSO사역을 돕고자 사역 분야와 재정 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1)연구실행 방법

Jürgen Moltmann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공동체라고 했다.[13]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성을 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달려간다면 교회의 규모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성서적 정의와 어원을 짚어보고자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약의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태동과 출발점을 고찰함으로써 교회의 근본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13]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외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6), 80.

교회의 어의를 살핌에 있어서 현대 교회가 외형과 양식에 가시적 교회의 목회에 치중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성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서의 교회의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또한 참된 교회에 관한 인식을 통해 사역의 양적 결과 보다도 질적 과정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교회의 존재와 소명을 깨닫게 되며,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사역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며 교회의 방향성을 재점검함에 있어서, 신약의 저자 중 그누구보다도 진정한 교회상을 고민하며 교회론을 비중있게 다룬 바울의 교회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교회론 중 소형교회의 협력사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소형교회의 협력사역을 위한 실천에 앞서 협력사역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협력사역의 구체적 실례를 들어서 협력사역의 성서적 방법론을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교회들의 협력사역은 어떤 유익성이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 연구수행은 교회의 협력사역과 교회학교 활성화라는 과제를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교회학교의 정의와 목적을 살피고 그 역사를 통해 교회교육의 의미를 발견해 갈 것이다. 현실적인 소형교회 교회학교의 한계성과 문제점을 집어 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안인 협력사역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2)과제(Project) 실행 방법

CSO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도록 정규적 모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계속적으로 바람직한 교회상을 제시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이 만남을 통해 목회의 힘든 부분을 서로 나누며 상담과 평가를 통해 목회에 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목회자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목사의 사역을 도와 주어야 할 평신도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형교회를 연합하여 제자 훈련과 교사 세미나와 같은 평신도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올바른 교회관과 기독관을 심어 주며 훈련과정을 통해 지교회의 평신도 리더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CSO의 주된 사역인 전도사나 교육 담당자가 없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주일마다 방문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지원해 주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일 하루의 신앙교육으로는 역부족인 현장사역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형교회들의 협력사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연중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 Holiwin Night, Youth Retreat, Youth Rally 등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소형교회를 출석하는 소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연합활동을 통하여 또래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집단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연합의 범위가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금은 대학 청년부, Young Adults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사역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소형교회들과 CSO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협력사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그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CSO를 통한

소형교회들과 단체간의 협력 연결 관계가 중요한 만큼 행정적 관리와 합리적 구조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CSO는 현장사역을 통한 효과적인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현장사역팀을 훈련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사역팀 리더를 중심으로 주중 모임을 갖고,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예배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교와 성경 공부 계획안을 받기도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CSO는 교재 관리 팀을 만들어 현장사역팀에 정규적인 교재를 제공하며 그것에 따른 절기별 행사 교재 및 각종 미술 공작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후원해야 한다. CSO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란을 통해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게 하며 사무실 내에 자료실 코너를 만들어 방문자들이 직접 보며 가르칠 내용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자원봉사자 모임의 차원에서 시작된 CSO는 그 규모와 행사의 영향이 커지면서 재정과 인력 관리와 홍보 등 행정 조직의 계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역자들의 역할을 각자 관심분야에 따라 나뉘어 행정팀, 프로그램 개발팀, 현장 사역팀, 예배팀으로 크게 나누었다. 행정팀은 사무 행정, 회원교회와 협력교회와 단체관리, 재정 관리, 홍보, 인터넷 관리, 소식지 발송 등의 업무를 하며, 프로그램 개발팀은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교육 자료를 수집 관리하며, 현장 사역팀은 주일 예배 및 성경 공부를 주관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며 교사 지원자들을 육성시키며, 예배팀은 헌신예배, 연합집회, 찬양의 밤 등 예배와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자 한다.

CSO는 소규모로 시작하는 소형교회가 사역초기부터 작은 힘이지만 이웃을 돌아보며 협력하며 도와주는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또 중대형교회가 소형교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CSO를 통한 협력 후원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교회들만의 협력이 아닌 범위와 대상이 중대형교회까지 확장되고, 선교단체와 기독교계까지 이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타민족 소형교회에도 현장사역팀을 보내어 교회학교를 도와주며, 거시적 안목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짐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교회가 분열과 불일치로 인해 좋지 못한 이미지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 작은 하나님의 지체들의 협력사역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Ⅱ. 협력관계에서 본 성서적 교회론

1. 교회의 정의

Church Support Organization(CSO)이 소형교회들의 연합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주체인 목회자들의 올바른 교회관과 목회관 정립이 선제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숭고한 목적으로 출범한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교회론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출발은 무엇이었나?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어떤 부분에서 현대 교회는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시대적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구별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 교회를 교회로서 구별 지어 주는 특성을 찾아내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교회의 정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L. Berkhof 는 교회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교회의 사역인 영혼 구원에 촛점을 두었다.[14] 여기에서 교회는 모든 사역과 목표의 우선 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상기하게 된다. L. Berkhof 는 교회를 또한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몸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신실한 자들 또는 믿는

---

[14]주정관, "교회론에 근거한 교육신학," *진리논단*, 13 호 (2005 년), 1000.

자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했다.[15] 그는 교회를 성령의 부르심으로 모여 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보았다.

Martin Luther 와 John Calvin 도 교회를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해했다. Luther 는 교회를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라고 했으며, Calvin 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 또는 '입양의 은사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성령의 성화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사람들의 모임' 이라고 했다. 그들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로 불리움 받은 자들의 모임에 더 비중을 두었다.[16] Calvin 은 교회를 또한 어머니의 존재로 묘사하며, '아버지를 가진 모든 자들의 어머니' 라고 정의했다.[17] 모든 인간이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나오며, 어머니의 젖을 통해 양육되며,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듯,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교회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양육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교회의 기원

교회의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신약시대인 성령강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이고, 둘째는 교회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개혁신학자들의 견해이다.

---

[15] Ibid.

[16] 이종성,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자작전집, 371.

[17] 김요섭, "칼빈의 교회의 역할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52호(2009년), 37-63.

첫번째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성령강림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신비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는 세계의 시초부터 즉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신약시대의 바울은 교회의 기원을 구약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서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다. 성경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이며, 이 때 예수는 미래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 누가도 자신의 복음서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도행전부터 24회나 사용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을 시점으로 그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18] Hans Küng 도 부활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부활한 자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다릴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본다.[19]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었고 구약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קָהָל(Kahal)과 עֵדָה(Edhah)이다.[20] 먼저 קָהָל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קָהָל란 말은 전투나 전쟁, 모반 혹은 말씀을 듣거나 회막을 세우거나 축제를 위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소집하다' 또는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 바로 קָהָל이다. קָהָל은 명사일 때에는 집회, 회중, 여호와의 총회로 번역 될 때도 있다. 구약에서 קָהָל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총회로 번역된다.[21] E. D. Radmacher 는 קָהָל이란 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잘못된 증언에 의하여(창 49:6), 전쟁이나 침략에 의해(민 22:4), 귀환하는 포로들의 무리에 의해(렘 31:8), 예루살렘에 있는 회복된 공동체(스 10:12), 일반적으로 모인 무리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의 회중을 뜻한다고 한다.[22]

---

[18]Millard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57.

[19]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101.

[20]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19.

[21]Driver and Briggs Brown,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874.

[22]Earl D. Radmacher, *What the Church is all about* (Chicago: Moody Press, 1978), 125

עֵדָה 는 קָהָל보다 오래된 말로서, ‘지정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다. 사전적 의미는 회중 또는 일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모여 진 무리를 말하며, ‘택한다’ 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עֵדָה는 사람들, 의인들, 악인들, 동물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עֵדָה는 처음에는 קָהָל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모인 모임을 나타내기도 했고, קָהָל과 종종 구별없이 사용될 정도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עֵדָה는 70 인 역에서는 קָהָל처럼 ἐκκλησία(ecclesia)로 번역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23]

קָהָל과 עֵדָה는 70 인역의 처음 부분에서는 모두 공회(συναγωγή) 의 의미로 번역되었으나, 뒷 부분에서 קָהָל은 ἐκκλησία 로 עֵדָה 는 συναγωγή (Synagoge)로 번역되면서 두 단어는 그 의미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קָהָל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임을, עֵדָה 는 모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차이를 분명히 들어냈다.[24]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모임’ 을 뜻하는 קָהָל이 신약의 교회의 개념과 연결되어 짐을 보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큰 유익이 된다.

2)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23]이병철, *성서원어대전 I*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5), 272.

[24]이종성, *교회론 I,* 20-21.

신약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ἐκκλησία 는 '불러내다' 혹은 '소환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복합동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ἐκκλησία 는 본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신약시대 당시 정치제도 하에서 전령관의 부름에 의해 각자의 집으로부터 시장으로 불려 나온 헬라 도시국가들의 자유시민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 때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 또는 시민들의 집회를 ἐκκλησία 라고 일컬었다.[25] 여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의식적으로 유대적 회당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ἐκκλησία 라는 단어를 채택했고, 신약 기자들도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모인 자들의 무리'라는 뜻을 보충하여 사용했을 것이라고 본다.[26]

신약에서 ἐκκλησία 가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일정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행 11:25,26; 고전 11:18; 갈 1:2,3), 개인의 가정이 집회 장소로 사용된 경우(롬 16:5; 고전 16:19; 골 4:15), 산재해 있는 교회 총칭(행 9:31), 세계에서 예수를 구속자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고전 10:32; 11:22; 12:22), 세상에서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엡 1:22,23; 엡 3:10)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이처럼 신약의 ἐκκλησία 는 유대인들이 종교적 회합 또는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지칭하는 συναγωγή와는 달리 세상에서 구별되고 불러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란 의미와 예배의 처소라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27]

구약과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어원적 기원을 살펴 봄으로써 교회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더 뚜렷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25]Hans Küng, *교회*, 109.

[26]Robert John Banks, 57-64.

[27]이종성, *교회론 I*, 368-370.

구약의 קָהָל과 עֵדָה, 신약의 ἐκκλησία와 συναγωγή의 어의를 통해 교회는 회중들 즉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며, 이것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공동체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체감은 물론, 서로를 돌아보고, 나눠 주고, 동일한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의식하며 지어져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3. 교회의 본질

참된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 추구해 온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교회의 본질이 무시된 그 어떤 교회의 형태나 사역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상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가장 심오한 성찰을 기울인 바울의 사상에서 그 출발점을 찾는 것은 성서적이며 합당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Edmund Clowney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일종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28] 교회의 본질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이 언급한 교회상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

[28]Edmund P. Clowney, *당신의 교회생활은*, 서원교 역 (서울: 나침반, 1991), 12.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으로 보는 교회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한 계약적 또는 언약적 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공동체로 이해하며,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강조한다.[29]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배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적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새언약을 선포하신다.[30]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의 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육에서 난 이스라엘이라기 보다는 교회이며, 구속사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이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여 복음을 더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민족적, 혈통적 결속이 아니라 언약적 결속이라는 사실과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

[29]Millard J. Erickson, 34.

[30]O. Palmer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원, 1983), 275.

있다.[31]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누구든지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곧 구원의 보편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보편화를 의미한다.[32]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는데,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배우자, 참 포도나무의 가지, 신부, 몸, 성전, 집 등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소중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33] 특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비유할 때는 교회가 거룩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이 거룩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특질이다(엡 5:25-27).[34]

H. Conzelmann 은 성서적인 교회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세상 안의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 질 수 있는 것이다.[35]

---

[31]Millard J. Erickson, 34-35.

[32]Herman Ridderbos, *바울신학*, 서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397-398.

[33]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37.

[34]Millard J. Erickson, 36.

[35]Hans Conzelman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48.

이상의 고찰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된다.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돌보시고 보존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였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통을 뛰어 넘는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언약의 기초 안에서 맺어진 형제 관계로, 서로 형제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나눠야 한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신약의 교회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주 묘사한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한다.[36]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골 1:18).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16).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머리되신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 받고 생명력 있는 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골 2:19). 이러한 이미지는 요한복음 15장 1-11절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한 비유와 일맥 상통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지체인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는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37]

---

[36]김지호,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40.

[37]Millard J. Erickson, 37.

바울이 교회의 본질을 언급함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를 예로 들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한 것은 이 둘의 관계가 생사가 달린 생명처럼 중요한 관계를 가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체가 있고 머리가 없거나 머리가 있고 지체가 없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자요 신체적 기능은 불가능 한 상태의 사람인 것이다. 머리와 지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자들이다(고전 12:27).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인 것으로, 그와 하나됨에 있어서 특별한 민족, 계급, 연령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간다.[38] 이것은 곧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평등성을 나타낸다. 교회란 근본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의 사귐이며 공동체이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평신도들로부터 구별하여 성직을 계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9]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만찬의 떡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스도는 친히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할 희생을 예시하시며, 후세에도 계속적으로 떡을 나누며 구속의 사랑안에서

---

[38]Ibid., 39.

[39]황승룡,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55.

자신과 하나됨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다. 이와 같이 성만찬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떼는 것에 참여하는 많은 신자들은 그와 하나 된 몸으로 결합된다.[40]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이듯, 교회의 은사 사역에 있어서도 각양 신령한 은사의 현상과 모양은 다르지만 한 성령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한 분 그리스도와 성령 아래에 두면서 은사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다(고전 12:4). 그러므로 교회에서 질서 없이 은사를 사용하므로 서로 분쟁하거나 나누어 져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건강한 지체는 서로 대적하거나 몸을 찢어지게 하는 일은 없다.[41] 성서적인 교회는 그 지체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지 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며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지체들을 연합시킨다. 교회의 중심은 지체가 아닌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지체는 머리에게서 생명력을 부여받아 성장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회는 조화로운 다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과 능력이 다른 여러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체들은 다른 형태와 역할을 담당하지만, 모두 건강한 신체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다. 몸 속의 지체들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각 사람들도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고, 그 은사들은 우열로 판단될 수 없으며, 모든 은사를 다 소유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며, 또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은 먼저 각자가

---

[40]Hans Küng, *교회*, 321.

[41]김지호, 43.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바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지체들의 기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42]

셋째, 교회는 상호협력하며 봉사해야 한다.

사람의 몸이 활동하려면 지체들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지체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필요하다. 지체들이 그리스도인 머리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은 몸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인들의 상호연결의 관계를 중요성을 말해준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의 역할들과 은사들을 이러한 상호 연결성의 개념에서 이해했다. 모든 지체들이 부여 받은 은사들은 개인적인 성취욕의 충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교회를 몸으로 인식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의 상호관계 즉, 각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 주는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엡 4:11-16).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상호관련성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긴밀한 교감을 의미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한 것처럼, 한 지체가 경험하는 것을 다른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와같이 신체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43]

교회는 지체들의 상호협력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봉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

[42]Ibid., 43-44.

[43]Millard J. Erickson, 39.

필요로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입과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44]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 교회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였으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생명의 질적 수준을 외적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45]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인 섬김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떤 활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근거하여 교회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이기적 판단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줄 수 있는 자발적인 섬김이 일어나는 교회야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일 것이다.[46]

3)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거룩성을 부여하였다.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성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특히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막아서 일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히 9:7).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마 27:51),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

[44]Alrin J. Lindgren, *교회의 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46.

[45]Donald G. Miller,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51.

[46]Millard J. Erickson, 89-90.

힘 입는 자는 누구나 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장소도 거룩한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나올 수 있게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된 성령의 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교회의 본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고전 3:16),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한다고(엡 2:21-22) 했다. 베드로도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한다고 했다(벧전 2:5). 이와 같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공동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내주하실 뿐 아니라 교인들의 모임 안에 공동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은 교회의 주로서 교회를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교인들을 서로 연합하게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 공동체인 것이다.

둘째, 교회는 성령이 운행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공동체이다. 성령은 교회를 위한 그의 목적을 수행하신다.[47] 성령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일 등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다.[48] 교회의 각 사역들은 성령에 의해 능력이 주어지고 바람직한 기능이 가능케 된다.

Millard Erickson 은 성령께서 교회에 능력을 전달해 주신다고 했다. 특히 그리스도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갖가지 사역들 속에서 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삼천명이 회개하고, 제자들이 성령충만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 받는 자들이 더하여 지는 것을 볼 때, 단순히 사람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고 결론 지울 수 밖에 없다.[49]

Arthur Pierson 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50] 이와 같이 교회의 주관자로서 운영자로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익과 결과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성령이

47이종윤 외,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6), 198.

48박형룡,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175.

49Millard J. Erickson, 41-42.

50John R. W. Stott, *사도행전강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30.

온전히 운행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영적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교회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므로 거룩한 곳으로 보았다. 바울이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묘사한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51]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성결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공동체로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성스러운 구성 요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며, 교회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라고 교회의 거룩성의 근본적 사유를 교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교회는 결코 각 개인의 구성원이 아닌 구체화되어 살아있는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교회의 속성과 표지

[51]Edmund P. Clowney, *당신의 교회생활은*, 101.

1) 교회 속성과 표지 개념의 시작

사도시대가 지나자 교회가 초기의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교리적 혼돈 속에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된 교회를 규정할 수 있는 속성들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지도자들은 교회의 외적 차별화에 중요성을 두었고, 그 결과로 교회를 사도들의 직접적인 계승자인 주교가 다스리는 외형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교부들은 주교구라는 제도를 강조하였고, Cyprian은 주교들을 사도들의 계승자들로 간주했다.[52]

381년에 작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나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I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고백했다.[53] 이 신조 안에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인 통일성(One), 거룩성(Holy), 보편성(Catholic), 사도성(Apostolic)이 담겨 있다. 이후 Aurelius Augustine도 Donatists와의 논쟁 과정에서 참교회를 특징 짓는데 이 4가지의 속성을 언급했다.[54] Augustine이 제시한 교회의 속성은 중세시대에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거기에 로마교회의 교황의 권위와 지배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교회의 속성은 제도적으로 해석되지고 변질되고 만다. 즉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 전인류를 포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거룩성은 성례 등을 통한 의식과 행위를 통해 얻어지며, 사도성은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52]Eric G. Jay, *The Church*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69.

[53]Edmund P. Clowney, *교회,* 82.

[54]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5), 163.

직접적으로 사도적 계승권을 가진다는 것이다.[55] 이와 같이 로마교회는 사도성을 사도직의 계승에 중점을 두었다.

교회의 속성을 외적인 유형적 조직에서 찾으려는 로마교회의 인본주의적 견해에 반박하며 일어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속성을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영적 교통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참된 사도성은 인물이나 제도의 계승이 아니라, 교회의 계승이라고 보았다. Robert Reymonds 는 이 교회의 계승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규범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56] Rienk Kuiper 도 마태복음 16 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에 그리스도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자체보다는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57] 그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이며, 이 모든 가르침은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받은 교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참된 교회를 어떤 외적 기준으로 표시할 수는 없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먼저 종교 개혁자였던 Martin Luther 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행해져야함으로 설교와 성례전 시행이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후기에는 더 많은 교회의 표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 선포는 언제나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그는 Augustine 이 제시한 교회의 4 가진 속성을 수용하였지만, 인본주의적인 로마교회의 견해를 반박하며 재해석했다. 그는 교회를

---

[55]Robert L. Reymond, *최신조직신학*,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1074-1075.

[56]Robert L. Reymond, 1070.

[57]Rienk B. Kuiper,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창우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8), 70.

내적이며 영적인 공동체로서 이해하면서, 동시에 외적이며 육적 측면을 구체화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상을 유도해 내고자 했다.[58]

John Calvin 도 말씀 사역과 성례전을 매우 중요시하여 이것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말씀을 교회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Calvin 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했다.[59] 그러나 Calvin 은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이 교회의 3 가지 표지로 보는 말씀 선포, 성례전 시행, 권징 중에서, 권징을 제 3 의 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권징은 다만 교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뿐이다.[60] 교회의 제 3 의 표지인 권징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Calvin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은 권징을 제 3 의 표지로 인정한다.[61] 따라서 개혁주의 교회의 표지는 말씀 전파, 성례 거행, 권징 실행이다.

이로써 개혁주의자들은 교회의 표지를 통하여 참된 교회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임을 알렸다. Herman Bavinck 는 로마교회가 교회의 속성들과 표지들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한다.[62]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표지는 곧 속성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표지 개념인 말씀이 빠져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의 표지라기 보다는 교회에 의존되어 있고, 교회 자체가

---

[58]김덕영, *마틴 루터와 칼 바르트의 교회론 비교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박사논문 (2007), 166.

[59]John Calvin, *기독교강요 IV*,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22.

[60]김길성,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41.

[61]Louis V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외 역 (경기: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834-836.

[62]최홍석, *교회론* (서울: 솔로몬, 1998), 92.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마교회가 참된 교회의 근거를 교회의 내적 속성에서 찾는 것에 반해,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규범을 교회의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한편, 로마교회와는 달리 교회의 속성을 더 중시하며 추구해 가고 있다. 즉 개혁교회는 교회의 4가지 속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여기에 보다 참된 교회의 구분을 위해 교회의 3가지 표지를 추가하여 올바른 교회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과 표지는 참교회를 정립해 나아감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며,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2)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은 무형교회에 관한 것으로 내면적인 특성을 말한다.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One), 거룩성(Holy), 보편성(Catholic), 사도성(Apostolic) 4가지로 규정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며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속성 안에서 다음과 같은 동질성을 가진다.

(1)통일성(Unity)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통일성이란 세대와 나라의 교회를 초월한 하나됨을 말한다. 왜냐하면 비록 환경과 처지는 다를찌라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통일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의 각 지체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의 분리의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통일성에 대한 비상한 노력으로 교회의 분열을 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서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교회의 분열은 거듭되고, 오늘날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분열의 양상을 낳고 있다. 이들은 분리의 근거를 서로 다른 성경해석의 견해 차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인들은 각 지체로 마디가 서로 통하여 도움을 입고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Berkouwer 도 교회가 복음의 종으로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63]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성은 그리스도인들의 통일이며 이는 교회의 마땅한 사명인 것이다. 이 통일성은 곧 직면한 현대 교회들의 상황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주기 위한 원동력인 것이다.[64]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서로가 다툼과 시기의 대상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대상임을 의식하고, 진정한 교회의 통일성의 사명을 힘써야 한다.

(2)거룩성(Holy)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선택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65]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의 삶이나 도덕적 행위에 근것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근원이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다. 교회의 거룩성은 삼중적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짐으로 인하여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 받게 된다. 중보자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백성은 성도로 호칭되어 지며(고후 1:1),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할 것이 요구되어

---

[63] Gemit C. Berkouwer, *개혁주의 교회론*,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165.

[64]Charles Van Engend,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66.

[65]Wolfgang Huber, *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89.

진다(고전 3:17). Berkouwer는 거룩성에 대하여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근본적으로 변할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심지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했다.[66]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씻음과 끊없는 회개를 통한 갱신을 가지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며 검토하며 훈련받아가야 한다. 또한 진정한 거룩성은 내적인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에서도 표출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성을 순수하게 지킴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세상에 실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3) 보편성(Catholic)

'카톨릭(Catholic)'이라는 용어는 '전체와 관련된' 혹은 '보편'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콜리코스(Katholikos)'에서 유래되었다. '카톨릭 교회'라는 표현은 Ignatius 주교가 Smyrna 교회에 보내 편지에서 처음 사용된다. 여기의 '카톨릭 교회'는 개별적 지방 교회와 차별화된 의미로 단순히 '전체'교회를 뜻한다. 이 용어는 점차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전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67] 보편적 교회란 어떤 권위나 정통성이나 배타성을 가진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한다. 성경에서 보편성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성경은 교회가 모든 민족들과

---

[66]Gemit C. Berkouwer, 393.

[67]Hans Küng, *카톨릭 교회*, 배국원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3), 44.

세대들, 모든 신분들과 지위들, 모든 장소와 때를 위해서 세워졌고 합당한 보편성을 가진다고 증명하고 있다.

교회의 보편성은 로마서 10 장 12-13 절인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에 근거한다. 바울은 교회의 보편성을 에베소서 2 장 14-15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으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모든 자들은 화목하게 되었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의 속성을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적인 보편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종의 벽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도성(Apostolic)

사도적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표준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를 일컫는다.[68] 즉 사도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거를 간직하고 그것에 기초하는 교회이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승됨을 통하여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교황과 감독들을 통한 사도직의 계승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들은 교회의 기원이 사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교황과 감독들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개혁교회에서는 사도성을 복음의 계승의 차원에서 해석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수를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라고 본다.

---

[68]이종성, *거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147.

사도들은 세상과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도성의 특성에는 파송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Clowney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했다.[69]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세상에서 영광스런 존재들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신 겸손의 본을 본 받아 낮은 곳에서 섬기며, 그의 가르침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이다. 교회는 사도성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유형교회에 관한 것으로 외면적인 특성을 말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순수한 전통신앙에서 벗어나 세속주의와 계급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단의 도전에 응전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권징 시행을 3가지의 지표로 삼아,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했다.

(1) 말씀 선포

말씀 선포는 교회의 가장 핵심 표지이다. 교회는 항상 모든 활동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요인인 복음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의 시초부터 선언하시기를 자신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계속하라고

[69]Edmund P. Clowney, 87.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실천하는 모든 사역의 뿌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70]

말씀 선포에 있어서 말씀만 있다고 모두가 바른 교회는 아니다. 말씀 선포를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학적 교리적 진리의 기초가 확실한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하지 않고 거짓 교리와 인간적 교훈을 전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오직 믿음, 절대적 은혜에 의한 구원 등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인정하고 교리와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2) 성례 거행

참된 교회는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실행해야 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가 그리스도인로서의 가시적 교제에 들어가는 한 표식이고, 성찬은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71] 바울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올바른 성례의 집행은 교회의 진실한 신앙고백이며 복음 증거라고 보았다(고전 11:26). 이처럼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진리의 유형적인 표현이다.

로마교회는 성례를 말씀으로부터 격리시키며, 인위적 양식과 효력을 추가하며 원래의 성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에 반해 개혁교회는 바른 성례의 시행을 복음 선포와 연결된 주요 표지로 삼았다. 성경은 분명히 세례가 복음전파와 그에 대한

---

[70]Millard J. Erickson, 75-76.

[71]John R. W. Stott, *기독교의 기본 진리*,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197.

신앙적 응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말하며, 성찬에의 참여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행해야할 의무들 중에 근본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3)권징의 시행

Calvin을 포함한 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을 권징을 참교회의 제 3의 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Calvin이후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건전한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며, 권징을 교회의 제3의 표지의 범주에서 다루기 시작했다.[72] 교회가 권징을 등한히 하면 교회는 거룩함을 남용하게 되고, 진리를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리의 혼란과 교인들의 건덕상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말씀의 순결과 성화의 생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권징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심령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자를 교화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다. 참 교회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권징과 성실한 훈련을 행하여, 교회의 신앙고백과 교인들의 실제 생활과의 관계에서 일치를 보이며, 그리스도처럼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지도해야 한다.

[72]김길성, *개혁신학과 교회*, 41.

Ⅲ. 협력사역에 관한 이해

오늘날 교회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 폐쇄주의, 이기주의 등 복합적인 이데올로기의 혼돈과 도전을 접하며 급변화하고 있다. 현대 교회와 목회자는 이에 따른 적합한 순응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은 시대적 요청인 만큼 소형교회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의 하나로서 CSO 의 협력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CSO 의 사역은 CSO 와 교회, 교회와 교회의 협력사역의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 CSO 는 어느 교회의 교회학교나 교회 사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들과 또는 단체들 등 두 그룹 이상이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사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CSO 의 협력사역 방향 모색을 위해서 협력사역의 성서적 의의와 성경적 실례와 현대적 적용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협력사역의 필요성

21 세기로 들어서면서 교회는 협력사역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 간구에 고심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그 전에도 교회의 복음사역은 협력사역적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지만, 산업혁명이후 고도의 물질 문명의 시대를 접하면서 협력사역에 대한 요청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사회 구조체계, 구성원의 가치관, 생활 양식의 변화 등 사회 전반의 현대화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밖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인 지도력 구조에 대한 불신이다.[73] 과거의 정치, 경제, 종교 등 각계에서 보여준 일인 정상 지도자상이 사회의 모범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불신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인 체제에서는 견제와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부조리와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일인 지도력 구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도하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기도 하며 서로의 권력을 견제갈 수 있는 연합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전문화이다.[74] 정보의 홍수 시대 또는 고도의 지식 사회라고 불리워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문화된 삶을 요구한다. 일인 지도자가 고도의 지식과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동체 체제의 생존의 한계를 느끼며, 전문성을 가진 자들을 영입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완전히 위임하기도 하며 그들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의 영향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와 정치에서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왔다. 일찌기 Luther 는 만인 제사장설을 통해 교회의 민주주의를 역설하였는데, 그는 교황 중심의 일인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며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갈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했다.[75] 교회로 몰려드는 민주화는 한 사람에게 의존하던 목회를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생기는 유익성들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협력사역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가지고 오고 있다.

---

[73]김광건, “한국교회 상황에서 팀목회의 필요성,” *목회와 신학*, 4 월호, 2006 년, 50-57.

[74]Ibid.

[75]이성희, “무엇이 팀목회인가,” *목회와 신학*, 9 월호, 2011 년, 44-51.

넷째, 다양성이다. 현대 사회는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과학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릴만큼 신속히 다양한 인종과 나라와 문화와 정치와 정보를 교환하며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현대적인 사회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들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있다. 그러므로 조화롭고 역동적인 운영을 꿈꾸는 교회나 단체라면 반드시 현대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호감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운영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협력사역의 정의

Wesley Duewel 은 현대 기독교 사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협력사역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의 지체들이며, 지체들로서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며, 상호 간의 의사 전달을 주의하며, 각 지체들의 활동을 조화시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 아래서 협력하여야 한다고 했다.[76]

협력(cooperation)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돕는 것으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나누며 도와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협력사역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의 힘을 모아 도우며 협동하여 이루어 나가는 전반적인 교회들의 활동을 의미한다.[77]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통해 협력사역을 분부하고 있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과 20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

[76]Wesley L. Duewel,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학회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386-88.

[77]박성식, *바울선교를 통한 협력사역에 실안연구*, 총신대학교 석사논문 (2002), 11-12.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협력사역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그의 지체들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각자 가진 은사들을 나누며, 상부상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협력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이란 목적에 있어서는 팀 사역(Team Ministry)이나 동역(Partnering Ministry)과 그 취지가 동일하며,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다. 그러나 사역의 범위를 고려할 때, 협력사역은 팀 사역이나 동역과는 상이성을 가진다. 협력사역은 팀사역이나 동역과 같이 어떤 하나의 조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교회나 단체의 굴레를 넘어선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상호협력적인 사역을 나타낸다.

실례로 CSO 는 회원 교회의 교회학교 사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파와 사역의 분야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의 사역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도와 주고자 한다. CSO 는 CSO 와 교회의 협력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의 은사들을 교환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사역은 팀사역이나 동역과 같이 서로의 힘을 합하여 같은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범위나 계약 면에 있어서는 더 폭넓고 덜 구속적인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3. 성경에 나타난 협력사역

협력사역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어떤 일을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가? 성경 속에서 협력사역의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협력사역의 올바른 의미와 예들을 연구함으로 협력사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1) 구약의 협력사역

(1)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서 잘 나타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삼위일체의 권위로 신적인 협력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78] 창세기 1장 31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세상을 보시며 훌륭한 조화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신다. 하나님의 첫 사역인 천지창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협력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 진다.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구원사역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협력사역을 통해 이루어 진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엡 1:4-6),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엡 1:7),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79] 이처럼 천지창조로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 성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사역을 잘 나타낸다.

(2) 아담과 하와

---

[78]Luis Bush & Lorry Luts, *Partnering in Ministr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sm* (Illinois: Inter Varsity, 1990), 21.

[79]박성식, *바울선교를 통한 협력사역에 실안연구*, 15.

하나님께서는 또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조력자인 하와를 만드신 것이다(창 2:18-25).[80] 사회 구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작은 연합의 단위인 가정이 서로를 돕는 역할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이웃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지식, 문화, 감정 등을 교류하며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협력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삶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태초부터 협력하도록 만들어졌고, 사회 또한 협력하며 살도록 구조되어 있다.

(3) 모세와 아론

구약 성경에서 협력사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모세의 사역들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사역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께 토로했다.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돕는 인물로 아론을 세우셨다. 그들은 형과 동생이라는 혈연적 친분 관계의 차원이 아닌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로서의 각자의 직분을 담당하며 서로 협력사역을 했다. 사역 초기 때에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출애굽 역사를 도왔고, 언약이 정립되자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며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 계속적으로 돕는 자의 자리를 지켰다.[81]

(4) 모세와 여호수아

[80]고훈, *교회성장을 위한 팀 목회* (서울: 베드로서원, 1996), 30.

[81]송제근, "성경에서 찾아보는 팀 목회의 모델 분석," *목회와 신학*, 9월호, (1995), 73.

모세의 또 다른 충성스런 조력자로 여호수아를 꼽을 수 있다. 그는 결코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서 모세와 함께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모세 옆에서 전적으로 보조하는 조수의 자리에서 겸손히 지켰고, 모세 사후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협력하는 좋은 모본을 찾을 수 있다.

(5)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수종든 여호수아의 초기 사역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갈렙과 함께 거명되고 있다. 민수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다섯 구절이 있다(민 14:6; 14:30; 14:38; 26:65; 32:12). 이 가운데 민수기 14 장 6 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은 갈렙의 이름이 여호수아 보다 앞서 있다.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 갈렙의 비중이 여호수아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조력하는 팀으로서 협력하였고,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되자 동역자를 위하여 조용히 뒤로 물러 섰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의 활동에서도 서로 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82]

(6) 모세와 이드로

모세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모세의 일과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힘을 쓰게 했다. 이를 지켜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 지도자적 덕망을 가진 자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뽑도록 권유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들이고, 그들에게 백성들에 대한 재판권을 주었다. 모세에게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방법을 제시하며 도와준

---

[82]이성희, *디지털 목회와 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75-77.

이드로는 물론이며, 하나님의 율례대로 재판을 하며 모세의 직무를 대행해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들도 모세의 협력사역자들이었다. 모세는 이들의 협조로 하나님과 더욱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백성을 더욱 영적으로 이끄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7) 드보라, 야엘, 바락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주민 이스라엘이 토착민인 가나안을 완전히 제압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 전쟁에서 여사사인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드보라는 소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성들을 격려하며,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부르신 것을 알린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직접 전쟁에 동행할 경우에만 전쟁에 나가겠다고 조건을 걸자, 드보라는 그를 돕기 위해 전쟁으로 나가고 전쟁은 승리로 끝난다.[83]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 뿐만이 아니라 야엘이란 이방 여인의 활약도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추격을 피신해온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용감히 직접 처형해 버림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드보라는 비록 야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가장 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자의 복을 소개한다. 이와같이 드보라, 바락과 이방여인 야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동참하며 협력하였다.

(8) 사무엘과 사울

[83]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45-57.

사사들의 영적 타락과 전통적 관습의 황폐화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신권 통치 제도를 포기하고 중앙집권적인 왕권제도로 돌아서게 했다.[84]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왕의 통치를 원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사무엘은 왕의 제도가 낳게 될 부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였다(삼상 8:1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거절하며 주변 나라들의 침략의 위협에서 지켜줄 왕을 요구했다.[85]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왕을 제비뽑기하여 정하였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공포하였고 백성들은 그의 선포와 함께 사울을 왕으로 환호하며 추앙하였다(삼상 10:17-24).[86]

사무엘의 적극적 활약으로 왕위에 오른 사울왕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며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하는 사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무엘과의 협력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울의 범한 과오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첫 범죄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자, 다급해진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행실을 망령되다고 질책하면서 꾸짖었다. 이 범죄에 대해 Klein은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린 월권적 행위가 그 원인이라고 했다.[87] 이것은 협력사역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역할 분담과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

[84]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87-90.

[85]장일선, *다윗 왕조의 역사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66-369.

[86]강사문, "사무엘상" *성서주석* 8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13.

[87]Ibid., 368.

사울의 두 번째의 범죄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소유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 주고, 좋은 가축과 물건들을 진멸하기 않은 것이다(삼상 15:1-9).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질책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취임부터 퇴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견책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였던 것이다.

(9) 다윗과 나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으로서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었다.[88]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왕의 인생에 있어서 바셋바와의 간통 사건은 그를 반전의 내리막 길로 내리기에 충분한 과실로 보이는 사건이었다. 다윗의 범죄을 지켜본 나단은 성공한 다윗의 측근으로서 다윗을 합리화시켜 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강력한 책망의 멧세지를 보낸다. 당시 다윗은 번성하는 왕국의 왕으로 군인으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기에 나단이 그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용단은 아니였을 것이다.[89]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개인적 관계를 떠나 선지자로서의 말씀 선포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다. 다윗 또한 나단의 경고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순전히 돌아왔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게 되었다.

---

[88]Edward J. Young, "구약의 선지자들," *성구약신학논문집* 제2권, 윤영탁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80.

[89]안영복, *구약역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116-117.

나단은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정이 솔로몬에게로 계승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단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가 태어 났을 때,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심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실마리를 주었다(삼하 12:24-25). 다윗이 노쇠하자 왕궁 안에서는 후계자 문제로 내부적 갈등이 일어 났을 때도, 나단은 솔로몬을 왕위에 추대하는 일에 적극적인 활약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윗을 도왔다(왕상 1 장). 솔로몬은 여러가지 면에서 왕위 계승에는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다윗의 궁내 선지자요 개인의 고문인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멧세지로 영적 권위까지 부여해 줌으로써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90]

(10) 이사야와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매우 혼란한 정치적 혼돈의 시대에 살았다. 그는 왕들이 때로는 앗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때도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했다. 이사야는 아하스왕이 유다가 앗수르와 동맹하는것을 신랄하게 경고했고, 이방의 침략에 두려워하는 아하스왕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예언했다.[91]

특히 이사야는 히스기야왕의 개혁정책을 추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유다에서 다시 종교적 행사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적극 동참했다. 그 후 앗수르의 공격받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왕에게

[90]Arnold Albert Anderson, “2 Samuel,” *Word Bible Commentary,* vol.11, 권대영역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1), 287.

[91]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대학 출판부, 1987), 379.

애굽이나 다른 이방국가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다. 히스기야왕은 이사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두 사람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다(왕하 19 장).[92] 이 외에도 이사야는 히스기야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 기도할 때 그의 환부를 치유해 주었고(왕하 20:1-11), 또 히스기야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나라의 물품들을 보여주자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왕하 20:12-21).

(11) 요시야, 힐기야, 훌다, 사반

열왕기하 23 장과 24 장에 나오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제사장 힐기야, 선지자 훌다, 서기관 사반과 여러 신하들의 협력사역을 잘 보여 준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여호와 유일신 사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을 발견하게 되면서 개혁은 본격화 된다.[93] 여호와를 섬겼을 때의 축복과 배신했을 때의 저주가 담긴 내용의 율법은 제사장 힐기야에 의해 발견되고 서기관 사반에 의해 요시야왕에게 전달된다. 율법을 듣자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의 율법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을 모우고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된다. 요시야의 개혁은 제의의 성소화, 산당의 철폐, 이방제사의 척결, 유월절 준수 등으로 진행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요시야의 위대한 종교개혁 사역은 힐기야, 훌다, 사반은 물론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신하들 등의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을 볼수 있었다.

2) 신약의 협력사역

[92]Leon J. Wood, *이스라엘의 선지자*, 김동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432-436.

[93]Richard Nelson, "열왕기상하," *현대성서주석*, 김희권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395-409.

(1)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신약에서 협력사역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원리에 협력정신이 기초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협력사역의 효과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구원사역의 필요성에 의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예수는 그의 부름에 응한 열 두 명의 제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그들에게 각자 맡을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사역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도록 세상으로 파송하였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 가야하는지 직접 모범을 보이며 실례가 되어 주었다. 그는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가르치며 훈련시켰다.

제자들은 다른 환경과 성격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직업도 세리, 어부, 열심당원 등 다양했고, 기질도 급진적인 형, 신중한 형, 의심이 많은 형 등 모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제각기 다른 유형의 제자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실수도 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안목과 성향을 초월해 이웃과 원수까지도 끌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사랑 안에서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참된 겸손으로 하나되는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배울 수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도 스승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여 초대교회를 돈독히 세우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능력있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활동했다.[94]

(2) 베드로와 사도들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고기를 잡는 곳이었다. 그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막 5:1-7). 그는 이 풍성한 수확을 은밀히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도와 달라고 한다. 그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두 배 가득 고기를 채우게 된다. 베드로는 협력을 통한 배의 결실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운 후, 열한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가 분부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력한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동역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은 오순절날 다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때 방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행 2:14)'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삼천 명을 더했고,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음식과 재산을 공유하며 기도하며 협력공동체를 이루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도 제 구 시에 성전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에 의해 치유받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고, 이로 인해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피박도 함께 받고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요한의 형제이자 열 두 사도 중 하나인

[94]Myron D. Rush, *성서적 경영 방법*, 임창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279.

야고보도 활동 무대는 달랐지만 그가 순교할 때까지(행 12:1-2) 복음 전파자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힘쓰면서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세우는 데 협력하였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와 협력하며, 고넬료의 친인척들을 구원시키는 사건이 나온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과 가치관을 버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협력은 타민족간의 협력사역을 통한 전도의 좋은 예가 된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향할 때, 몇 사람의 동역자들이 동행했고(행 10:23), 이 동역자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다.

(3)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사역 전략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협력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동역자들을 이끌고 선교지로 출발하였고, 가는 곳마다 또 다른 동역팀들을 세워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보살폈다.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동역자를 보내고, 상호간의 사역 소식을 공유하며 계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다. 바울이 사용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바울이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력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95]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협력사역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Wayen Meeks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 서신서들에서 바울의 동역자나 대리인 등으로 바울과 여행했던 사람이 65명이며, 사도행전에서 추가로 나오는 13명을 합하면 거의 80여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신약에서 언급된다고 하였다.[96]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바울의 사역의 첫 길잡이가 되어 준 바나바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이며(행 4:36-37),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행 11:24).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권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단결케 하였다.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당시 예수를 피박하던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회심을 설명하며 소개하는 것은 용감한 결단이었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격려하며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로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행 9:26-30).[97]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 급성장하게 되었다. 바나바는 성공적인 목회에도 불구하고 다소에서 있는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

[95]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5), 74.

[96]Wayne A. Meeks,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황화자 역 (서울: 예장출판국, 1988), 105.

[97]장훈태, "순례자적 지도자로서 바나바의 선교사역 연구," *진리논단*, 제13호, 2006년, 842-843.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하였다. 이로인해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협력 사역자들로 파송하였다(행 13-14).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공회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로서 함께 참여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였다(행 15). 그러나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도하차한 마가를 다시 전도여행에 동참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둘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물론 나중에 마가의 동참을 반대했던 바울은 마가를 다시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협력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동력자들을 구하여 협력사역을 이끌어 갔다.

(4) 바울과 실라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실라를 참여시킨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며 교회들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실라는 당시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신앙 규례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표자로 선출되었다(행 15:23).

실라는 선지자였으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였다(행 15:32). 그는 헬라 문화의 이해력과 능숙한 헬라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기에, 바울의 부족한 헬라식 말씀 전달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고후 10:10; 11:6). 실라의 이런 강점들은 바울의 전도여행에 훌륭한 동역자의 조건들로써

충분했다.[98] 실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실라는 뒤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는 자들을 겸손히 섬기며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행 16-25). 참된 동역자란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같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가는 자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실라는 바울과의 사역을 마친 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는 일을 돕기도 했다(벧전 5:12). 베드로가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 할때, 실라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며 대필해 주었다. 그들의 협력사역을 통해 베드로전서가 나올 수 있었고, 사역하면서 실라를 더 깊게 알게 된 베드로는 실라를 그의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다. 이처럼 실라는 하나님의 일군들의 옆에서 그들의 필요를 겸손히 제공하는 온유한 협력자의 좋은 모본이 되였다.

(5)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바울의 루스드라 첫 방문중 회심하게 되었고, 그후 그 지역의 존경받는 인물로서 활동하다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다(행 16:1-3).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등 여러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였다. 바울은 개척한 많은 교회를 혼자서는 관리할 수가 없었으므로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부탁했다. 디모데는 교회에

---

[98]Roy M. Oswald & Otto Kroeger,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십*, 최광수 이성옥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2), 226-227.

문제가 생겼거나 교회를 격려할 필요가 생기면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를 심방하여 교회에 바울의 생각을 전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였다(살전 3:2-3, 고전 4:17, 빌 1:1). 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였고, 빌립보 교회의 현황을 파악하여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보고하며, 바울의 사역의 대리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99]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협력사역의 귀감이 되는 관계로 평가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도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라고 칭찬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의 방침에 순종하고, 그의 역경과 시련에 동참하며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협력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복음의 열매는 훨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100]

(6) 초대교회의 협력사역

신약성경에 있어서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교회간의 협력사역이 주목받게 된다.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고린도교회 등이 교회협력의 모본이 된다. 교회 개척, 신앙 훈련과 양육, 선교, 구제,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협력했다.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인적자원까지 지원하였다. 안디옥교회는 급성장하였는데 늘어가는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

[99]김형태, *아름다운 휄로우십*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80.

[100]권오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성경연구*, 5월호, 1999년, 11-29.

훈련시킬 교사가 부족했다. 이에 예루살렘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교회로 파송하여 교인들을 양육하도록 도왔다(행 12:19-24). 예루살렘교회의 지원 속에 성장한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파송했다(행 13:2-3). 안디옥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세계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안디옥교회는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곤경에 처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드렸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헌금은 유대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되었다. 고린도교회도 유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제헌금에 참여하여 이웃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도와 주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러한 초대교회들의 협력은 곳곳에 많은 교회들의 태동을 가지고 왔고,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과 같은 전도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고, 엄청난 피박과 환란 속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큰 위로의 원천이 되었다.

4. 협력사역의 유익성

이상에서 협력사역의 의미와 성경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협력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제 협력사역의 보다 구체적인 유익성을 집어보면서 효과적인 협력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침신대의 주상지 교수가 나열한 협력사역의 유익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1]

---

[101]박성식, *바울선교를 통한 협력사역에 실안연구*, 21-22.

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치유를 동시에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전인격적 선교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② 사역이 훨씬 능률적이며 대단히 효과적이며 몇 배의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음이라(전도서 4:9)’는 말씀처럼 협력은 힘을 모아서 효과를 내고 그 성취감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된다.

③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상호 영성훈련을 해 가면서 도전을 주고 자기 성숙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각자가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나가고 상호견제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협력사역을 할 수 있다(전4:12; 렘 26:8). 협력사역을 할 때는 강한 힘이 나와서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 할 수 있게 된다.

④ 많은 업무량을 팀의 다양한 구성원이 분담하여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으며 어떤 일에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동시에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사역할 때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잠 15:22).

⑥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나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럴 때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과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전4:10).

⑦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넓힐 수 있으며 큰 안목을 키울 수 있다.

⑧ 협력사역을 하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며 지도하는 일 등을 통해서 좋은 리더쉽을 계발하고 지도자로 육성될 수 있다.

⑨ 협력사역자 중 어느 누구가 떠나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경우라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잘 조정하여 지속적인 결실을 볼 수 있다.

⑩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며 제한된 개인의 은사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인한 편파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고 폭넓고 건전한 선교사상을 심어 줄 수 있다.

⑪ 협력자의 특성을 잘 살리게 되면 홍보의 효과가 크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으며 기도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⑫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에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기 힘들지만 협력을 통해 각자 맡은 분야에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어 영혼들을 더 깊이 도와줄 수 있게 된다.

Phillip Butler 는 협력사역의 중요성을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하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재들이 필요하다. 나무만으로는 집이 될 수 없다. 유리, 시멘트, 또는 벽돌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재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방법을 아는 일꾼들이 새 집을 짓는다는 목표를 위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작업해야만이 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는 또 협력사역의 유익성들을 ‘협력관계가 가진 힘(The Powerof Partnership)’에서 다음과 밝혔다.[102]

① 협력사역은 성경적이다. 협력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고린도전서 12 장에서와 같이 신자들의 상호작용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

[102]서성민, “한국장로교회의 선교협력,” http://www.cwmpcts.org/89.

② 협력은 공동체 증거가 지닌 힘의 본을 보여준다. 개인주의적 사역은 기독교로부터 신빙성을 빼앗아가 버리지만, 협력사역으로 기독교 공동체적 신빙성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협력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전도의 목표는 각자가 제 역할을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④ 변화무쌍한 세계와 상황 때문에 동반 협력이 필요하다. 급속한 세상의 정황들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예상하며, 공동 작업을 하면서 대처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사역자들이 자원을 연결해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양성, 융통성, 기금, 기도 후원 등을 지속할 수 있다.

⑤ 협력은 가용 자원들을 극대화 한다. 인재, 재정, 장비 등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에 처하는 사역적 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 작업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Dick Iverson은 협력사역이 가져다 주는 유익성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언급했는데, 그 이유 중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총체적인 사역을 가능케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사역으로 총체적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꼽았다. 요구되는 사역의 역할과 범위가 다르지만 각기 특성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에 의해 순발력 있게 대체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장단점을 소유한 사역자들은 타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인 부분을 나누면서 겸손히 협동해 나간다면 전체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 줄 수 있게 된다.[103]

② 견제와 조화를 가져 온다. 한 사람에게 치중되는 지도력을 분산시킴으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03]Dick Iverson, *팀목회*, 권혁재 역 (서울: 진흥, 1999), 84.

③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성장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심적 중압감을 어떤 한 개인이 맡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므로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104]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협력사역의 유익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력사역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개인에게 편중된 권력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셋째, 혼자서 일한다는 고독한 불안감 대신 타인들과 동행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넷째,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폭넓은 경험과 훈련을 하게 된다. 다섯째,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 감에 있어서 협력자들 간에 활력을 받게 되며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5. 협력사역의 장애요소

협력사역의 유익성을 인식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사역의 장애요소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량주의, 개인주의, 계급주의 등에서 기인하는 협력사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은 협력사역이 절실히 요구되는 선교현장과 목회현장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총체적 사역의 현장에서도 만연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hilip Butler 는 선교현장에서 협력사역의 장애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 대화 기술의 부족(lack of effective communications),

[104]Ibid., 100-116.

경제적 요소(financial issues), 개성의 충돌(conflicts of personality),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 부족(lack of clear objectives) 등을 지적했다.[105]

송제근 목사는 목회현장에서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원인을 성취에 대한 조급함, 인간의 지배욕구, 계급주의, 평신도 사역자에대한 경계심 등으로 꼽았다. 그는 목회자가 성공에 대한 조급해 하는 것은 물량주의에 영향을 받아 오염된 것이라고 했다. 교인들을 자신의 양떼라고 여기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지배욕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이며, 교회의 직분을 사회적 계급의식으로 이해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가증시킨다고 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자신들과 잘 어울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자신들의 영역에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106]

김덕수 교수는 사역자들이 합동하며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세 가지의 신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신화는 성공적인 교회나 기업에는 모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생각이며, 두번째는 위대한 일은 천재적인 한 영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매우 낭만적인 사고이며, 세번째는 팀목회에 대해 리더가 없다는 무지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시스틴 대성당의 벽화를 그린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 뒤에는 열여섯 명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협력작업의 예로 들었다. 또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가도 유능한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107]

---

[105]양태철, "협력선교의 중요성," http://www.gmiworldmission.com

[106]송제근, "성경에서 찾아보는 팀목회의 모델 분석," *두란노 목회자료 큰백과; 교회갱신과 목회행정* 제 15 권 (서울: 두란노, 1997), 322.

[107]김덕수, "성공적인 팀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 *목회와 신학*, 6 월호, 2006 년, 58-65.

이승구 교수는 팀목회가 한국 기독교에 정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이 제시하는 본질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팀목회로 돌아 설 수 밖에 없고, 이 팀목회는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활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108]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협력사역의 장애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장애요인들로는 먼저 물량주의로 인한 성장에 대한 부담감, 지배욕심,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오해, 협력사역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동역자들 간의 다양성 수용의 미흡, 인간관계의 부조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6. 협력사역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지금까지 협력사역의 유익성과 장애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협력사역을 운영하고 추진감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유의점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협력사역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시키며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실행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

Philip Butler 는 효과적인 협력사역을 위해서 열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명확한 비전 제시, 인내심, 중재력, 확실한 목표, 비전과 목표의

[108]김성원, "개교회주의 대안 팀목회," *기독뉴스*, 2011 년 2 월 24 일.

일치, 장기적 관점, 상황화, 복음 안에서의 동역,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자원의 공유, 희생과 헌신을 제시하였다.[109]

김덕수 교수는 협력사역을 이끌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의 규율 즉 훈련이라고 강조 한다. 어떤 단체나 그룹을 운영하려면 팀원 간의 협동심이나 결속력도 필요하지만, 힘 있고 효과적인 사역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팀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가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팀의 규율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① 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②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하라. ③ 공개적이고 정직한 분위기를 조성하라. ④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라. ⑤ 협동심과 신뢰감을 조성하라. ⑥ 팀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라. ⑦ 효율적인 결정 관행을 확립하라. ⑧ 최고의 팀을 만들라.[110]

김덕수 교수는 또 효과적인 단체나 팀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① 구성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②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체 내부, 단체와 단체, 교회와 단체 사이에 효과적인 통합성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 ③ 명확한 사역 직무를 갖게 하여 구성원들의 각자 책임 범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 ④ 모든 구성원들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업무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111]

---

[109]양태철, “협력선교의 중요성.”

[110]김덕수, 58-65.

[111]Ibid.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력사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직의 형태와 기능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사역을 하는 단체는 역동적인 운영을 위해서, 먼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해 주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공개적이고 정직한 보고를 하며, 사역의 정보 전달을 통해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뢰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Ⅳ. 교회학교에 관한 이해

1. 기독교 교육의 정의

1) 교육의 어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교육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양에서 사용되는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양에서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의 어원은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 ‘educare’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e’와 ‘이끌어 내다’라는 뜻을 가진 ‘ducare’가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즉 ‘education’의 어의를 통해 교육은 ‘밖으로 이끌어 내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2]

교육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인 ‘pedagogy’는 그리스어인 ‘paidagogos’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노예가 있어서 아동을 교육 장소로 데리고 다니며 교육을 시켰다. 여기에서 아동을 지도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pedagogy’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이 단어는 아동이라는 ‘paidos’와 ‘이끌다'라는 ‘agogos’가 합성된 것이다.[113] 즉 교육을 그리스어의 어원적 고찰을 통해서 볼 때, 교육은‘아동을 이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

[112]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14.

[113]주영흠 외, *신세대를 위한 교육학 개론* (서울: 지학사, 2003), 34-35.

동양에서 ‘교(敎)’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끈다’는 뜻이며, ‘육(育)’은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소망한다’는 뜻으로 학습자의 타고난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양육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114] 결과적으로 교육이라는 말은 동서양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미성숙한 아동에게 전수하거나 전달하며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여 다듬고 완성해 나가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15]

2) 교육의 정의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동서양의 어원적 고찰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교육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교육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도덕적인 인격성 형성을 강조하는 E. Kant 는 교육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작용’이라고 정의 했고, 자연주의자인 J. Rousseau 는 교육을 ‘자기발전을 위한 모든 조성 작용, 즉 미성숙한 자연인을 독립적인 생활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자가 미숙자를 육성하는 모든 작용’이라고 했다. 인간의 사회성에 중점을 둔 F. Schleiermacher 는 교육을 ‘사회의 선진 세대가 후진 세대에 미치는 동화적인 영향’이라는 정의했고, John Dewey 도 교육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했다. 종교적 입장을 취한 J. Maritain 은 교육을 ‘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116]

---

[114]교육학 다이제스트, “제 1 장 교육학 개론,” *새교육*, 2 월호, 2000 년, 194.

[115]이병승 외, *쉽게 풀어 쓴 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3), 18.

[116]홍근일, *교육원리* (서울: 일신사, 1983), 13-15.

교육의 정의는 이와 같이 학자들의 여러가지 사상적 관점에 따라서 도덕성, 자연성, 사회성, 종교성 등의 중점을 두어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하면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 가능성을 계발시켜 이상적인 인간으로 승화시키는 의도적 작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117]

3) 기독교 교육의 정의

기독교 교육은 교육이란 측면에서 일반 교육의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그 교육 내용면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 교육과 다르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으며, 교회와 세상에서 그의 구속적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은 그 기초를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넓게는 기독교 전통에 두고 있다.[118]

종교개혁가인 Martin Luther 는 모든 선한 교육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John Calvin 도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우리 눈에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여 바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119]

4) 교회학교 교육의 정의

---

[117]교육학 다이제스트, "제 1 장 교육학 개론," 194.

[118]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31

[119]강용원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9.

이러한 신앙의 개념 아래에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교회학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중요시되는 현장이다.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교회학교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가르치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잠재된 재능을 이끌어내여 계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육은 영혼을 변화시키며 성장시키는 영적인 교육으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에 따라 변화되도록 도와 주려는 인간의 모든 계획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교육을 계승하는 것이다.[120]

2. 기독교 교육의 목적

1)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지성, 도덕성, 영성의 기본적인 속성을 배양하는 것이며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참된 교육, 즉 생동력이 있는 이념과 이상을 가진 인간을 배양하는 일에 목적을 둔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121]

참된 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창의성 계발에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은 인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이고 규격적인 테두리에 갇혀 두고 있다.

---

[120]조종제, *21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 은혜기획, 1999), 47.

[121]이숙종, 234.

교육이 지향해야 할 창의적인 인간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깊이 사고하며 그 사고에 따라 상황의 순응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인간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의식의 계발에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은 업적과 능력 위주로 평가 받는 사회에서 존속하기 위한 실력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참된 교육은 새로운 인간 의식의 계발과 인격적 사랑, 봉사, 협동 등의 정신 함양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임을 항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은 공동체 의식의 배양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생존하는 존재임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갈등과 대립의 극복, 상부상조의 경험 등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배워야 한다. 넷째, 자연과의 상생관계의 정립에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이 이웃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122]

John Dewey 도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으므로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좋은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의 환경적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목적은 현재의 환경과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이어야 한다. 둘째, 목적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목적은 환경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에 의해 검증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목적은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토끼 사냥에 비유하며, 목적은 사격할 때의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맞추는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능동적인

[122]Ibid., 236-239.

목적은 토끼라는 구체적인 표적을 얻는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완결하는 활동 내부에서 주어진 목적이므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123]

2) 기독교 교육의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은 생동력이 있는 이념과 이상을 가진 인간을 배양하는 것으로 인간의 세 가지 속성인 지성, 도덕성, 영성 중에서 지성과 도덕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영성에 촛점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딤후 3:17). 일반 교육이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다면 기독교 교육은 영적 중생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중생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벧후 1:5-8) 온전하고 성숙하게 자라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중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124]

기독교 교육의 모범적 교사인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교육의 목적을 뚜렷이 강조했고 항시 목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의 교육은 회개에 대한 촉구와 복음으로의 초대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교육적 목적이었다.[125] 종교개혁자인 Martin Luther 는 교육의 목적을 전인적 인격 발전, 하나님과 교회, 국가와 사회의 봉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126] John

---

[123]John Dewey,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07), 177-179.

[124]BJUP, *기독교 교육*, 존스연구소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09), 4-5.

[125]Lewis J. Sherrill, *기독교 교육의 발생*,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03.

[126]Elmer L. Towns, *인물 중심의 종교 교육사*, 임영금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157-163.

Calvin도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영적 속성을 강조했다.[127]

3)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

기독교 교육의 한 영역인 교회학교의 교육 목적은 기독교 교육 목적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회학교의 교육 목적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하고 죄로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선천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바르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온전한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였다. 셋째,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 목적은 하나의 이론 교육이나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다섯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128]

참된 교회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이처럼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시키고, 교회와 세상의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하는 것이다.

3. 기독교 교육의 위기

---

[127]오인탁 외 4인 편, *기독교 교육사* (서울: 교육목회, 1992), 207-210.

[128]조종제, 51-53.

기독교 교육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민중을 교화시키고 깨우치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신앙 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을 주도하며 이끌어 왔다. 그러나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교육은 사회 교육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교육에 비해서도 낙후되고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 년대의 John Westerhoff 는 신앙 교육이 심각한 위기의 길목으로 접어들게 된 것을 지적하며, '주일학교의 죽음' 을 과감히 선언하였다.[129] 그는 그 내면적 붕괴 원인들을 지도력 결핍, 교회의 무관심, 교사의 미흡한 자질 그리고 교회의 정책 부재에서 찾았다.

Robert Lynn 과 Elliott Wright 도 세속 신학에 의한 세속적 사상의 노출과 성의 혁명에서 오는 가치관의 전복과 교회의 재정난과 주말 문화의 등장과 같은 것들이 기독교 교육을 위기로 몰고 가는 사회 외부적인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들로 학생수의 감소, 교실의 고답성, 전문성의 실패, 교사 부족, 목회자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130]

4.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

John Wesley 는 아동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인 아동들에 대해 신중하지 않으면 당장 보이는 종교부흥은 오래가지 않아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131]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은 어린이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을 그리는 것과 같이 중요한 작업이다.

---

[129]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171.

[130]은관준, 227.

[131]조종제, 23.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어려서부터 교육 받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다.[132] 신명기 6 장 7 절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했고, 신약의 에베소서 6 장 4 절에서도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다. 이 밖에도 신구약 곳곳에서 어린이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잠 22:6, 시편 78:5-6, 신 11:18, 딤전 4:11 등).

둘째,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33] 인격 형성은 어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교육은 인간의 행위를 경험과 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교회학교의 아동기의 교육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독교적 교양과 훈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올바른 비전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은 장래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인간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육적인 교육과 더불어 영적인 교육이

[132]임세빈, *주일학교 교육이 살아야 21 세기 교회가 보인다* (경기: 온누리, 2002), 118.

[133]Ibdi., 140.

효과적으로 균형있게 운영되는 바람직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회복 될 수는 것이다.[134]

셋째, 복음 전파의 장이다. 교회학교의 활성화는 개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들의 전도가 어른들의 전도보다가 쉽고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장이다. 또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접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복음에 반응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의 부흥과 기독교의 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교회학교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장이다.

넷째, 세속적인 일반 교육의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 현대사회는 가정의 붕괴와 학교의 비인간화와 사회의 세속화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가 약화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소홀해지고, 학교에서 반신앙적인 경향의 교육을 추진함에 따라 어린이들은 세속적인 환경에 노출되고 반신앙적인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이것은 곧 청소년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교육의 세속화는 어린이들의 신앙 형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교회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교회학교의 교육은 일반 학교 교육에서 접할 수 없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에 부담을 갖는 부모들과 교류하며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앙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5. 교회학교의 발전 과정

---

[134]이영숙, *감각활용 어린이 성경교육* (서울: 나침판사, 1977), 21.

1) 구약에서의 신앙 교육

교회학교 교육은 성경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가르치라’는 성경적 명령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유대교의 전통 유산으로 필수적인 것이었다.[135] 구약시대의 신앙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족장시대는 가정에서 아버지인 가장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 출애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신 4:10).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녀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의 사명을 거듭해서 부과하신 것이다(신 6:7, 11:9, 31:11-13).

구약시대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반복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였다(사 38:19).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전승되어 오던 율법, 전통, 신화, 노래, 수수께끼, 우화, 잠언, 기도문 등을 전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사상, 신앙, 독특한 경험들을 함께 전달하였다.[136]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한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되는 것이 강조 되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 뗀 뒤부터 곧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신앙 교육을 시켰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 후 그는 신앙 전수를 위한 선지학교를 설립하였다. 유대왕 여호사밧은 레위 족속을 선발하여 전국에 파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장려했고, 느헤미야 시대에 학사 에스라는 레위 족속의 보조를

---

[135]조종제, 18.

[136]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출판사, 1999), 26.

받아 예루살렘에서 종교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율법서, 역사서, 시편, 예언서 등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종교 교육에 대한 열정을 찾아 볼 수 있다.

2) 신약에서의 신앙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강조는 신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회당과 성전에 가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다(눅 2:42).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유월절에 성전에서 여러 교사들과 성경을 토론하며 가르쳤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자신의 어린 영혼들을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사 중에서 최고의 최교사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가능케하는 교육의 주체였다.[137]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지상 명령을 따라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전과 회당과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을 실시했다. 회당은 예배와 교육을 위한 모임 장소나 유대인들의 공중 집회, 재판, 책벌 등의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회당은 가장 오래 지속된 교육 제도로서 남녀

---

[137]Ibid., 38.

모두에게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한 최초의 신앙 교육 제도의 모체였으며[138] 후대의 교회학교 교육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초대교회의 예배 행위는 교회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목적과 내용의 모형을 잘 말해 준다. 신약 초대교회 예배의 행위 안에는 '카리스마'(찬양-기도-고백), '가르침'(성경봉독-설교-교육-예언), '성례전'(교제-세례-성찬식), 그리고 '봉사와 섬김'(구제와 전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표현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온전한 신앙경험을 이룰 수 있었다.[139]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육 내용을 통해 교회교육의 핵심 내용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가지는 복음적 의미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둘째로 희브리 성서의 기독교적 해석을 가르치고, 셋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넷째로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다섯째로 세례와 성찬에 관한 교육을 한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인 삶의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교육 행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40]

3)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

현대의 교회학교의 태동인 영국의 주일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회학교'와 '주일학교'라는 말의 어의적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은 주일학교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고쳐 쓰고 있는 추세이다. 종래에 주일학교라는 말은 주일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38]Ibid., 31.

[139]은준관, 237.

[140]Ibid., 147.

주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본분이 있으므로, 주일학교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시간적 제한의 의미로 인해 근래에는 교회학교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되고 있다. 교회학교의 범위에는 아동부는 물론 청소년부와 장년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근대 주일학교의 등장은 영국의 한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던 Robert Raikes에 의해 자선학교 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세기 영국 사회는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었고 많은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빈곤과 무지와 범죄로 인한 악순환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기계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숙련공들이 물러나고 단순히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저임금의 단순 노동자들만이 대거 취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장은 직장에서 물러나 가정에 머무르게 되고, 부녀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들은 무력함으로 방황하게 되고 아버지들의 손에 양육이 맡겨진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는 숱한 문제들의 발생을 초래하게 되었다.

당시 빈곤층의 수많은 어린이들은 새로 개발된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이들은 도덕성이나 영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고, 질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 John Wesley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완전히 타락한 불경건한 나라였고 그 곳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항하였다고 묘사했다.[141]

---

[141]Wesley R. Willis, *주일학교 200년사*, 유화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2-13.

Robert Raikes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구할 방법을 간구하며 그 대안으로 주일학교를 구상하게 되었고, 마침내 1780년에 메러디스 부인의 주방에서 최초의 실험적인 주일학교를 창설하였다. Raikes는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모임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 처음에는 남학생들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곧 여학생들도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처음 주일학교는 6세에서 12세 또는 14세의 어린이들이 모였다. 수업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정오에 휴식을 취하고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다른 과목의 수업을 계속했다. 처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3R' 즉 읽기, 쓰기, 셈하기를 위주로 성경과 도덕과 예절을 교육 받았다. 1811년에 Raikes는 타계했고, 1831년에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질 무렵에는 영국의 주일학교는 매주일 125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142]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청소년들은 점점 범죄와 탈선에서 벗어나고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 갔고,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아동들의 선도를 위한 대안으로 주일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주일학교는 가난한 아동들에게 영적인 경건과 도덕적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건전한 가치관과 의무감을 갖게 되는 아동들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스런 봉사심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다.

1785년에는 초교파적인 성격을 띤 주일학교 협회가 William Fox를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모두 평신도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고, 교회밖의 세속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교회 부흥 운동과 발

[142]Elmer L. Towns, *주일학교 교육백과*, 신원삼 역 (서울: 국제문서선교회, 1980), 549-552.

맞추어 함께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은 산업혁명이라는 급변적 사회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교회교육이 감당해 내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고, 이 작은 운동은 영국 각지는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주일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4)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

초기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국은 정치, 문화, 예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유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주일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에서의 초기 주일학교도 영국의 형태를 본 받아 빈곤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미국의 최초의 주일학교는 1785 년 버지니아의 오우크 그로우브에서 William Elliot 에 의해서 개교되었다. 그는 주일 저녁마다 가족과 하인, 자녀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히고 훈계함으로 주일학교를 발족시켰다.[143] 백인과 흑인이 모두 교육을 받았으나 시간은 별도로 실시되었다.

1786 년에는 Francis Asbury 가 버지니아주에서 주일학교를 또 세웠고, 그 후로 남캐럴리나와 매릴랜드, 로드 아일랜드, 뉴욕와 펜실베니아에서도 주일학교들이 연달아 세워졌다. 1790 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에 캐롤라이나의 촬스톤 지역 감리 교회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주일학교를 공식 인정하였다.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한 교파는 감리교였는데, 감리교는 주일학교 사역으로 인해 미국에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1824 년에는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결성되었고, 1827 년에는 감리교

[143]조종제, 26.

주교연합회가 조직되었다. 1874년에는 남부 서부에서만 61,229개의 주일학교가 조직되었고 2,650,000여명의 학생을 양성하게 되었다.[144]

주일학교 연합회는 1830년 미시시피 계곡의 각 마을에 주일학교를 세우기로 결의했다. 주일학교 연합회는 이 계획을 2년 안에 완수하고자 했고, 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헌금과 여러 지역에서 개최된 대집회를 통해 계획을 착수해 나갈 수 있었다. 대집회에는 저명한 인사들도 참석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 대회를 통해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미국 내의 문맹 감소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선교사 Stephen Paxson은 이 주일학교 연합회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미시시피 계곡에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 25년간 직접 말을 타고 다니며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다. Paxson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말을 더듬는 불리한 신체적 조건에도 어린 영혼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 올랐고, 그를 통해 1,314개의 주일학교에서 83,000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145]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시대적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도 긴밀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하고, 1789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정교분리를 명시하게 되자 일반학교 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분리시켜 버리고 주간 5일의 교육하는 일반학교 교육이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주일학교는 주일 하루를 이용하여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미국 주일학교는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후 주일학교는 세 가지의 형태로 설명되게 되었다. 첫째,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있는 학교(The Local Church School), 둘째, 지역사회의 빈곤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The City Mission School),

[144]Ibid., 26-27.

[145]Elmer L. Towns, 552-555.

셋째,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사업이 이전 됨에 따라 그 개척지에 설립되는 개척지의 주일학교(The Pioneer Sunday School)이다.[146]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주일학교 운동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초기 주일학교 연합회 지도자들은 주일학교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주일학교 총회를 강조하면서 교사들을 격려하며 조직력을 강화해 나갔고, 아직 주일학교가 없는 곳으로 확장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147] 1828년에 발표한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 결의안에서는 '주일학교는 국가의 지성 및 도덕 문화를 촉진하고 우리의 평등하면서도 종교적인 제도들을 영구화하고 또 뛰어난 국가적 부를 도덕적 순결 및 미래의 축복과 타협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채택한 기관'이라고 했다.[148]

이처럼 초기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에서의 출발 정신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시작된 영국의 기독교 사회교육의 형태인 주일학교는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안착하게 된다. 즉 부흥 전도 운동과 성서 중심 교육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가 주된 교육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초기 주일학교는 일반 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 신앙 교육을 병행했던 영국의 주일학교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미국의 대부흥 운동과 연관되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 촛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

[146]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91.

[147]Wesley R. Willis, 86-94.

[148]Robert W. Lynn & Elliott Wright, *주일학교 역사*,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21.

5) 현대 기독교 교육의 동향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1940년대까지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일반적으로 종교 교육(Religious Education)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성경의 문자주의와 전통적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학과 여기에 상반된 이론을 제기하며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이 큰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초기 회심교육으로부터 차츰 종교성이나 도덕성의 함양과 형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적 종교교육 운동의 성향으로 흐르는 일대전환기를 맞이했다.[149]

자유주의 신학적 종교교육은 종교의 고유성을 종교가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는 개인적 감정과 정서 그리고 사회적 도덕성 속에서 발견하는 데에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당시 종교교육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진보주의 교육은 여러가지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교육 방법에 대해 눈을 뜨게 하였다. 그리고 주관성을 띄기 쉬운 교회학교 교육을 객관적으로 돌려 놓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150]

1940년대에 들어 서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붕괴와 진보적 종교 교육 학파가 퇴조하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인식의 출발을 추구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일어났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간 것은 인간의 노력이 확대되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망상 또는 인간이해 때문이라는 인식에 이르른 것이다. 신전통주의 신학은 인간의 발달이라는 강조에 대치하여,

---

[149]오인탁 외 4인 편, 308-315.

[150]Ibid.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복음의 고유성에 기초한 교육을 강조하였다.[151]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이르는 기독교 교육의 흐름은 성경을 교육의 중심과제로 삼던 양식과는 달리, 기독교 교육을 성경 말씀에 강조하지 않고 신앙을 교육의 중점에 두었다. 회심과 신학과 심리학적 문제들을 동시에 접근해 갔다. 19 세기부터 '전도'에서 '종교 교육'으로 '종교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변천해 온 현대의 기독교 교육은 종교교수 이론, 문화화 이론, 해방교육 이론, 신앙발달 이론, 영적성숙 이론 등 다양한 교육 이론들의 공존을 보이며 연구 발전되고 있다.[152]

---

[151]장원철, 133-135.

[152]Ibid., 135-136.

V.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 관한 이해

1.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한계성

현대의 기독교 부모들은 교회 선택함에 있어서 개교회의 교회학교의 상황을 중요한 고려 요건으로 꼽는다. 자녀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신앙교육 전수를 위해서 부모들은 교회학교의 프로그램과 교사진 등을 꼼꼼히 살피고, 몇 주 정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적응하고 즐거워하는지 관찰한 후에 교회 출석을 결정짓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성향은 전근대적 가부장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어린 자녀의 의견까지 귀기울이는 평행적 가족관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적 가족구조를 뚜렷이 반영해 준다.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보이며, 학교교육이나 일반적 사회교육에서와 같이 교회교육에 있어서도 운영 체계가 갖추어지고 잘 알려진 명문 교회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자녀들이 질 높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학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교회학교 운영에 많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한다.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전용 예배실이나 교육 전담 건물인 교육관을 갖추고 있다. 부서를 세분화하여 어린이들의 연령에 따라 또래들이 어울려 함께 예배하고, 성경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예배실에는 각종 미디어와 악기가 배치되어 있고, 분반공부실에는 독립적이며 다양한 성경공부 활동을 위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회에서는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회학교가 여러 특별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를 주관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신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후원한다. 전문 사역자가 전적으로 교회학교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우수한 교사들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서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들은 일요일마다 교회학교에 자녀를 데려다 놓으면 어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염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에 집중할 수 있다.

이상은 부모들이 중대형 교회학교를 선호하는 보편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것은 곧 중대형 교회학교의 유익성이기도 하며, 동시에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약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제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열약, 교사 부족, 또래 집단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아이들 영적 외로움 등은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공통의 한계점일 것이다.

2.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유익성 계발

앞에서 살펴 본 소형교회의 신앙교육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꿈꿀 수 없는 것인가? 소형교회의 인적, 물적, 환경적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소그룹 신앙교육은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이 질의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봄으로써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유익성들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앞에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한계성을 살펴볼 때, 소형교회의 한계성의 많은 부분이 외형적 규모와 물리적 지원의 열약함에서 근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외형적인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교회가 사실상 비슷한 고민 속에서 교회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교회가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고, 학생들에 비해 교사가 부족한 실태이다.

신앙교육은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외부적 상황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교육은 그 목표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대형교회, 중형교회 또는 소형교회라는 교회의 규모적 모습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아이들이 구원자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가라는 내적 평가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형교회들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며, 각 교회학교들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교회의 장점을 발견하여 창조적인 방법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153]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교회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 것인데, 여기서는 소규모의 소형교회가 교회학교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익성들을 잘 활용하면 소형교회에서 어린이 신앙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 환경에서 열약한 점들이 있지만 내적 견실함을 추구하기에 용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소형교회의 유익성들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친밀한 관계성을 가진다.

②제자 훈련에 효과적이다.

③참여학습의 효과를 가진다.

④신앙공동체의 삶을 체험한다.

---

[153]Donald L. Griggs and Judy M. Walther, *삶의 현장에서의 기독교교육 작은 교회에서의 교회교육 방법들*. 박명홍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9), 99.

⑤주중 신앙교육의 주체인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용이하다.

⑥전도에 효과적이다.

⑦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제공한다.

⑧또래나 선배와의 활동을 통한 리더쉽 계발에 유익하다.

1) 친밀한 관계성

Clyde Reid 는 소그룹은 급변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를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군중 속에서는 얻기 힘든 사랑과 인정을 요구하는 깊은 갈망을 채워 준다고 했다.[154] 현대의 아동들도 산업화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현상들,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등의 도덕적 문제들 속에 방치되어 있고,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굶주리고 있다. 교회 출석하는 아동들 가운데도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으로 인한 아픔이나 학교에서의 왕따로 인한 피해의식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신체 또는 정서 장애 등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어떤 그룹에 있어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원이 15 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155] 소형교회의 교사들은 맡은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의 개인적 환경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다. 교사는 가능하면 어린이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개인적인 만남에서나 분반공부 때의 만남에서나 어린이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아이의 이름, 사는 동네, 학교, 가족, 생일, 친구, 취미 등 한 아이의 전반적 환경을 파악하고 그 아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154]김영선, *교회성장에 관한 조직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1992), 94.

[155]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150.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들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분반공부란 교회학교에서 한 교사가 한 반을 담당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드는 일이다.[156]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단계로까지 이끌어야 한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라고 부름 받은 사명자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양떼를 돌보았던 것처럼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 최상의 의무요 사명이다. 그러기에 목자는 그리스도처럼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애타게 찾아다니며 기다려야 한다(눅 15:4). 그리고 그 잃어 버린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뻐한다. 이것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한 어린 영혼을 대하는 교사의 심정이어야 한다.

참된 교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하였다. 그는 각 제자들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훈련시켰다. 그는 제자들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인격에 의한 참된 교육을 실행하였다.

---

[156]김인환, *기다려지는 주일학교 만들기* (서울: 기독신문사, 2002), 76.

Lewis Sherrill 은 예수 그리스도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형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청중에게 맞추어 적용했다. 둘째, 완벽한 예를 갖추었다. 셋째, 간단하면서 논리적이다. 넷째,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다섯째, 진리를 고양시키고 나아가 진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여섯째, 진지하면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접근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157] 그리스도는 교육의 방법 전개에 있어서 교육대상인 학습자들 즉 청중들의 입장과 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배려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이들의 각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삶을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성을 계발시키면서,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한다면, 분반 사역은 보다 효과적이면서 영향력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2) 제자 훈련의 효과성

Harro Van Brummelen 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책임있는 제자가 되도록 학생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제자란 스승의 비젼을 붙잡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공언하는 추종자를 말하는데, 이 때 추종자란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승의 원리를 취하여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158]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길러내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학교의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소그룹을 통한

---

[157] Herman H. Horne,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179-180.

[158] Harro Van Brummelen,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이부형 역 (서울: IVP, 2006), 28.

교육과정을 꼽을 수 있다. 소형교회는 분반학습이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제자훈련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여건을 가진 것을 인지하고 잘 계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소그룹의 교육방식을 통해 제자들을 양육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은 평범한 생활의 경험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행하였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먹으며, 자며 때로는 질문도 주고 받으며, 성경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떡을 떼며, 발을 씻기며, 생활하며 제자들을 학습했다. 그 효과는 실제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각인되는 것들이었다.

아무리 좋은 강의와 훈계를 한다해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교훈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 교훈의 가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시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 그가 먼저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는 실천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은 청중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제자 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중 속에서 선포도 하였지만, 소그룹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섬김 등을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한 영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부활 후에도 대중보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르쳤던 교훈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당시의 결과적 실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훈련을 받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세계로 확장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소형교회의 교사는 맡겨진 소수의 아이들이 장래의 그리스도의 일군이며 복음의 전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 현재의 숫적 성장에 대한 관심 보다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어린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의미심장할 것이다.

3) 참여학습의 효율성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참여하고, 함께 분석하고, 역할을 스스로 평가하는 독립심과 참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욕구와 연관성을 가진다. 이런 갈망을 간파한 일반학교에서는 여러가지로 변화를 꾀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제도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현실 아래에서는 여전히 단일한 능력을 요구하고 평가하는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획일주의적 평등관은 각 개인에게 숨겨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발견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개성과 적성에 따라 최적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다원적 능력관에 의한 교육 기회 평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59]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획일적인 사고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으며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

[159]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001년 제11권 제2호, 60.

주었다. 인간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이 존중되어야 하고[160] 다양한 지능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이 구조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획일적이고 일시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활동의 전개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는 현대의 어린이들의 특징 중의 하나인 다양성, 즉 모든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습자인 아이들이 교사의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학습에 참여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직접 경험이 힘든다면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컴퓨터나 텔레비젼으로 세상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의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참여를 유발시킬 만한 대안이 없이 학습을 준비한다면 학습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끌고 들어와서 신앙과 삶을 접목시키는 참여적이고 활동적인 학습을 구상해야 한다.[161]

예수 그리스도는 학습자들의 학습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문답법과 대화법의 활용이 특징적인데, 이를 통해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한 참여 학습의 효과를 이끌었다. 그는 문답법을 통해 여러가지의 질문들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하도록 유도 권장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

[160]Philip R. May,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최수경 역 (서울: IVP, 1994), 25.

[161]김인환, 46.

명확한 학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상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관심을 유발시켰고, 질문으로 교육의 핵심을 지적했고, 어떤 때는 학습자들의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해 보기도 했다. 숙련된 교사인 그리스도는 문답법을 활용함으로 듣는 이들의 사고 작용을 장려하였고 질문들을 풀어 나감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이해시켰다(마 16:13, 막 10:3, 마 12:34, 눅 11:5-6, 요 21:15-17, 마 6:25 등).

대화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빈부귀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높이와 현실에 적합한 대화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고 교통하며 복음을 가르쳤다(요 4:4-42, 요 3:1-21). 대화법을 통해 학습자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 속에서 한 교육을 시도하셨다. Herman H.Horne은 그리스도의 대화법의 특징으로 간략성, 의미심장, 직설 명료, 인격성, 눈높이, 교훈성, 목적성, 반응성, 용감, 책망, 경이성, 친밀성을 꼽았다.[162]

이처럼 그리스도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 보다가 질문과 대답을 통한 서로간의 소통을 통한 교육 방법을 선호했다. 그리스도가 활용한 문답법과 대화법 등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는 질문과 이야기 거리로 다가서는 학습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소그룹 안에서 행해질 때 훨씬 효과적이다. 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질문과 이야기보다는 보편적인 화제거리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여러 질문들과 이야기에 귀기울일 수 있고 충실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 다른 학생의 질문을

[162]Herman H. Horne, 69.

들으면서 옆 자리에 함께한 다른 학생들도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사고하게 되고 해답을 찾으며 학습에 더 몰입하고 흥미를 갖게 되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여학습의 효과를 얻게 된다.

4) 신앙공동체의 생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교육 방법은 신앙공동체 생활을 형성하여 생활경험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를 이루며 실체적 학습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면서 살아 있는 신앙교육의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스도가 선택한 신앙공동체라는 독특한 교육방법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스승의 삶을 직접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교과과정을 제자들이 이수하게 한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이 학교였고 교과과정 그 자체였던 것이다.[16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에 두지 않고 유기체적인 지체들 즉 신앙공동체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에 걸었다. 그리스도에게 처음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서로 다른 성장 과정과 개인적 기질의 차이로 인해 제자들은 많은 갈등을 겪고 누가 더 큰 자인지에 관해 경쟁하고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한 명의 탁월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지체의식에 의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신앙공동체적 교육은 타인을 용납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누가

[163]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9.

높고 낮고가 아닌 함께 가야 한다는 운명공동체적 발상을 갖도록 하였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던 제자들은 신앙공동체 생활의 훈련 기간을 통해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자의 길을 간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며 급속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세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큰 공동체를 중시하게 되고 점점 교회의 제도화, 형식화, 정치화 등 세속적 영향을 받아 그 본질이 퇴색되어 갔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여준 초기의 신앙공동체적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교육의 방법론적 계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 기능의 효과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화와 기계화로 인해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소외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교회교육은 더이상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실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 되어 버렸다.

John H.Westerhoff 는 현대의 교회학교의 교육형태가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학교식 교수형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신앙교육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육적 위기를 단순한 프로그램 수정의 차원에서 다루기 보다는 범례 또는 모델 곧 교육의 구조형성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64] John H.Westerhoff 는 교육을 이처럼 일종의 구조형성의 과정으로 보면서,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구조의 제한성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적 교육에 기초한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으로 구조변경을 역설했다.[165]

---

[164]John H.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23.

[165]고용수,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론," *장신논단,* 1992 년 8 집, 289.

John H.Westerhoff 는 신앙공동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신앙공동체는 명확한 자기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신앙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의미와 목적을 지닌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그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친밀한 교제와 배려를 경험하기 위해서 300 명이 넘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신앙의 유지와 전달과 전개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셋째, 바람직한 공동체는 세 세대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며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세 세대란 과거의 기억속에 사는 제 3 세대, 현재에 사는 제 2 세대, 미래를 향한 환상과 꿈에 사는 1 세대를 말한다. 각 세대들이 서로 연합하고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넷째, 참다운 신앙공동체는 각 세대의 사도, 예언자, 교사 등 서로의 다양한 역할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166]

John. H. Westerhoff 의 신앙공동체적 접근 이론에 따르면, 현대의 교회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식 교수형태의 답습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 구조로 변경시켜야 한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적 교회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소형교회야말로 신앙공동체적 구조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춘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형교회는 동일한 목적과 동질성을 느끼고 상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며 세 세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가정과의 연계교육의 편리성

[166] J. H. Westerhoff, 102-104.

대부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라는 세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가정은 전통적으로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 되어 왔다. 구약시대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는 신앙과 생활 교육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정이 주축이되어 최초의 교회가 형성된 것이었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앙 교육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영향과 전승을 이어 받아 부모의 신앙교육적 역할을 강조했다. 초대교회의 가정 신앙교육의 특징은 첫째,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훈육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넷째,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은 가정의 신앙적 환경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부모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처럼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나 환상을 깨고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167] 이와같은 초대교회의 가정교육관은 현대 가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 사항들이다.

초대교회시대는 가정과 교회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복잡해졌고, 가정과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한 신앙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부부 역할의 변경 등으로 자녀교육의 기초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한 자녀 교육의 기능을 가정 외의 타기관인 학교나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상담실 등으로 분담시키고 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자녀들의

---

[167]이숙종, 393-396.

신앙교육을 교회에 의탁의존하는 추세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은 주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며, 모든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학교의 교사에게 전담시키고 있다.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육이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부모는 주일마다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숙제는 무엇이며 다음 주일 준비사항이 무엇이며 행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주일에 배운 것을 주중에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숙제하는 것도 관찰해 주어야 한다. 교회학교 교사와도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신앙교육을 위해 의논하며 안건을 나누며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부모의 관심이 없는 교회교육은 주중생활로의 연계가 불가능하며 어린이들의 꾸준한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긴밀한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해야 할 가정과 교회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소형교회의 주일학교는 그 적용면에서 용이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만남으로 교사와 부모는 쉽게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아이들을 관찰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며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6) 전도의 용이성

NCD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교회에 등록된 14,000 명에게 교회에 나오게된 계기와 인도자에 대한 설문을 했다. 그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친구 또는 친척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75-90%에 달했다. 이 설문 조사의 보고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전략이 바로 친밀한 관계 전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대중적인 복음 전도의 형태도 필요하지만, 소그룹을 통한 복음 전도가 사람들의 발길을 교회로 옮기게 하는 데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168]

소그룹 전도 형태로 주일학교의 큰 부흥을 이루었던 사례를 Dwight Moody 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19 세기 대표적 복음 전도자이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자였던 그는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에서 그의 사역을 출범시켰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는 이 어린이 전도 사역을 위해 교사를 세우고, 교사가 전도한 어린이를 교사 자신이 맡고 있는 반에 편입시켜 양육하게 했고, 이것은 교사의 전도에 대한 잠재적인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작은 목자가 되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후 일정한 인원이 되면 다시 보조교사를 세워서 그 반을 독립시켰다. 독립시킨 반이 열 개가 되면 그 교사는 부장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교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된다. 전도받은 어린이들이 완전히 교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Dwight Moody 는 소그룹과 연결시키고 그들을 영적으로 관리 양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그룹인 분반 활성화를 통해 그의 어린이 전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169]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는 새롭게 어린이가 전도되어 교회에 오면 적은 그룹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속감도 주고 따뜻한 환영과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새로 출석하는 어린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족같은 안정감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교회에 일원으로 쉽게 적응하게 된다. 또한 소형교회는 교사와 교사,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가족이나

[168]황기영, *소그룹 사역을 통한 한국교회 주일학교 성장 방안*,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논문 (2010), 26.

[169]Ibid., 27.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서 불신자나 교회에대한 호감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다.

7) 봉사 기회의 다양성

오늘날 교육은 더이상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한다. 즉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스스로 자신의 지식으로 완전히 자기화시켜서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적합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성적인 지식(constructed knowledge)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지식과 구성주의 학습활동의 모태로는 지식의 경험을 강조한 John Dewey 의 교육철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듀이는 교육활동에서 경험을 강조하면서 '행함으로써의 학습(learning by doing)'을 강조하였다. 행함은 다름아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신의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주입식 말씀 공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활동을 기초로 하면서 교육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재정립하고 시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은 다름아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의 장은 새로이 습득한 지식을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활용성과 응용성을 의미한다. 즉, 주입된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적합화시킴으로서 경험화되고 구성된 살아있는 지식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봉사와 섬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은 성장이 없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예배와 분반공부에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회교육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봉사와 섬김의 교육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밝힌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그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다(마 22:34-40, 막 12:28-34,눅 10:27-35). 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가르쳤다(마 5:13-16).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봉사와 섬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에 알맞은 봉사와 섬김은 개인들의 은사를 더욱 계발시키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170]

대그룹 중심의 봉사활동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를 각자의 은사에 맞게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이므로 사역 배치나 운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먼저 사역 대상 일거리가 큰 것이어야 하고, 모든

---

[170]정병관, *Cell 사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149.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파악하고 분답하는 작업도 단순한 것이 아니며, 전체 운영 면에 있어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봉사활동 자체가 운영진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그룹에서는 작은 일거리라도 언제든지 몇몇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맡아서 이미 파악된 각자의 은사로 신속하게 자주 섬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소그룹은 개개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참여시 적은 인원이므로 이동성이 용이한 점도 있다. 이 때 대그룹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경우, 소형교회는 이웃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사역을 구상하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을 것이다.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봉사가 아니라 쉬운 일이라도 의미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 위주의 사회봉사도 필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작은 봉사로 지역사회를 직접 섬기며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교육한 내용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봉사와 섬김은 교회 안에서는 환경미화, 식사나 다과 식탁 정리, 안내, 아기들 돌보기 등이며, 밖으로는 거리청소, 양로원이나 장애단체 방문 봉사, 불우 이웃 돕기, 노숙자들 식사제공 보조 등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품는 사랑의 실천을 익힐 수 있도록 각 교회는 어린이들의 사회봉사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의 계발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8) 또래나 선배와의 활동을 통한 리더십 계발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 Lev Vygotsky는 우수한 또래나 선배 간의 활동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학습 경험의 장인

근접발달영역(Proximal Development Zone)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171] 다시 말해서 타인이나 성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영역에서 학습은 시작되어야 하며, 타인의 도움으로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영역의 사이에서 학습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출발점과 잠재적 역량이 가능한 영역에서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우수한 또래나 선배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에는 자신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또래나 선배의 상호협력적인 조력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활동들은 반드시 교육자나 교사가 아닌, 선배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성인보다는 자신의 가까운 미래를 경험한 우수한 선배를 통한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인 것이다. 이것이 근접발달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삶의 현장에서 적용화될 수 있는 자기 구성적 지식인 것이다. 또한 Tharp와 Gallimore는 교육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한 지식을 수행(perform)할 수 있도록 교사의 조력(assisting)을 강조하였다.[172] 지식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다름아닌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면 그 의미를 자신의 의미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적은 인원의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는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선배나 우수한 또래 집단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 또 더 큰 범주의 학습과 교제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사역을 추진할

---

[171]Lev Vygotsky,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978), 86.

[172]Roland G.Tharp and Ronald Gallimore, *Rousing Minds to Life: Teaching, Learning and Schooling in social context*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75.

수 있다. 여러 소형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육현장인 성경학교, 부흥회, 찬양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또래나 선배 집단과 어울려서 서로의 다른 환경과 양식을 교류하면서 동일한 교육내용을 접하게 됨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내용의 습득이 가능하게 된다. 소형교회의 협력사역은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로의 공통적인 환경을 통하여 보다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또래와 선배 간의 조력과 인내를 통한 살아있는 학습을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는 적은 인원이므로 어린이들의 개인 재능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아이들은 소그룹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계발하게 된다. 또한 소형교회는 또래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공동교육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들의 리더쉽은 물론 사회성 계발에도 유익하다.

VI. 연구과제(Project) 실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 연구반 구성

연구반원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CSO의 사역자들로 구성했다. 기본적인 연구반 이외에 CSO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CSO의 스탭들로 구성된 부연구반을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연구반원은 직업의식 보다는 CSO가 추구하는 비젼에 공감하여 봉사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 경험과 재능에 적합한 부서에 소속되어서 봉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로 사역하거나 또는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남는 시간을 할애하여 CSO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승호 전도사는 개교회의 청년부와 찬양부 담당 전도사와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CSO의 예배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예배와 관련된 전반을 관할하는데, CSO의 사역이 교회와 관련된 사역인 만큼 행사나 모임에서 예배와 찬양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백승호 전도사는 CSO가 추진하는 모든 찬양팀 구성과 훈련, 예배 진행 등 전반에 관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다.

정인식 전도사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는 일년 전에 뉴져지에 나눔 교회를 개척하였다. 개척교회 예배가 오후 시간이므로 오전에는 현장 사역팀으로 소형교회를 방문하며 교회학교를 돕기도 한다. CSO가 단회적 주일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등 각종 협력사역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변경수 실장은 현직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CSO 에서 part time 으로 사무 행정을 맡고 있다. 김선경 사모는 주일에는 개교회에서 찬양팀 반주자로 사역하고 주중에는 part time 으로 유아원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변경수 실장과 김선경 사모는 주로 사무실 전반의 행정을 돌보고 있다. 재정관리, 월요회의 내용 작성, 소식지 발송, 스텝 및 봉사자들 관리, 행사 준비 및 보고서 정리, 교회 정보 관리 등 서기부와 회계부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CSO 의 안살림을 사는 자들로서 따뜻하게 찾아오는 이들을 반기고 스텝들의 생일 등 경조사를 꼼꼼히 챙긴다.
이상의 연구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반원 명단

	성명	성별	직분	연령	전문분야
연구반원	백승호	남	전도사	36	찬양 사역자
	정인식	남	전도사	32	개척교회 담임
	변경수	여	집사	37	학원 강사
	김선경	여	사모	34	유아원 교사
부연구반원	박모세	남	전도사	34	교회학교 담당자
	김은미	여	집사	47	사무행정가
	송정선	여	집사	38	찬양 사역자

2) 연구반 활동

CSO 는 누구 한명의 독보적인 존재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이디어를 자유롭게 내어 놓고 함께

의논하며 조율해 나가면서 사역을 진행시켜 나간다. 자신들이 맡은 각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면서 다른 부서의 일들을 도와 주어야 할 경우 모든 사역자들이 시간과 힘을 모아 협력한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여 연구반원들은 각자의 사역 부분은 물론 다른 부서까지 활발하게 돕기 위해 정규적인 만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준비한 사역자가 간단한 멧세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한 후, 본 안건에 대한 토의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사역자들은 CSO 전체 사역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고, 다른 부서의 활동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 월요 회의 때는 연구반원들뿐만 아니라 CSO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별 리더인 디렉터들의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이 때는 예배부 디렉터인 백승호 전도사와 프로그램 디렉터인 정인식 전도사와 현장사역 디렉터인 송제혁 전도사와 본 연구자가 모인다. 기도회는 디렉터들이 동역의 관계를 떠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연중 몇 차례의 CSO 전체 사역자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는 연구반원들은 물론 사정상 월요 정규모임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참석하며, CSO의 사역 현황도 듣게 되며, 새로 참여하는 새 사역자들도 소개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친밀감을 느끼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며, 서로의 사역에 정보도 교환하며 효율적인 협력 사역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연구반원들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독단적인 한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CSO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주관하는 협력을 통해 이루는 사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연구반원들은 예배, 협력 행사, 서기, 회계 등의 각 분야에서 주어진 연구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매주 정규 모임을 통해 수행 정도와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평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된다.

2. 연구과제 실행 내용

본 연구과제는 CSO 전반에 걸친 각 연구반원들의 활동 부서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그러므로 연구과제의 실행 과정과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현장 사역, 협력 사역, 행정 사역, 협력단체 사역 등으로 나누어 부서별로 그 수행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현장 사역

현장사역은 전도사나 교육 담당자가 없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주일마다 방문하여 예배 또는 성경공부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SO 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현장사역의 초기에는 두 명의 전도사들이 매주일마다 소형교회들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일곱 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십여 개의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 있다.

CSO 는 사역의 대상이 소형교회이지만 미국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여러 중형교회에서도 단기 현장사역 파송을 요청하고 있다. 중형교회의 현장사역팀원 파송의 여건이 허락되면 중형교회의 요청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고 있다. 소형교회의 사역보다 중형교회의 현장사역은 더 큰 규모의 인원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두 명인 소형교회에서는 간단한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지만, 중형교회의 경우 이미 갖추어진 제도 속에서 예배, 분반공부, 절기 행사 준비, 교사 훈련 등 훨씬 다양한 영역을 돌아 보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CSO 는 교회의 외형적 규모로 사역의 대상을 정하는 것 보다는 모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성심성의껏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CSO 는 초기에는 구두로 소형교회의 목회자가 현장사역팀의 도움을 요청하면 현장사역자들을 파송하였다. 그러나 더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위해 현장사역 파송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3 개월, 6 개월 등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3 개월이나 6 개월이 지나도 교회 자체적으로 사역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다시 재계약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시켜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소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게되고 자립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도 되고 있다.

유초등부의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현장사역을 위해서는 현장사역자들이 매주 사용할 수 있는 분반 공부 자료와 시청각 자료 등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므로 계속적인 계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대부분 아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권 사역자들을 선호하는데 CSO 는 대부분이 한어권 사역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영어권 사역자들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소형교회의 찬양팀, 소그룹 인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현장에 달려가 도와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소형교회의 경우 전문 찬양 인도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찬양팀 훈련, 찬양 인도 등을 도와 달라는 요청이 오면 백승호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부서에서

현장사역팀을 파송하여 예배 찬양을 직접 인도하기도 하고, 찬양 팀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악기연주를 지도하기도 한다.

2) 교회학교의 협력사역

CSO 현장사역팀이 주일 하루동안 교회들을 방문하여 신앙교육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폭넓고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여러 소형교회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절기별 협력행사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신앙 성장의 동기부여를 주고자 했다. 소형교회 연합여름 성경학교, Holiwin Night, Youth Retreat, Youth Rally 등이 그 예이며, 아이들은 이러한 연합활동을 통하여 또래 신앙의 친구들과 선후배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연합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다수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협력행사의 범위가 처음에는 유초등부로 시작되었는데 점차 중고등부로 확대되고, 지금은 대학 청년부, Young Adults 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기독교 교육 차원의 사역에서 지금은 교회학교와 연계된 교사, 학부모, 목회자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그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ummer Vacation Bible School

CSO 는 협력사역의 제일 첫 행사로 소형교회 연합 Vacation Bible School 을 개최했다. 2009 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6 월 27 일에서 29 일까지 New Jersey 의 Palisades Park 에 있는 Rainbow School 유치원에서 VBS 가 열렸다. 장소는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닌 중성적인 장소인 유치원을 선택했고, 원장은 CSO 의 비젼을 공감하고 VBS 를 위해 유치원을 장소로 흔쾌히 제공해 주었다. 강사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하는 장봉인 목사였고, ‘Loving God, Loving Neighborhood’라는 주제로 40여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 삼 일 중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예배와 특별활동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셋째 날은 Field Trip을 갔다. VBS에 참가한 소형교회들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로 또는 주방 봉사로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2010년도에 실행된 제 2회 CSO의 VBS는 제1회의 경험을 살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날짜는 6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 일 간에 진행되었고, 장소는 Palisades Park에 위치한 Sharon Hanna Preschool에서 제공해 주었다. 강사는 Georgia주의 샬롬교회에 담임 목사인 정동진 목사였고, ‘I am a friend of God’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정동진 목사는 소형교회 목회자이자 청소년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는 CSO의 VBS를 위해 샬롬교회의 중고등부 10여명을 인솔하여 VBS동안 보조교사, 찬양, 청소 등으로 봉사하도록 했고, 잘 훈련된 청소년들은 VBS기간동안 좋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VBS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비춰졌다. 각 교회들의 참여율도 높아져서 6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소형교회의 담임 목사들, 교사들과 학부형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전년도에 비해 커지면서 효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제 3회 Summer Vacation Bible School은 2011년 6월 27일부터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행되었다. 장소는 일정이 평일인 관계로 유치원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New Jersey의 Leonia에 위치한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와 Palisades Park에 있는 말씀 교회 두 곳을 하루씩 사용했다. 마지막 날은 수영장으로 Field Trip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카고의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인 최종대 목사가 강사로 와서 ‘Secret Agent’라는 주제로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회를 거듭할 수록 참석 교회와 아이들이 늘어났고 프로그램 진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찬양, 예배, 소그룹 모임, 미술 공작, 게임, 인형극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어린이로서의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

표 2. The Schedule for the VBS (CSO) / Title: Big Gift

6/27 (Monday)	10:00-11:00AM	Opening Service, Orientation (Sermon: 30 Minutes)
	11:00-12:00PM	Staion I
	12:00-1:00PM	Lunch
	1:00-2:00PM	Staion II
	2:00-3:00PM	Praise & Worship (Sermon: 40 Minutes)
	3:00-3:30PM	Snack & Dismissal
6/28 (Tuesday)	10:00-11:00AM	Praise & Worship (Sermon: 40 Minutes)
	11:00-12:00PM	Station III
	12:00-1:00PM	Lunch
	1:00-2:00PM	Class Activity(Game, Puppet Show)
	2:00-3:00PM	Praise & Worship (sermon: 40 Minutes)
	3:00-3:30PM	Snack & Dismissal
6/29 (Wednesday)	10:00-11:00AM	Praise & Worship (Sermon: 30 Minutes)
	11:00-11:30PM	Prayer Time & Wrap up (Small Group or Charge Teacher)
	11:30-12:10PM	Lunch
	12:10-3:00PM	Field Trip (Swimming Pool or Children Museum)
	3:00-3:30PM	Snack & Dismissal

(2) Holiwin Party

Holywin Party 행사는 한 소형교회 목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협력행사이다. 그는 매년 Halloweeen가 되면 무서운 복장을 하고 trick or treating을 하며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 재미있는 행사를 주관해서 아이들이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형교회는 열약한 재정과 인력으로 인해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신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형교회로 발길을 돌리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담임 목사의 심정은 편치 못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래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전반을 돕고 있는 CSO는 회의를 통해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Holywin Party 행사를 열기로 했다.

2010년 10월 31일 처음으로 개최한 CSO Holywin Party는 Rainbow School의 장소 협조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 날이 마침 일요일인 관계로 예배가 끝나고 곧장 달려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모인 아이들은 먼저 CSO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고, Connecticut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역자인 Manny Lim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예배후 아이들을 유치원 곳곳에 설치된 게임 코너를 돌며 게임을 하고 초콜렛과 사탕도 듬뿍 받았다. 중간에 맛있는 식사까지 나와서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아서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 갔다. 게임 코너에는 소형교회의 자원봉사 희망 교사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배치되어서 CSO 사역자들의 활동만으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소형교회가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 날 아이들은 70여명이 왔고, 소형교회 담임 목사, 교사, 학부모, 중고등부 도우미 등 총 130 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1년 Holywin Party는 때 아닌 폭설로 인해 많은 곳들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학교가 휴교를 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장소를 제공하게 된 New Jersey의 Ridgefield Park에 위치한 오메가교회는 교회 시설 가동 상태가 정상적이어서 행사 개최가 가능했다. 아이들의 방과후 시간인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행사를 진행 했는데, 열악한 일기 가운데도 약 7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였고, 중고등부 자원봉사자, 학부모, CSO 사역자들까지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아이들은 여러가지 게임과 파스타와 치킨 너겟 등 맛있는 식사까지 하고 선물 가방에 초콜렛과 캔디와 선물을 가득 받았다.

(3) Youth Winter Retreat

CSO 초기 사역의 대상은 유초등부였는데, 차츰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에서는 유초등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어권 학생들로 구성된 사춘기의 청소년 그룹의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CSO의 영어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소형교회 중고등부의 예배 인도를 주일마다 돕게 되었다. 현재 한인 교회들은 중고등부를 맡아 줄 영어권 한인 사역자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임 목사님과 영어권 사역자와의 미흡한 의견 소통, 세대간 문화간의 가치관 차이, 영어권 사역자의 높은 사례비 요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가능 인원 등이 그 원인이다. CSO는 주로 한어권 사역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영어권 사역자 요청에 대한 요구에 CSO 자체 내의 영어권 사역자들로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인 2세 교회와 연결해서 CSO의 취지를 설명하고 담임 목사로부터 잘 훈련된 평신도 리더들을 소형교회에 파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현재 중고등부 현장 사역팀으로는 세 명의 CSO 영어권 사역자와 한인 2세 교회 출신의 두 명의 평신도 사역자들로 움직여지고 있다.

Youth Winter Retreat 는 현장사역팀의 중고등부 신앙교육의 연장선이다. 소형교회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여러 교회의 또래들과 어울리며 뜨겁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젼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 캠프 사역팀인 오병이어의 Vision Power 팀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Vision Power 팀은 경험을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고, CSO 는 홍보와 행정 등을 맡아서 각각의 일거리를 분담하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갔다.

2010 년 12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남부 뉴져지에 있는 양지 수양관에서 첫 CSO Youth Winter Retreat 를 개최했다. 10 여개의 소형교회들이 연합하였고, 50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CSO 와 Visoin Power 사역자 및 소형교회의 사역자들도 30 여명 동참하여 총 80 여명이 참석하였다. 주 강사는 오병이어의 대표인 김요한 목사였고 주제는 'Be Holy' 였다.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청소년들의 거룩성 회복과 하늘 나라의 비젼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뜨거운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집회를 인도했다. 이 밖에도 초청 강사들이 와서 다양한 멧세지와 간증으로 청소년들에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청소년들은 짝지어 준 소그룹을 통해 또래의 크리스챤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마음 문을 열면서 친교를 나누었다. 며칠간 함께 지난 Retreat 에서는 이 전의 Youth Rally 와 같은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로 간의 친밀함을 느끼고, 헤어지는 순간에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으며 아쉬워하며 다음 CSO 행사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여러 교회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2011 년 두번 째의 Youth Retreat 는 New Jersey 의 Christian Academy 에서 12 월 26 일부터 28 일간 실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한국의 오병이어 대표인 김요한

목사가 주강사가 되고 Vision Power 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이전 해의 협력사역의 경험을 통해 Vision Power 와의 연합 활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40 여명의 학생과 30 여명의 스텝들이 참여 했고, 프로그램은 전 해의 것과 비슷하게 찬양과 말씀, 소그룹, 찬양 콘서트, 게임, 특별 간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해 보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진한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

표 3. Youth Winter Retreat 2011 년도 일정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7:00AM		아침 7:00-8:30	아침 7:00-8:30
8:00		송이모임 8:30-9:30	송이피드백 8:30-9:30
9:00		파워찬양 9:30-10:00	파워찬양 9:30-10:00
10:00		말씀 김요한 목사 10:00-11:00	Shouting4. Calling 말씀 김요한목사 10:00-12:00
11:00		파워 기도회 11:00-12:00	
12:00PM		점심식사 12:00-1:00	점심식사 12:00-1:00
1:00	도착및 접수 1:00-2:00	Outside Activity~ 1:00-2:30	집으로
2:00	파워찬양 2:00-2:30 말씀 김요한 목사 2:30-3:30	송이발표 2:30-3:20	
3:00	파워기도회 3:30-4:20	Shouting 2. Blessing 3;20-5:30	
4:00	영상 OT		

5:00	4:20-4:40 송이모임 4:40-5:30		
	저녁식사 5:30-6:30	저녁식사 5:30-6:30	
6:00			
	레크레이션 6:30-7:30	파워찬양 6:30-7:00	
7:00		말씀 7:00-8:00 Pastor Dave Sul	
	파워찬양 7:30-8:00		
8:00	말씀 8:00-9:00 Pastor Jae Doo Lee	송이별 나눔 8:00-8:30	
		Concert 8:30-9:30 David Han	
9:00	송이별 나눔 9:30-10:00		
	쉬는시간 9:30-10:00	쉬는시간 9:30-10:00	
10:00	Shouting 1. Sharing 10:00-11:00	Shouting3. Anointing 10:00-11:00	
11:00	파워 기도회 11:00-12:00	파워 기도회 11:00-12:00	

(4) Youth Rally

중고등부 학생들의 연합 모임으로 처음 추진한 것이 Youth Rally 였다. 소형교회의 학생들을 금요일 저녁예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첫 모임은 New Jersey 의 Ridgefield 에 위치한 H-Mart 안에 있는 Culture Center 에서 실행되었다. 이곳은 많은 한인들에게 알려진 장소이고 주차도 편리하고 첫 모임인 만큼 특정 교회가 아니라서 학생들을 보내는 소형교회에서도 부담없이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 Rally 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 였고 설교는 현장사역팀의 영어부에서 담당했고, 찬양인도와 게임 진행은 소형교회들의 대학부에서 맡아서 진행했다. 오후 5 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저녁식사와 예배와 친교로 프로그램을 이어 갔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처음 경험하는 모임이라 학생들은 서먹한 모습이었는데, 서로 개인 소개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두번 째의 Youth Rally는 같은 장소인 Culture Center에서 2011년 1월 21일 개최되었다.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은 첫 회와 비슷하게 식사, 예배, 친교 순서로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처음 모임보다는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만남을 기뻐했다. 이 모임 바로 직전의 Youth Retreat에서 친숙해진 학생들은 Retreat 관련 영상을 보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8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면 집 바깥에서 안정적인 친구집단을 찾아 나서게 되며,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어감에 따라 우정을 맺는 친구의 숫자와 형태들이 증가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부모보다도 친구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그것은 친구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친구들과는 자신들의 속마음과 친밀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173]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들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비슷한 걱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174]

이에 반해 소형교회의 청소년들은 교회에 가도 같이 대화할 상대를 찾기 어렵고 한어권 어른 사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며 영적으로 외로워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또래 집단의 모임을 주선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CSO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그들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5) Youth Lock-In

[173]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206-207.

[174]Ibid., 207.

중고등부 학생들의 보다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위해 CSO는 Youth Lock-In을 주선하였다. 2011년 10월 7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0여명의 청소년들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퀴즈와 게임을 하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기독교 영화를 보았다. 장소는 New Jersey의 Westwood에 위치한 그레이스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제공해 주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밤이 늦도록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교제를 했다. 많은 CSO 사역자들과 참가 교회의 목회자들이 찾아와 부족한 일손을 돕기도 하고 사역을 격려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아이들은 다음 만남을 고대하며 발길을 옮겼다.

(6) Youth Mission Training

소형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 자체 선교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방학을 맞아 선교를 가고자 할 경우, 다른 교회나 단체들을 따라서 가게 된다. CSO는 이런 불편함을 덜어 주고 소형교회 자체적 지원을 유도하며 학생들을 연합하여 여름 단기 선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에 비젼과 재능이 있는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선교 전문 단체인 Global Operation에서 간사를 CSO에 파송해서 청소년들의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첫 선교 훈련은 2011년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8주간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을 한 청소년들은 Palisades Park의 새누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소형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소형교회의 대학생들까지 동참시켜서, 대학생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청소년 후배들을 섬기게 하는 구조를 모색했다. 매주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배와 훈련, 교제, 묵상, 성경역사 수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여 선교과정을 이수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년들이 선교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선교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단지 여름 단기선교를 가고자 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에게 제자훈련에 필요한 과정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선교 훈련 과정에 참여의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각각 참가비 40 불을 받았고, 15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8 주간의 훈련을 마쳤다. 훈련이 끝나는 마지막 모임 때의 그들의 태도와 간증들을 통해서 그들의 놀라운 영적 성장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훈련을 주관하던 Global Operation 의 파송 간사가 개인적 선교 일정 관계로 미국을 떠나게 되었고, CSO 사역자 중에 선교팀을 이끌어 줄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서, 외국 또는 국내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실제적 단기 선교는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잘 훈련 받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선교를 떠날 수는 없었지만, 첫 선교훈련은 청소년들의 내적 성장과 선교 비젼 고취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표 4. Youth Mission Training Schedule

Schedule	Contents
4:00 ~ 4:25(25’)	Worship
4:25 ~ 5:05(40’)	Lecture #1
5:05 ~ 5:20(15’)	Break
5:20 ~ 6:00(40’)	Lecture #2
6:00 ~ 6:30(30’)	Small group reflection meeting

표 5. Youth Mission Training 강의 커리큘럼

	Lecture curriculum (Tentative schedule)
Apr 16	- The Gospel of the Cross: a kernel of wheat to produce many / movie: End of Spears
Apr 23	- What are you called to be according to your biblical identity? / Turkey
Apr 30	- Worshipers’s passion for the glory of God / China

May 7	- Compassion, Father's heart for the lost / Haiti
May 14	- Life of serving the people as Jesus did / Malawi
May 21	- Reading Bible for intimacy / Prayer, the engine of mission
May 28	- God works among the Muslims / How to pray for the Muslim and why?
Jun 4	- Lecture: God who loves Muslim - Outdoor activity: Experiencing Islam (Visiting mosque, Eating Arab food...) - Commencement ceremony

(7) Youth Mission Conference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19일 토요일, New Jersey의 필그림 교회에서 CSO 주관으로 Mission Conference를 가졌다. 강의는 Global Operation 대표인 주누가 선교사의 오전 강의와 미주본부장인 황디모데 선교사의 오후 강의로 이어졌다. Conference는 무료였고, 강의 전에 찬양시간을 가졌고 중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행한 Conference였는데 청소년들은 요동없이 자리를 지키고 선교의 사명을 역설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진지하게 청강했다.

3) 교회학교 지도자의 협력사역

CSO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원할한 운영과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펼치면서 해당 소형교회들의 교회학교 운영에 주체는 크게는 담임목사이고 작게는 교회학교의 교사들이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학부모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CSO가 이들과의 협조가 없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단회적이며 일시적인 방편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CSO는 교회학교의 비젼과 교육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개교회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며, 그들이 지향하는 각교회의 방향성을 CSO가 이해하며

거기에 합당한 사역적 방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교회 지도자들과의 여러 방면에서의 협력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1) 회원교회 목회자 모임 및 세미나

CSO 의 현장사역이나 협력사역에 관계된 모든 소형교회들을 회원교회라고 규정한다. CSO 는 교회학교 사역에 앞서서 어린 양 떼를 인도하는 책임자인 담임 목회자들과 모임을 갖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회 비젼을 듣고, 우리 CSO 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보고하며 평가 받는 시간들을 자주 갖고자 회원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목사들을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경험과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도전도 받게 된다.

회원교회 목회자의 첫 모임은 2010 년 12 월 6 일, 오전 10 시, CSO 의 사무실에서 열렸다.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까지 초청하여 CSO 의 비젼과 실행 중인 사역들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목회자 내외들의 개인적 소개와 목회 중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로부터 CSO 에 조언을 부탁하며, 효과적인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와 CSO 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준비된 정성스런 점심을 나누며 개인적인 친교 시간을 가졌다.

회원교회 목회자의 두번째 모임은 2011 년 3 월 15 일, 오전 11 시에 CSO 사무실에서 가졌다. 이 모임에서 가칭 '협력교회 연합회'가 구성되었고, 회장으로는 뉴져지 시나브로 교회의 박근재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 연합회의 목적은 회원교회와 CSO 의 연결망의 일원화를 위한 것이며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목사들의 모임이다. 이로 인해 목사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있을 경우, 협력교회 연합회를 통해 광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회를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번째 모임은 협력교회 목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들에게 목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1년 6월 7일, CSO의 사무실과 인접한 새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CSO 사무실로 와서 점심을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세미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미나의 강사는 Blanton Peale Director이며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의 객원교수인 구미리암 교수를 초청하였다. 강의의 주제는 '이민교회 목회현장에서의 목회상담'이었고, 20여명의 목사와 사모, 전도사가 참석하여, 목회현장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담 사례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었다.

12월 6일 열린 회원교회 목회자 모임도 세미나 형식을 취했다. 강사로는 뉴욕세광교회 담임이며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 외래강사로 활동한 이민영 목사를 초청하였다. 강의 주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였고, 구약 원문 이해의 방법과 주석활용, 다양한 구약 연구를 위한 교재를 소개했다. 강의가 마치고 CSO의 사역보고와 앞으로 있을 행사 안내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친교했다. 20여명의 목사들이 참석했는데, 회원교회 목사가 아닌 신규 회원을 지원하는 목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구상하고 있는데, CSO의 목사 모임을 통해 개척 선배 목사들의 생생한 체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고, 개척하면서 CSO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목사 모임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2) 목회자 Mission Conference

2011년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Global Operation의 대표인 주누가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주누가 선교사는 현 선교지의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에 대해 알려 주었다. 강의 가운데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 Conference 는 목회자 정규 모임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CSO 사역 보고 보다는 선교 강의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도록 했다.

(3) Teachers' Conference

현장사역팀이 교회를 순회하며 교회학교를 돕고 있지만, 교회의 건강한 교회학교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교회 자체적으로 전담 사역자를 구하거나 자체 내의 교사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SO 는 교회의 여건이 교육부 전담 사역자를 청빙할 수 없는 단계라면 적어도 평신도 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교회의 교육부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첫번째 방안으로 Teachers' Conference 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Conference 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에 따라 열어서 교사들에게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절기별 행사에 참여하던 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명 등에 대한 언급도 요구하며 정규적이며 세분화된 전문성을 띤 강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인 Conference 로 2011 년 4 월 한 달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총 4 회에 걸쳐 Leonia 에 있는 Family in touch 에서 개설하였다. 오후 5 시 30 분부터 모여서 간단한 저녁식사와 찬양과 40 분간의 두 강의를 듣도록 Conference 를 운행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강의안을 짜고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했다. 강의 내용은 분반공부 운영, 효과적인 교재 활용, 복음제시의 방법등 교육 방법론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성향 분석과 교사의 사명과 같은 교사의 자질에 관해서도 강의시간을 할애하였다.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CSO 사역자들이므로 강의안을 짜고 강의를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자체 인력으로 강의를 맡게 되면서 강사료도 절약하고 그 동안 여러차례 협력사역을 통해 만난 교사들이 많아서 친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를 수강한 교사들의 교회 교육부의 사정과 CSO에 대한 조언들을 들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 Conference를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점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표 6. 2011 년 Teachers' Conference 운영안

	Date	Program	담당자
1st	04/03	창의적인 분반공부 운영 - 40분	정혜성
		어린이 찬양 배우기 -15분	김정선, 진선경
		Positive Discipline for the Classroom. 효과적인 분반공부 운영방법 - Character, Title, Special Massage. One Theme 의 중요성, One Point Sermon -40분	정인식
2nd	04/10	복음이란? (What is the Gospel?) -40 분 - 4영리, 그림 없는 책, Video Clip	Jae Song
		어린이 찬양 배우기 -15분	김정선, 진선경
		How to use the Materials (About Easter) - Rules & Attitudes for classroom - Chant & Chart, Multimedia, Bible Story Pictures, Puppet Show & Story telling, Bulletin & Card use Power Point (Using Projector) - 40분	정인식
3rd	04/17	교사의 중요성 - 40분	Jae Song
		어린이 찬양 배우기 -15분	김정선, 진선경
		학생들의 성향분석 및 적용 / 교육법칙 및 학습의 원리	정인식
4th	04/24	Q&A, 교사의 길 (Go over) -40분	정혜성
		어린이 찬양 배우기 -15분	김정선, 진선경
		예배 및 수료식 - 40분	백승호, 정혜성

이 밖에도 CSO는 회원교회로부터 강사가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교사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CSO는 회원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강사를 파송하여 강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종종 회원교회 목회자나 교육

담당자들이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CSO는 동력자의 자세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한다.

(4) 학부모 세미나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 훈련도 계발해야 하지만 주중 신앙교육 교사인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계발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 줄 수 있는지, 교회학교와 어떻게 연계된 교육을 주중에 실시하면 신앙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CSO는 소형교회의 보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첫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학부모 세미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CSO 사역자 중 이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강사로 파송하였다. 주로 일요일 예배 후, 교회의 한 장소에서 학부모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질문 시간도 갖으며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소형교회에서는 학부모들과 교사의 친밀성, 소그룹의 안에서의 교제의 용이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리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며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SO는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 부모들에게 이러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유익성을 상기시키며, 부모들이 교회학교의 신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4) 행정 사역

(1) 행사 진행 및 자료 물품 관리

CSO 는 2010 년 10 월 12 일, CSO 의 행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전용 사무실을 구입하고, 본격적인 행정 기반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팀의 연장사역인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 강습회, 목회자 모임 등 각종 협력사역을 할 때, 행정사역팀은 사무실에서 적극 뒷받침이 되어 주며 행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협력한다. 행사의 사전 홍보에서부터 행사후 평가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돕고, 행사 보고와 평가를 통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같은 행사의 방향성도 연구한다. 그리고 각 행사마다 사용되었던 각종 자료들도 각 파일 별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다음 행사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한다. 행정팀이 관리하는 살림살이는 목사 모임에 사용되는 식사 접시에서부터 Holywin Party 때 사용되는 게임 기구들과 현장사역팀의 교육 교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문서 및 재정

행정팀은 처음 CSO 의 회원교회로 가입하거나 스텝이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자 할 경우,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주소나 신상 변경시 변경사항을 행정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의 일지와 행사 진행 및 평가 일지를 기록하여 정리한다. 이 밖에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일반 문서 보관함에도 넣어서 자료로 남기고 있다. 재정은 행정팀 중에서 회계 담당자가 맡고 있으며 책임자들의 공동 서명에 의해 수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 등 회계 내역은 정규 모임에서 보고하고 있다. 헌금이나 기부의 경우 간단한 감사 카드를 보내고 있다.

(3) 사역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송

행정팀은 CSO가 실행하는 사역을 홍보한다. 포스터 제작과 발송, 광고문 발송, 특별행사 기고 등으로 E-mail, 기독교 언론 매체, 소식지 등을 통해서 CSO의 각종 행사와 현황을 협력 교회와 단체 및 개인에게 알리고 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매주 사역 현황을 교회와 협력 사역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매 달 마지막 주에는 간단한 소식지를 발송하여 협력사역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기독교 단체, 신학교, 교단 사무실 등을 찾아 가서 CSO의 사역의 취지를 알리고 함께 동역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홍보 동영상 제작, 파워 포인트 활용, 안내지 배부 등을 힘쓰고 있고, 몇 년 사이 많은 교회와 단체에게 CSO의 사역을 소개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우기 시작하고 있다.

(4) 월요 모임

행정팀이 여러가지의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우선을 두는 것은 월요 모임이다. 행정팀이 단독으로 과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CSO전체 사역자들의 합의와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정도 진행된다. 먼저 현장팀 디렉터가 간단한 성경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한 주의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한다. 미리 행정팀에서 작성한 회의 안건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각 부서별 사역보고를 듣고, 그에 관한 평가를 하고,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논의 한다. 한 명의 주관자에 의해 행사나 사역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게 하고, 거기에 따라 사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 모임에는 CSO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모든 자들은 참석이 가능하다. 월요 모임 통해 참석자들은 CSO의 사역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CSO에서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구상할 수 있게 된다.

(5) 부서 디렉터 모임

행정 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월마다 부서의 디렉터들이 모임을 갖는다. 본 연구반원들인 디렉터들과 매 월 갖는 모임에서는 월요 모임에서 충분히 갖지 못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행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다. 이 때는 모든 사역자들과 일반 참석자들이 모인 월요 모임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서별 리더로서의 안건들을 다루면서 어려운 안건들이 나오면 합심 기도를 한다. CSO는 모든 행정팀의 활동에 있어서 월요 모임이나 디렉터들의 모임과 같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자 한다.

5) 기독교 단체들과의 협력사역

CSO는 협력사역이라는 방법적 형태를 취하며 소형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다. CSO는 단지 회원교회와 CSO의 사역에서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교회끼리 서로가 협력하며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CSO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단독적 단체로서 지원하는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중인 미주 대학생 선교회(KCCC), 어린이 전도협회(CEF), Global Operation, Vision Power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조언과 구체적인 도움들을 수용하여 소형교회들에게 최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지원하고자 한다.

(1) 미주 대학생 선교회(KCCC)

미주 대학생 선교회(KCCC)는 CSO의 현장사역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선교단체이다. CCC훈련과정을 통하여 잘 양육받은 대학생 리더들이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CCC의 젊은이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실제적 장을 마련해 주고, 이들이 직접 배운 복음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어린이들을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것을 실천하도록 한다. KCCC는 집회 시에 CSO 사역에 관한 홍보시간을 할애해 주기도 하고 부스를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도록 장소도 제공해 주었다. CSO의 학생 리더쉽 모임을 위해,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라는 주제로 KCCC의 간사가 젊은이들에게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며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2) 어린이전도협회(CEF)

CSO가 교회학교의 어린이 사역에 주력함으로 어린이 전도협회(CEF)와 협력하고 있다. 3회에 걸쳐 실행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두 차례의 강사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의 목사들이었다. 한국에서 오신 장인봉 목사와 시카고의 최종대 목사는 어린이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CSO는 남가주 전도협회 대표인 여병헌 목사의 주관으로 뉴욕에서 교사 강습회를 개최할 때, 광고와 안내 등을 담당하였고, 어린이 전도협회로부터 어린이 사역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과 각종 교육자료를 구입하기도 했다.

(3) Global Operation

선교 전문 사역 단체인 Global Operation은 CSO의 소형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맡아서 도왔다. Global Operation은 이를 위해 배성진 간사를 파송하여, 8주간의 강의안과 현장참관학습, 극기훈련 등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며 훈련시켰다. Youth Mission Conference를 위해서 Global Operation 대표인 주누가 선교사가 오전 강의를 맡아 주었고, 미주본부장인 황디모데 선교사의 오후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Mission Conference를 주누가 선교사가 강의했다. CSO는 소형교회의 선교에 대한 세미나와 모임을 위해서 전문 선교단체의 도움과 협조로 효율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4) Vision Power

CSO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비중을 두는 Youth Winter Retreat는 한국에서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잘 알려진 오병이어팀인 Vision Power에서 협력해 주었다. CSO가 처음으로 2010년 12월 Youth Winter Retreat를 개최했을 때, 청소년 전문 캠프 사역팀인 Vision Power의 협력은 큰 힘이 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이은 CSO의 Youth Winter Retreat는 Vision Power의 청소년 캠프 운영에 바탕을 둔 다체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소형교회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쉽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는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다.

(5) 신학교

CSO는 New Jersey와 New York에 위치한 신학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신학교들로부터 인적 지원을 받고 있다.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와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등 신학교들은 신학생들이 인턴과정을 CSO의 사역을 통해 밟은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 신학교에서는 CSO의 사역을 신학생들에게 알리고 참가를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궁금한 점들에 관해 질문을 받고 답해 주면서 CSO의 사역을 설명해 주었고, 이것을 통해 여러 신학생들이 CSO 사무실을 방문하기도하고 직접 CSO의 사역에 동참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6) 기타 기독교 단체들

이 밖에도 Family Touch는 CSO의 각종 세미나 때 장소를 제공해 주고, 뉴저지 밀알, 찬양 사역팀인 Bridge Builders, 성경공부팀인 Coffee Break, 미국의

전도사역인 A Journey to the Potter’s House 등 여러 한인 및 미국 기독교 단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사역을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Ⅶ. 연구과제(Project) 실행에 대한 평가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대상자

1차 설문 조사는 설문에 참여한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의 일반적 사항과 그들의 소형교회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1) 연령분포

설문에 응답한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의 연령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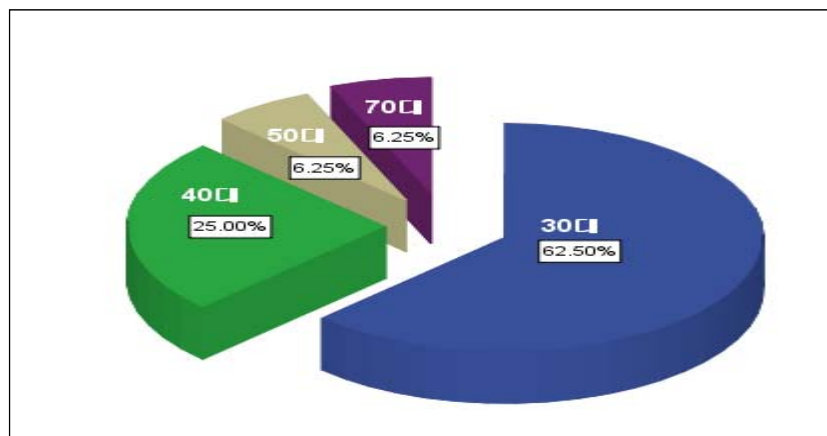
그림 1 연령

그림1에서 보듯이 설문 조사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는 30대가 전체의 62.50%로 나타나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25%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70대가 각각 6.25%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이 30대와 40대가 주축들이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치관은 곧 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하였다.

(2) 신앙연륜

설문에 응답한 설문자들의 신앙연륜을 살펴보면 그림 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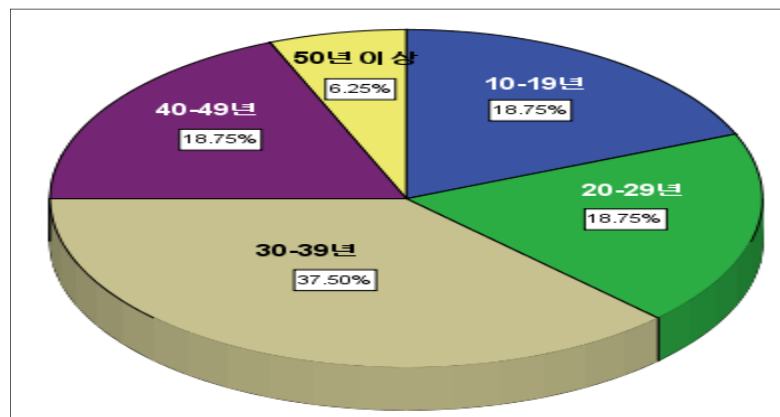
그림 2 신앙연륜

설문에 응답한 설문자들의 신앙연륜은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들의 신앙 연륜은 30-39 년 정도가 37.5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49 년, 20-29 년, 10-19 년이 각각 18.75%로 나타났으며, 50 년이상도 6.25%로 나타나 신앙연륜이 대부분이 20 년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들의 연령이 30-40 대가 주축이 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이들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자이거나 교회생활을 오래한 경륜자들로 이들의 의견이 상당한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가늠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직분

설문에 참여한 자들의 직분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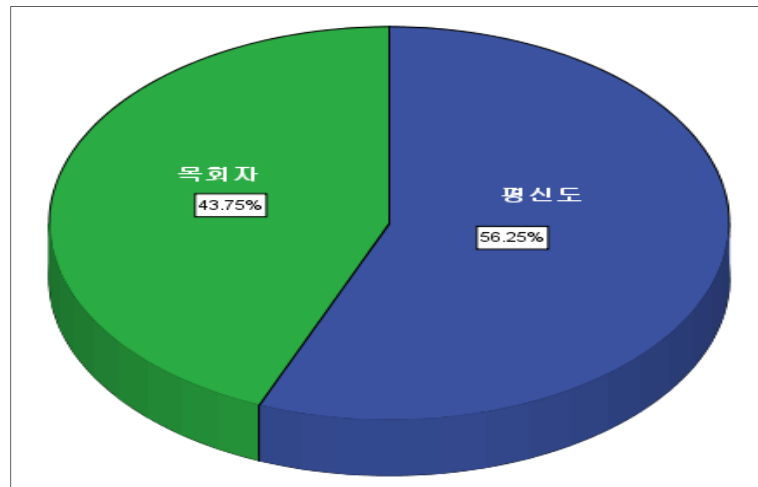
그림 3 직분

설문 조사의 대상자를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전도사, 목사, 선교사 등을 포함하여 목회자로 선정하였고, 평신도에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및 사모를 평신도로 묶었다. 이의 결과로 평신도는 56.25%, 목회자는 43.75%로 나타났으며,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인 목회자의 입장과 이를 후원하는 평신도의 입장, 이 두 그룹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4) 사역분야

설문 응답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답변은 그림 4에 보는 바와 같이 찬양대가 31.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임목회가 25%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구활동과 재정파트가 각각 12.5%로 나타났으며, 교회학교, 캠퍼스 사역, 중고등부 사역이 각각 6.25%로 나타났다. 이는 평신도들은 사역의 역할이 아닌 봉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찬양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교역자들은 사역의 역할인 담임 목회와,

교회학교, 캠퍼스 사역, 중고등부, 교구, 청년부 등 여러 분야에서 다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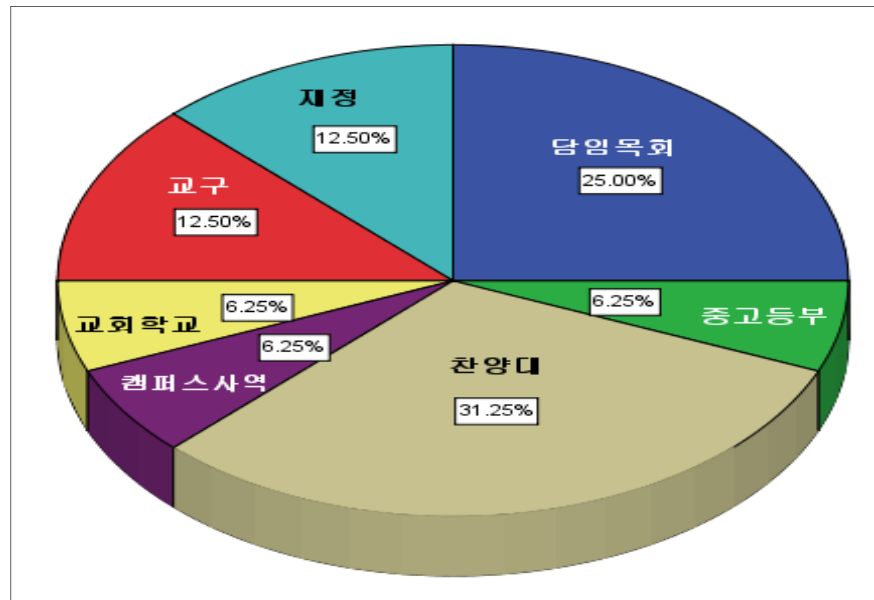
그림 4 사역분야

2) 소형교회의 운영

본 설문은 소형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소형교회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들이 소형교회라 함은 교인들이 얼마 정도를 소형교회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소형교회의 단점을 살펴보고, 그러한 소형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우선적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소형교회들이 단점으로 여기는 사역들을 강화하기 위한 소형교회들간의 협력사역의 유무 및 종류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협력사역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한 협력사역의 방해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출석교인

먼저 소형교회의 운영에 관한 첫번째 질문으로, 어느 정도의 출석교인을 기준으로 소형교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명 이하가 43.7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30명 이하가 31.25%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 이하 18.75%, 70명 이하 6.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소형교회 출석인원 기준치인 80명 보다 더 적은 인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인교회라는 지역적 특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미국내의 한인인구의 분포의 한계성과 많은 소형교회의 생성으로 인한 상대적 교인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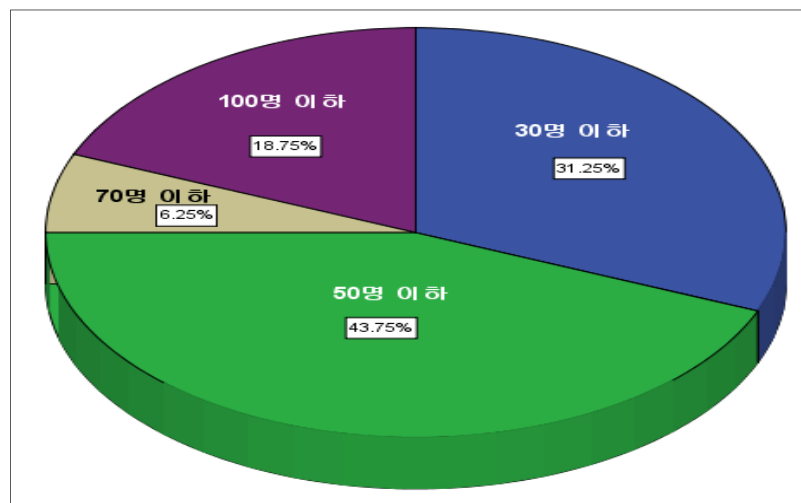
그림 5 소형교회 인원

또한 소형교회인원에 대한 교역자들과 성도들간의 의견을 구분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자들은 50명이하가 55.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성도들은 30명이하가 57.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역자들은

100 명 이하가 22.22%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도들은 50 명 이하가 28.5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역자들과 성도들간의 소형교회의 인원에 대한 생각들이 성도들이 더 작은 수의 교인들을 소형교인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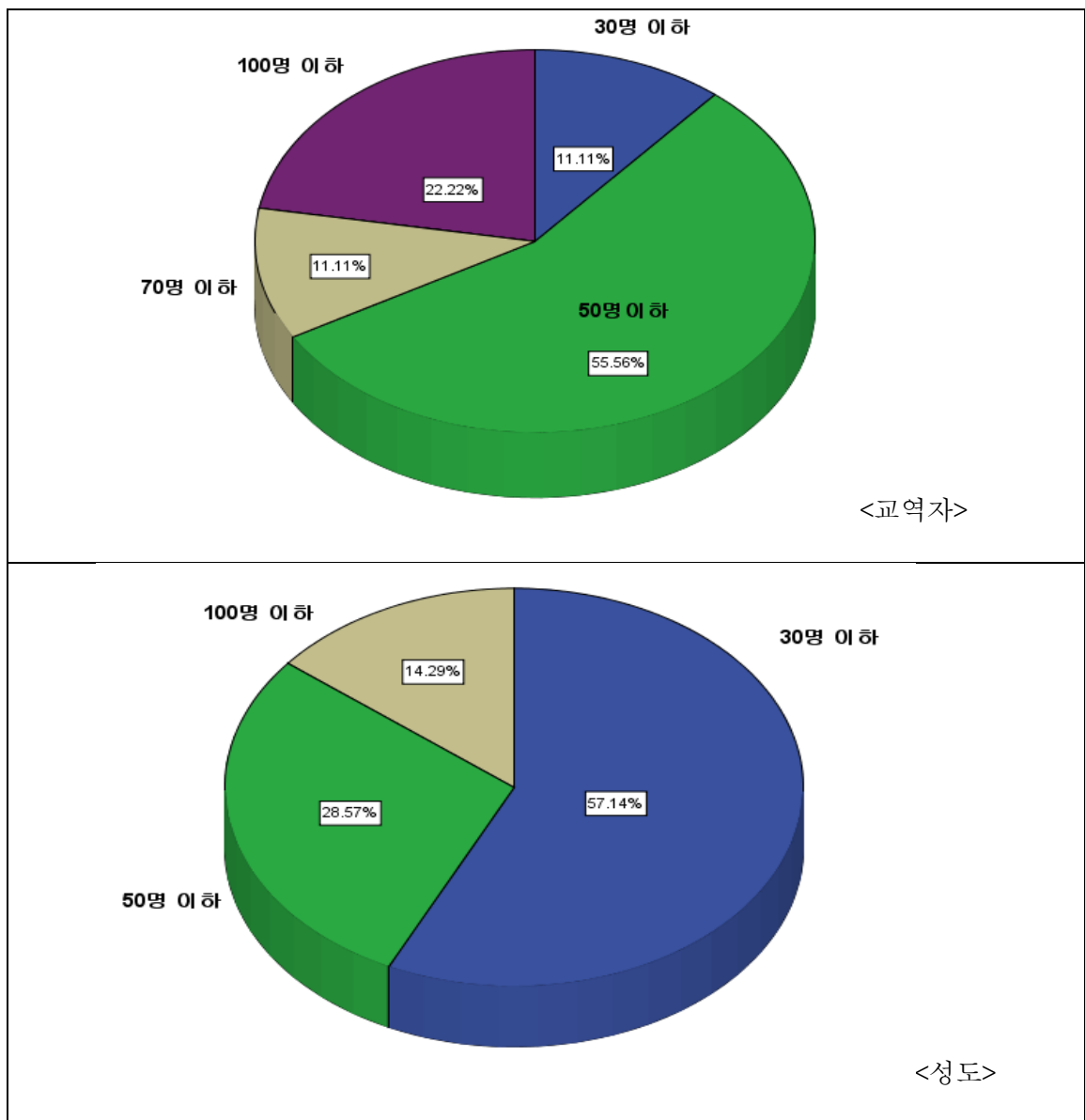
그림 6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소형교회 인원

(2)소형교회의 장점

소형교회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가족적 친교가 37.5%, 은사로 헌신이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형교회가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소형교회의 담임이 목회에 염두에 두면 유익할 것이다.

소형교회의 목회자는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민 생활에서 위로와 안식을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가족과 같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사명에 더욱 힘쓴다면 소형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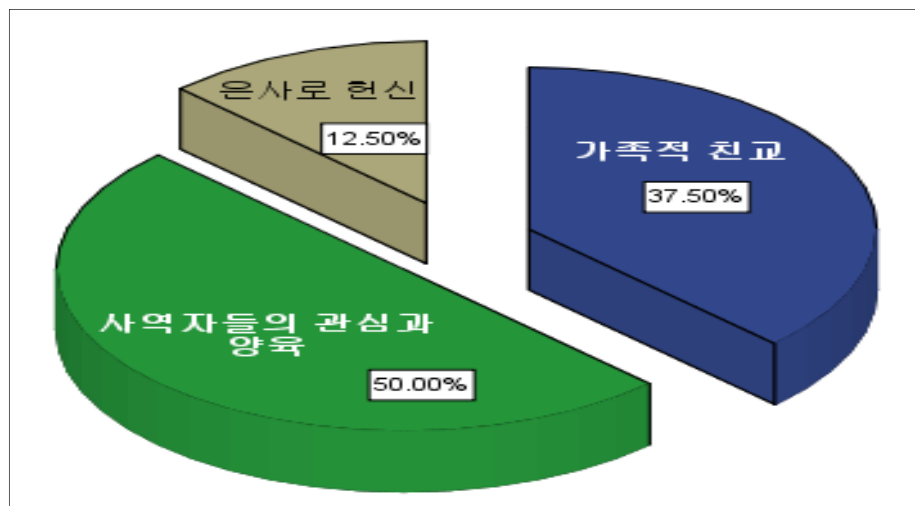
그림 7 소형교회 장점

또한 소형교회의 장점에 대한 교역자들과 성도들간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표 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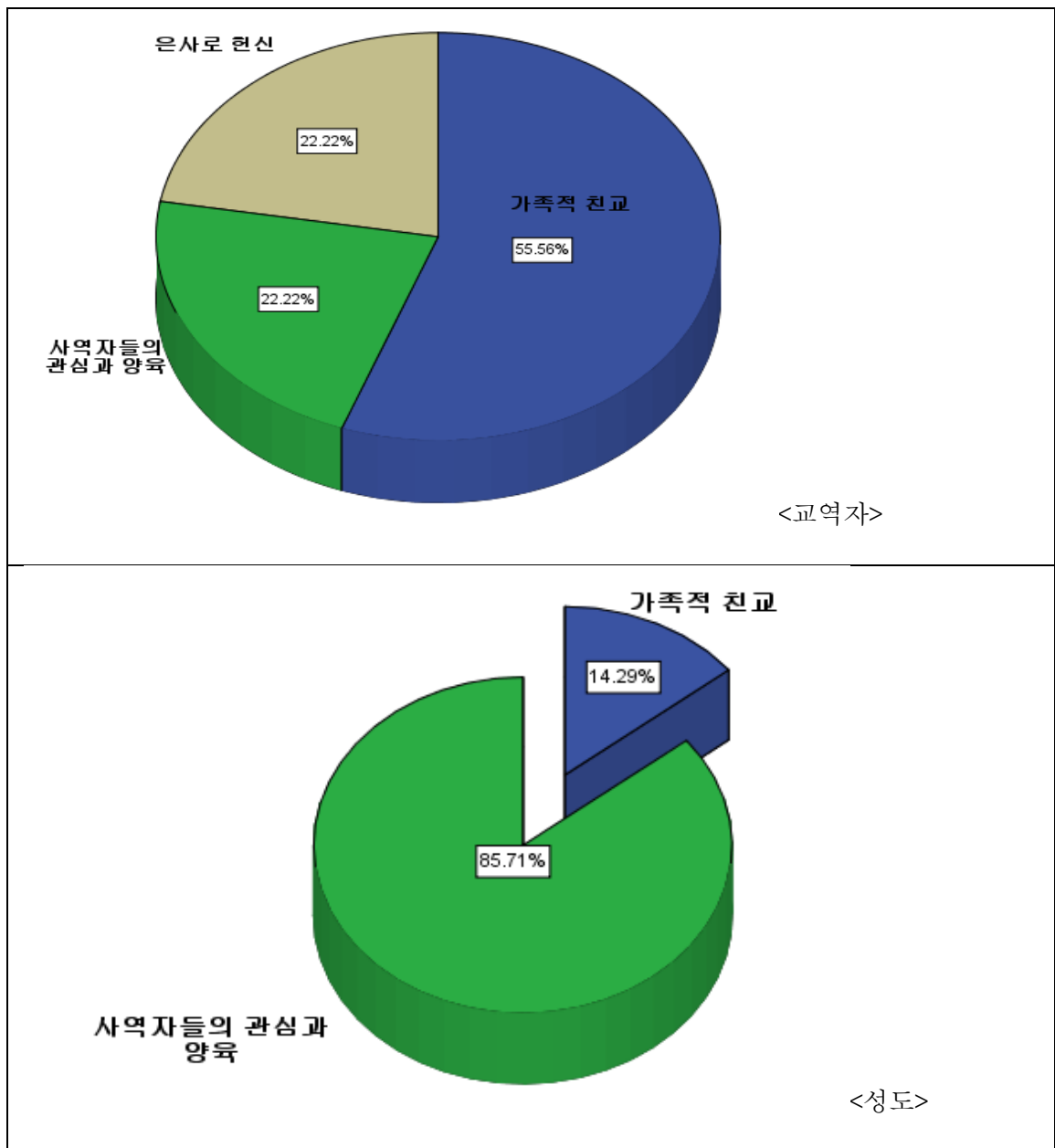
그림 8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소형교회 장점

소형교회에 관한 교역자와 성도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역자들은 가족적 친교 55.56%로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관심과 양육 85.71%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소형교회의 불편한 점

소형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점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대형교회에 비해서 자녀들에 대한 열악한 신앙교육 혜택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역자들의 지나친 관심이 18.75%, 헌금에 대한 부담과 교회운영,전도, 부흥에 관한 부담감이 12.5%,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6.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크게 불편한 점이라고 느끼는 응답인 자녀들에 대한 응답은 소형교회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소형교회 교회학교의 활성화의 보완책의 하나이기도 한 CSO 의 사역이 중대한 시대적 요청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소형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알찬 신앙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계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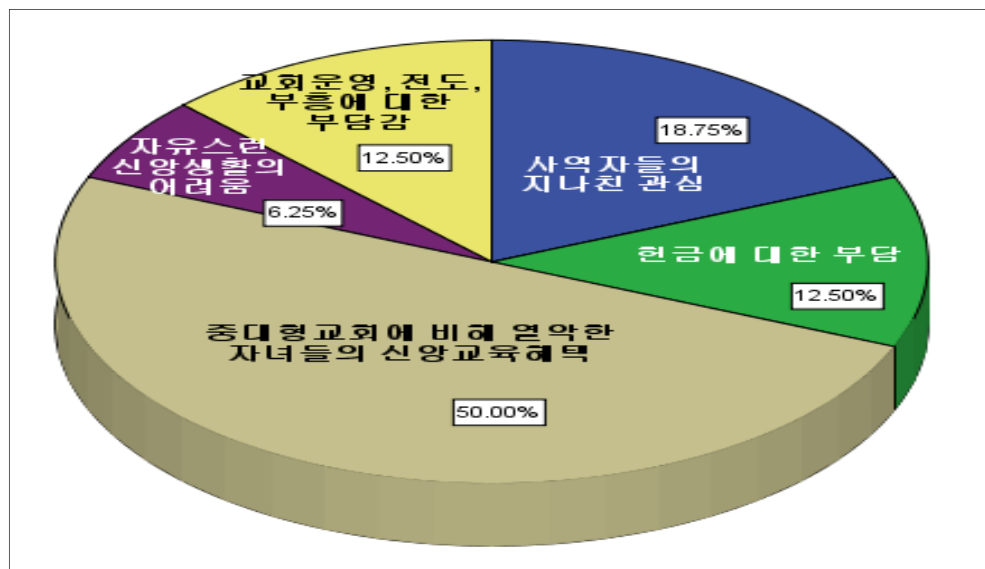
그림 9 소형교회 단점

또한 역설스럽게도 사역자들이 관심과 양육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기면서도 상당히 불편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헌금에 대한 부담, 교회운영

전반에 의한 부담으로 여길 수 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교회를 옮겨도 잘 알지 못하는 중대형교회로의 선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형교회 단점에 관한 교역자들과 성도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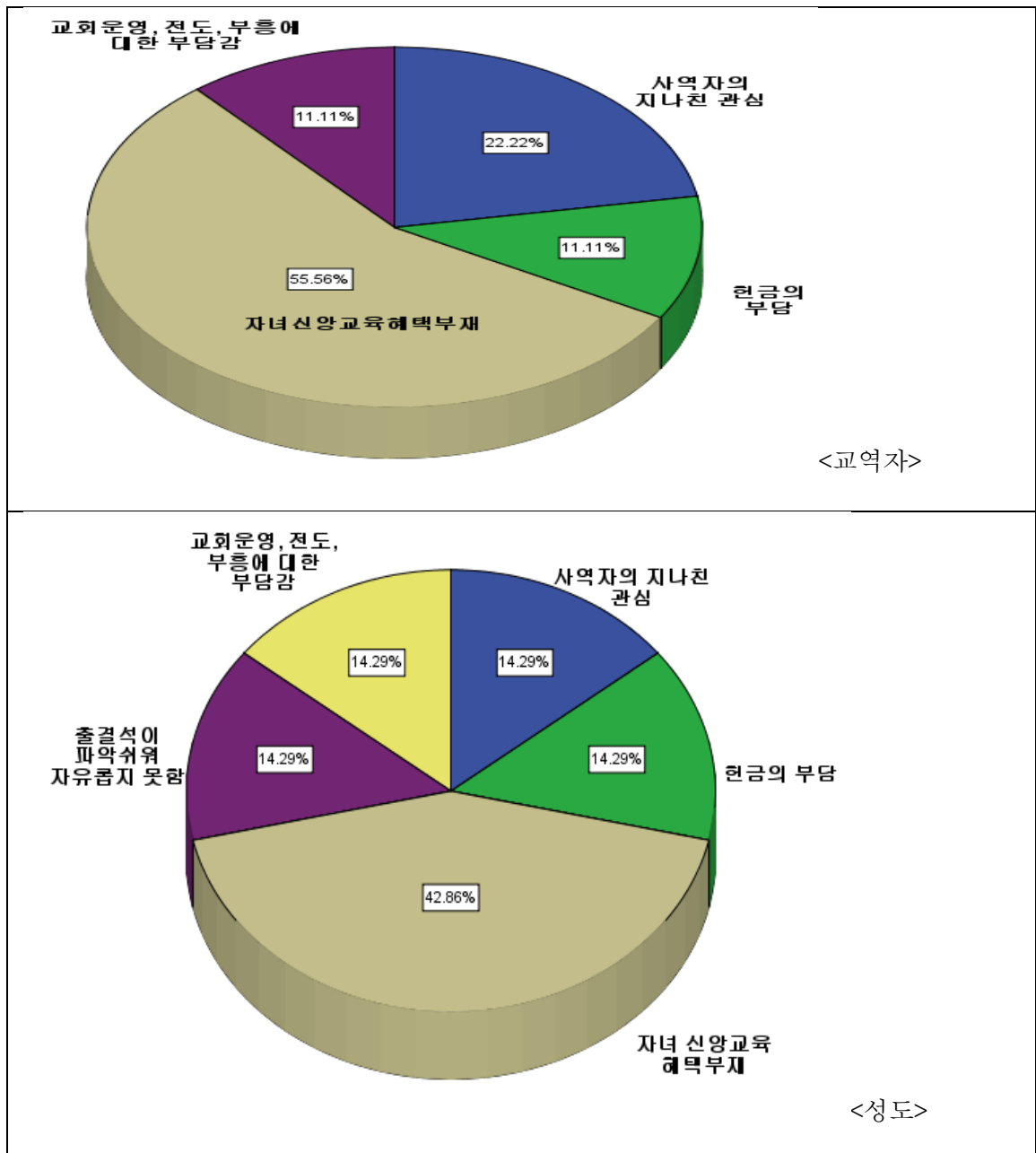
그림 10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소형교회 단점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소형교회의 단점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면, 교역자들과 성도들 모두 자녀신앙교육혜택부재가 각각 55.56%, 4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형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자녀의 신앙교육혜택부재인 것을 알 수 있다.

(4)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

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림 8과 같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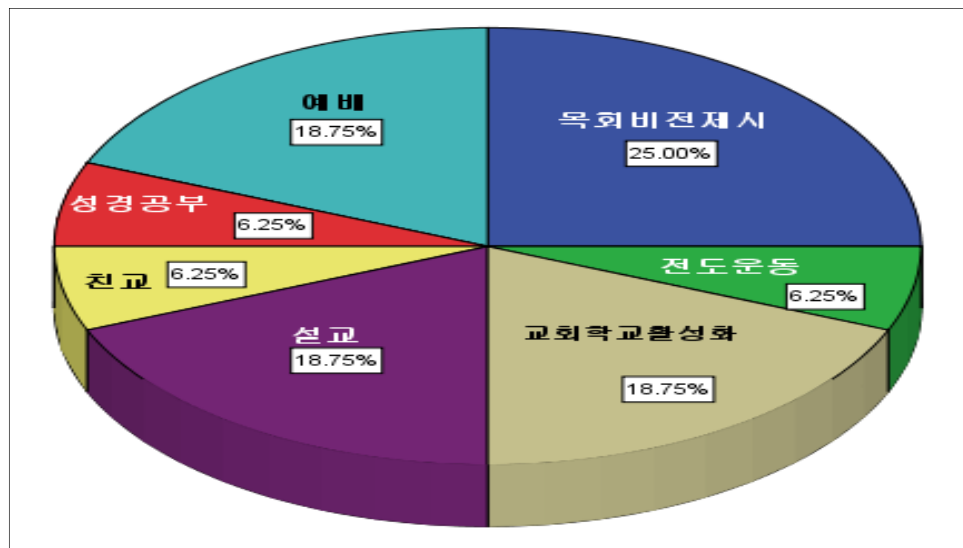
그림 11 개선 방안

소형교회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개선방안에 관해서의 응답은 목회자의 확실한 비전 제시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배의 강화, 설교의 강화, 교회학교의 활성화를 각가 18.75%로 응답했고, 친교와 전도, 성경공부를 각각 6.2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소형교회의 목사는 먼저 확고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고, 교회학교와 예배 및 설교 등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에 관한 교역자와 성도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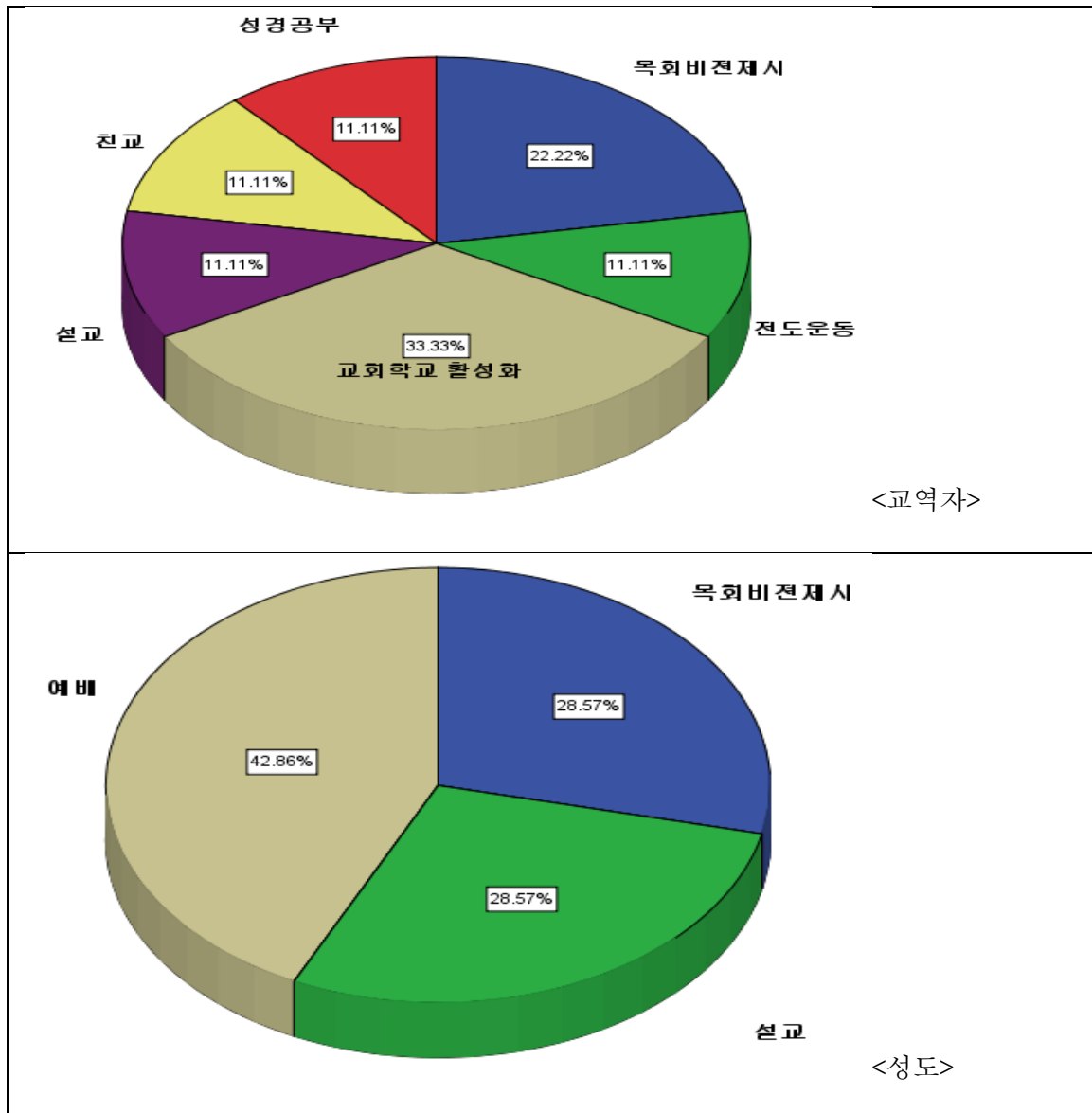
그림 12 교역자와 성도의 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

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에 관한 교역자와 성도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자는 교회학교 활성화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목회비전제시 22.22%로 나타났으나, 성도들은 예배가 4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회비전제시와 설교가 각각 28.5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성도들은 목회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3)소형교회의 협력사역

(1)교회간의 협력사역

설문 응답자의 94%가 출석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협력하여 행사를 실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질문한 응답에 대한 결과는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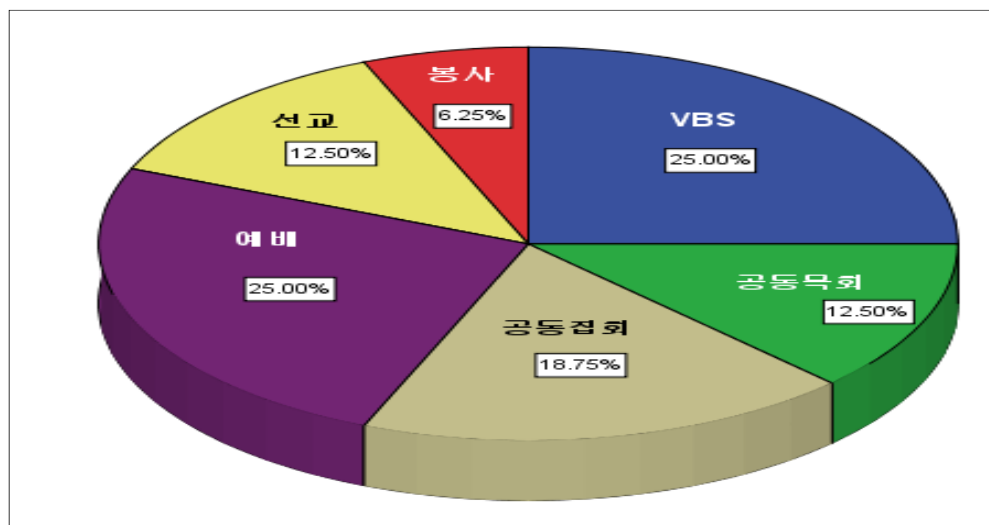
그림 13 협력사역 분야

어떤 분야에서 다른 교회와 협력사역을 시행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으로 VBS 와 예배를 2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공동집회 18.75%, 공동목회 12.5%, 선교 12.5%,

봉사 6.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문한 내용들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사역에 관한 소형교회의 단점을 협력사역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역자들과 성도의 협력사역분야에 관한 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은 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자들은 협력사역의 형태의 사역을 경험한 예로 예배와 공동집회를 꼽아서 각각 3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VBS 와 공동목회와 선교가 각각 11.1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도들은 출석 교회에서 다른 교회나 단체와 협력사역한 예로 42.86%가 VBS 를 들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각각 14.29%로 나타났다.

이는 교역자들은 예배와 집회에 있어서 협력사역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행하는 반면, 성도들은 여름성경학교와 같은 자녀들의 혹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교역자들은 성인 사역에서 다른 교회나 단체와 교류하며 활성화를 도모하며, 성도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부모들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등의 기간에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다른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에서 주관하는 신앙 활동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어 일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CSO 의 교회 협력행사는 이미 현대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목회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뚜렷이 나타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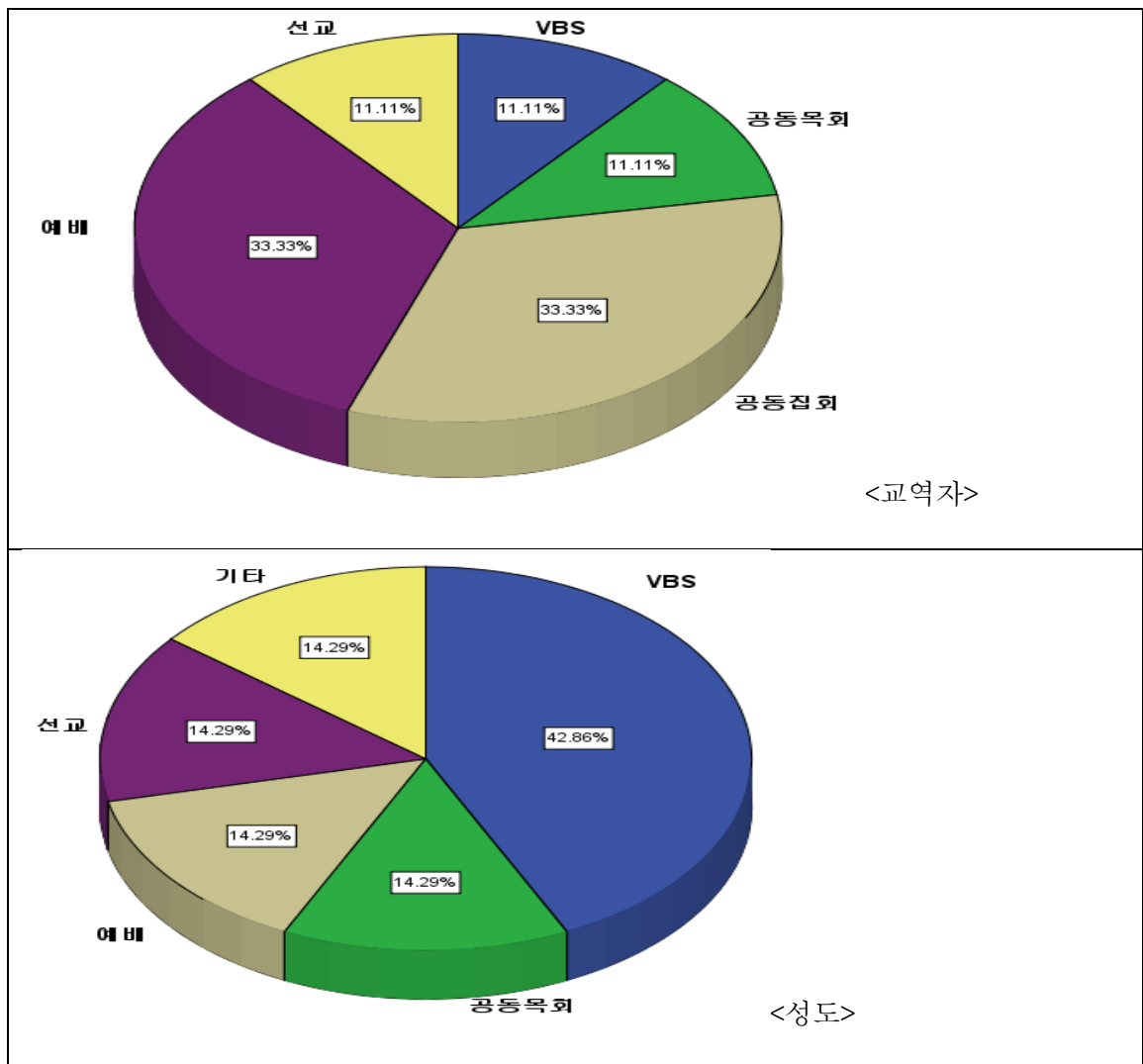
그림 14 교역자들과 성도의 협력사역 분야

(2)협력사업의 장점

협력사업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0 에서 보는 바와 이 단독 교회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만족감이 4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25%가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노력이 합하여 짐으로

행사의 추진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므로 힘이 있고 활기차다는 것과, 새로운 사람들과 교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므로 새롭고 흥미롭다는 것이 각각 12.5%였다. 기타로 어떤 응답자는 이러한 교회 간의 협력행사를 통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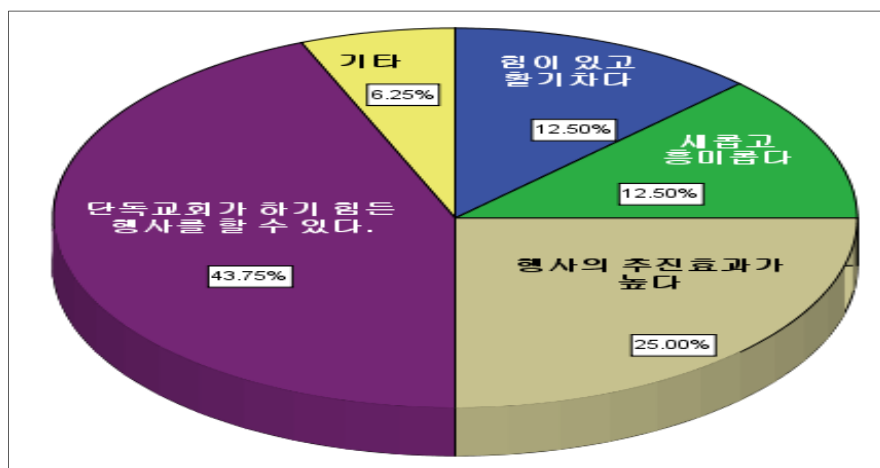
그림 6 협력사역 장점

이렇듯 협력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소형교회로서 추진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교역자나 교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협력사역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은 새로운 도전으로서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역자들이 생각하는 협력사역의 장점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장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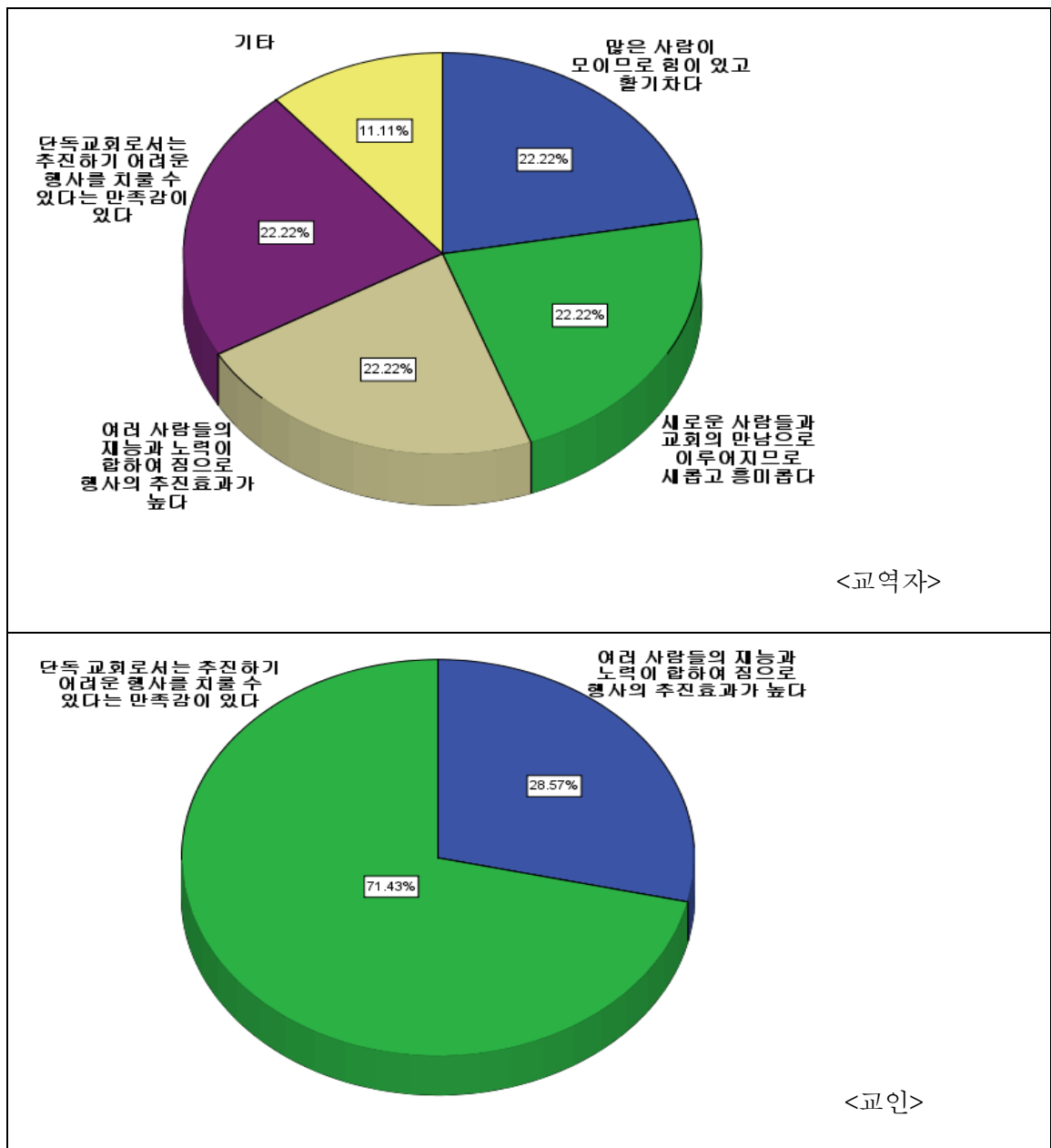
그림 16 교역자와 성도의 협력사역의 장점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협력사역의 장점은 행사의 추진효과가 높다, 새롭고 흥미롭다, 활기차다, 행사의 만족감이 높다가 각각 22.22%로 나타났으나, 성도들은 행사의 만족감이 높다가 7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사의 추진효과가 높다가 28.57%로 나타났다.

(2) 협력사업의 방해요인

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 관한 응답은 그림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교회들의 많은 참여자들 간의 의견 조율이 힘든다는 것과 전체 교인들 보다가 사교적인 몇몇 교인들의 활동만 돋보인다는 것이 각각 31.25%로 가장 많았다. 또 행사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연락망 구축이 어렵다는 것은 18.75%였고, 개 교회의 비전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것이 12.50%였고, 소수의 교회가 행사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 6.2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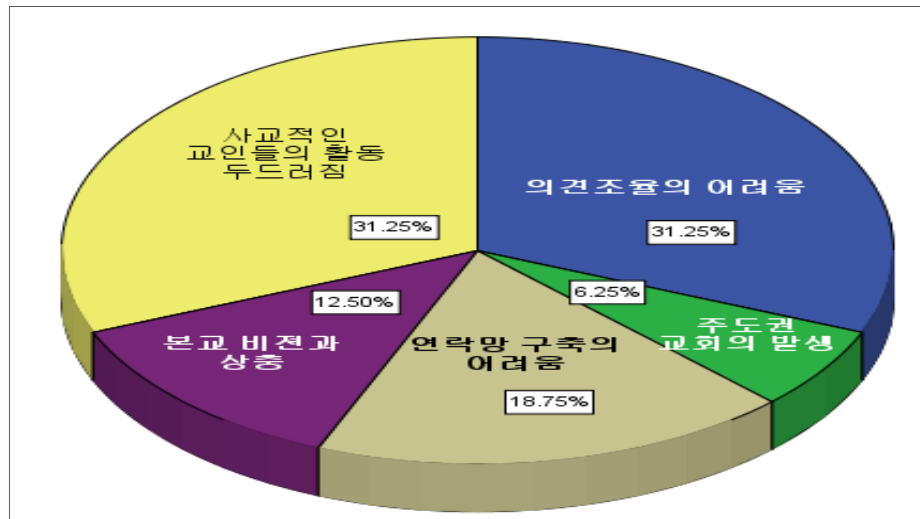
그림 7 협력사역 방해 요인

협력사역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이를 통해 볼 때, 소형교회들 간의 협력사역을 할 때 의견조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어는 한사람 혹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역자와 성도의 협력사역에 있어서 방해요인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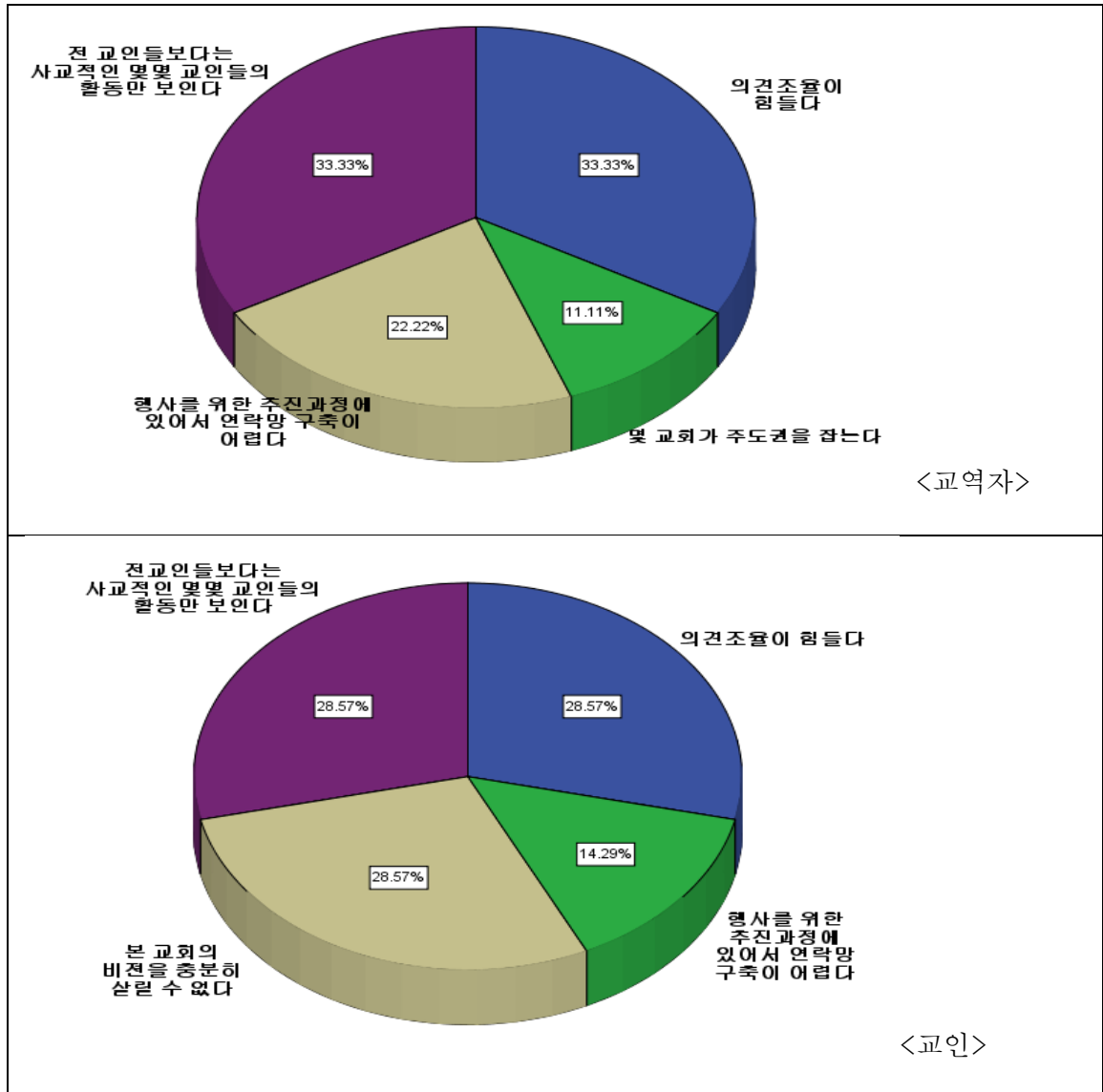
그림 18 교역자와 성도의 협력사역의 방해요인

교역자들은 의견조율이 힘들다, 몇몇 교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33.33%로 응답하였으며, 성도들은 지 교회의 비전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의견조율이 힘들다, 몇몇 교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의견이 각각 28.57%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역자들은 몇몇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방해요인으로 선정한 반면 성도들은 교회의 비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원의 평가

앞서 소형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설문하였듯이, 연구원들의 배경은 어떠한지, 이 사역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인지, 사역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협력사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방해요인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를 CSO 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설문을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CSO 에 관한 생각들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반원의 배경

본 논문의 연구반원과 부 연구반원은 주로 30 대와 40 대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남자 연구반원과 여자 연구반원의 비율은 70%와 30%의 비율로 남자 사역자가 더 많다. 대부분이 목사나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평신도는 15%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연륜을 몇십년에 걸친 것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 상당수이다. 연구반원들은 CSO 의 사역 외에 주일에는 개교회에 속해서 담임 목회, 교육 담당, 찬양 사역 등에서 사역하고 있다.

2) CSO 접한 계기

CSO 사역에 대해 알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그림 1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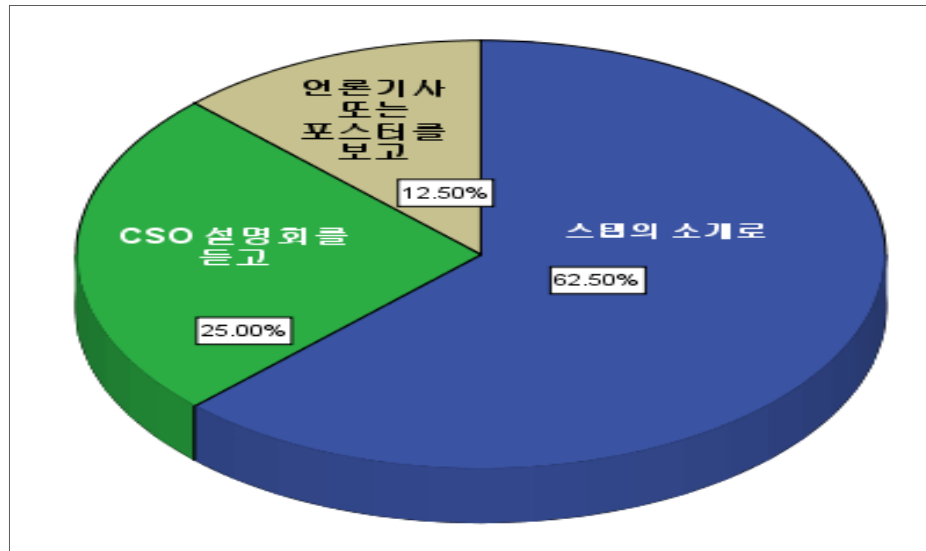
그림 8 CSO 알게된 계기

CSO 사역에 관해 알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그림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원들 중 62.50%가 CSO 의 스텝의 소개로 CSO 사역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25%가 신학교나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실시한 CSO 의 설명회를 통해서, 기타 12.50%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CSO 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해 CSO 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CSO 사역이 초창기에는 CSO 의 스텝의 소개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CSO 참여 동기

연구원들이 CSO 에 대해 알게 된 후, 사역에 직접 참여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응답은 그림 1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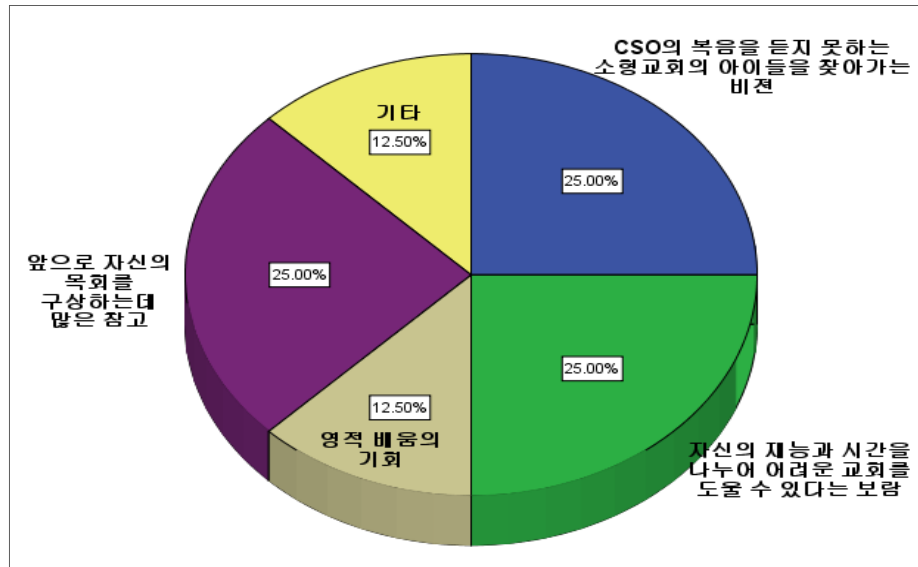
그림 9 CSO 사역 참여동기

CSO 사역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그림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소형교회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CSO 의 아름다운 비젼에 감동을 받았다는 자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자들, 미래의 자신의 목회를 구상하는데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자들이 각각 25%로 많았다. 이 외에도 함께 동역하는 여러 사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는 자들도 12.50%였다. 이와 같이 CSO 의 스텝들은 여러가지 동기에 의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역의 방해요인

CSO 사역의 방해요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4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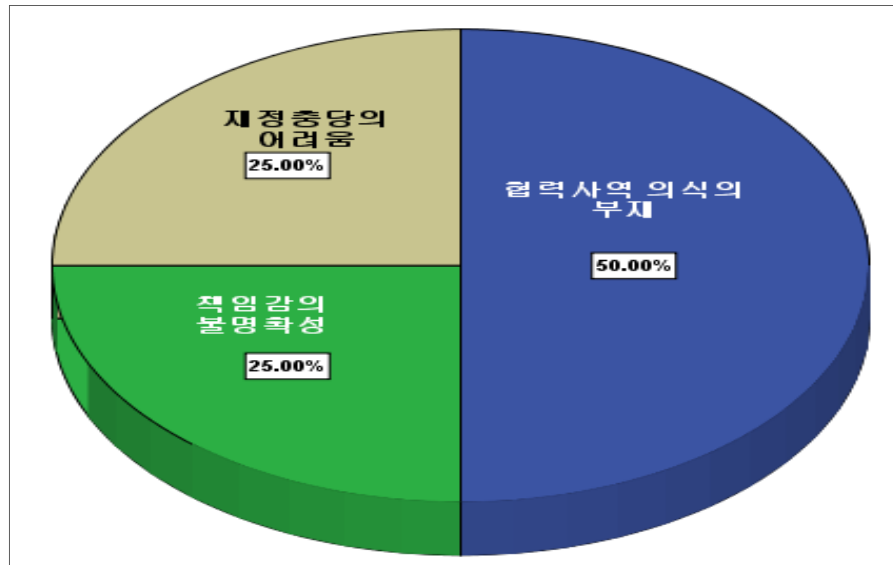
그림 210 CSO 운영의 방해요인

CSO 운영의 방해요인에 관한 응답은 그림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반원들은 CSO 의 사역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50%의 응답자들이 목회자들의 협력사역에 관한 의식의 부재라고 했다. 그 다음 난점으로 CSO 가 자원봉사체제이므로 스텝들 간의 책임감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CSO 가 비영리단체로서의 겪고 있는 재정난을 각각 25%로 응답했다.

CSO 는 교회를 지원하는 단체이므로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협력사역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세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의 목회자들은 협력사역에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는 듯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간구하는 작업에서는 소극적이다. CSO 은 계속적으로 소형교회의 목회자들과 소통하며, 협력사역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동역자로서의 관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CSO 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다른 주된 사역지에서 사역하면서, 남는 시간과 여력으로 CSO 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CSO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감 있게 사역하기가 힘드는 상황이다.

CSO는 사무실 유지비, 행사 운영비 등 사역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 충분하지 못한 재정은 스텝들에게 재정적 압박감을 주며, 적극적인 행사추진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함으로 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CSO에서는 홍보와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연구 중이다.

5) 협력사역 분야

CSO 협력사역에 관한 응답에서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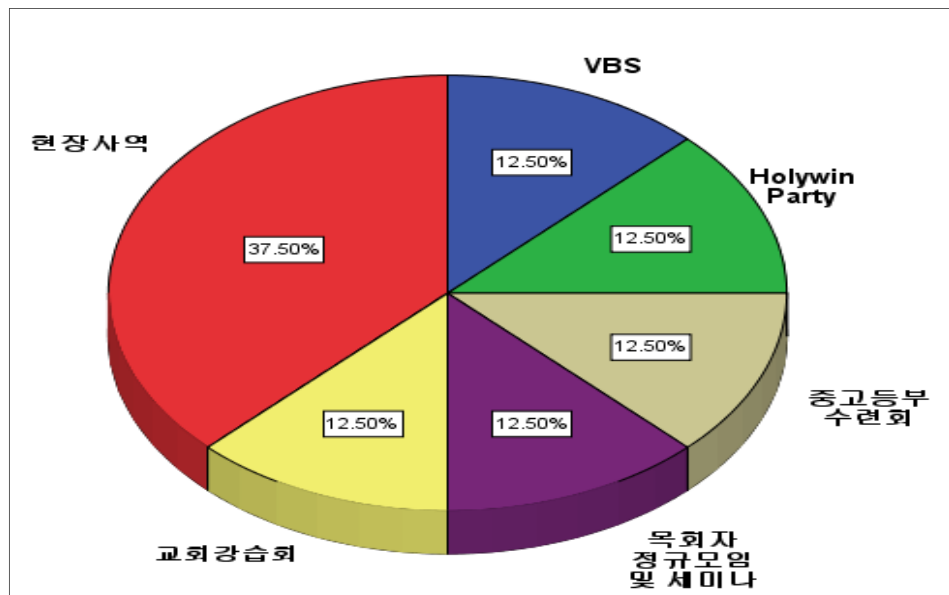
그림 22 CSO 협력사역

CSO 협력사역에 관한 응답에서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O의 협력사역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반원들의 37.50%가 현장 사역팀이 주관하는 주일의 교회학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소형교회 목회자 정규모임 및 세미나를 꼽기도 했다. CSO의

주된 사역인 소형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사역에 많은 스텝들도 주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장사역은 다른 소형교회 지원 단체들과 CSO 를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복음전파라는 기독교의 핵심 목적을 지향하는 사역이므로 CSO 의 많은 사역자들도 이 사역에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임,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에 걸쳐 스텝들은 필요성과 효과성을 느끼고 있다.

6) 사역의 유익성

CSO 사역의 유익한 점에 대한 응답은 그림 16 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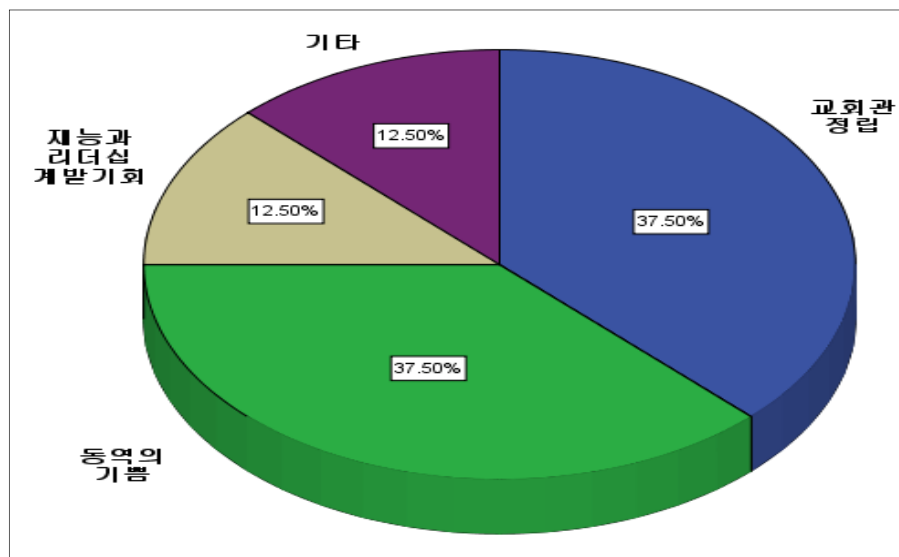
그림 23 CSO 사역을 통한 유익성

CSO 사역의 유익한 점에 대한 응답은 그림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반원들은 CSO 의 사역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유익한 점들로, 여러 소형교회의 사역 현황을 보면서 교회관과 목회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과,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동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각각 37.50%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0%는 자신의 재능과 리더십을 계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 기타로 기독교 단체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들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연구반원들은 CSO의 사역을 통해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참된 교회상을 떠올리며, 자신의 목회에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며,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유익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식변화에 관한 분석

1)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관

소형교회들의 협력사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역의 주체인 소형교회의 목회자들과 CSO 사역자들의 성서적인 교회관과 목회관 정립이 선제되어야 한다. 교회가 왜 협력해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려운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교회상은 무엇인지, 끝없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모임을 정규적으로 가지며, 소형교회 목회자들 간의 교류와 사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형교회 목사들 중에는 교회를 개척하여 홀로 고전분투하거나, 교회성장이란 거대한 목표를 향해 이웃 교회와 과도한 경쟁으로 담을 쌓거나, 숫자적인 열약함을 감추기 위해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CSO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의식하고 목사 자신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했다.

첫 번째 목회자 모임보다 회를 거듭할 수록 모임에 대한 목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CSO는 세미나 등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목사들은 자신의 목회 상황을 다른 목사들과 나누고 동역적 자세로 다른 목사들은 서로를 도와주고자 한다. CSO에서 일하는 전도사나 목사 등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바울이 주장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인 교회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연약한 지체인 소형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에서 보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론은 CSO와 관련된 소형교회뿐만 아니라 중대형 모든 교회가 가져야할 교회론이다. 특히 이기주의와 경쟁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회론을 항상 상기하여야 한다. CSO의 사역을 전해 듣는 많은 목사와 교회는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는 작은 사역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고, 그들의 교회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2) 협력의 중요성 인식

CSO는 모든 사역을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CSO의 사역을 보면서 교회와 교회, 교회와 단체, 단체와 단체 등 그리스도의 지체인 기독교 모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형교회에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야 다른 이웃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CSO에서는 오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를 돕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도우며, 서로 방문하여 이웃의 교회들을 돌아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CSO의 협력사역은 재정적 지원과 목회자 복지 보장, 교회연합 행사에 치중된 기존의 소형교회들을 후원하는 기관들과는 달리, 현장사역팀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공부 인도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세미나 강사, 반주자, 성경학교 보조교사 등 다양한 필요를 CSO에 부담없이 의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해 짐에 따라 소형교회뿐만 아니라 중형교회에서도 CSO의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들은 단기 파송의 형태로 다음 사역자가 세워질 때까지 한정 사역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중형교회들은 이웃 교회들이 도움을 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협력자들이 되고자 한다.

CSO의 협력사역에는 어떠한 규모나 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다. 교회들의 필요가 발생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우리 단체만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역에 관한 CSO의 정신은 벌써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고, 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3) 한 영혼 중시의 목회관

현대의 기독교 교육은 대형교회의 다양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보장한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많은 소형교회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열악하다는 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신앙교육 자체를 포기하고 만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며 양육하는 가슴에 있는 것이다. 잃어 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메고, 소그룹의 교사로 살아간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할 때, 소형교회의 어린 영혼 하나 하나가 존귀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방법을 구상하며 소망을 갖게 된다.

4. 연구과제 실행의 한계

1) 목회자의 개교회 중심의 목회관

CSO 의 연구과제 실행에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교회관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에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개교회 중심의 목회관으로 인한 과제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협력행사를 추최할 때, 홍보를 통해 소식을 접한 아이들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담임 목회자가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행사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열린 마음과 동역의 자세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영어권 사역자의 부족

영어권 사역자의 공급 부족 현상은 비단 CSO 의 연구과제 실행에서만 나타나는 한계점이 아닐 것이다. 미주 한인 교회들의 대부분이 교회학교를 담당할 사역자를 구할 때는 아이들과의 대화 소통을 위하여 영어권 사역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영어권 2 세 한인 사역자들은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므로, 한인 교회에 굳이 사역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한인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는 영어권 사역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사역자 사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형교회에서도 조건에 알맞은 영어권 사역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형교회에서 한 두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영어권 사역자를 채용하기란 힘겨운 것이다.

CSO 의 현장사역팀은 초중고등부 전 학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어권 사역자를 파송하기를 원한다. CSO 사역자들이 대부분 한어권 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영어권 사역자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몇몇 영어권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한인 2 세 교회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영어권 사역자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어권 사역자를 모집하는 것은 CSO 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때, CSO 의 사역은 한인교회에 한정을 두지 않고, 다민족 소형교회로까지 사역을 펼치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원봉사 체제 속에서 역할 분담 및 관리

CSO 는 자원봉사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무보수로 개인적 시간과 재능을 받쳐 헌신하고 있다. 자원봉사인 만큼 사역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때에 나와서 봉사 한다. 그러므로 어떤 수련회나 세미나 등 행사를 준비할 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강력하게 참석이나 봉사를 요구할 수가 없어서 일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도 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역 배정과 일정 분담과 같은 행정적 관리가 필요 하다.

4) 재정 확보

CSO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헌금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다른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유사할 것이다. CSO는 사역의 역사가 길지 않고 기독교계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과제 수행 대상이 소형교회인 만큼 현장사역팀이나 협력행사 추진 시에 사례비나 참여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수입이 없는 반면 사무실 사용 및 유지비, 행사 운영비, 친교비 등에 각종 지출이 필요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힘든 시기마다 적당한 헌금과 후원금이 들어와서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CSO는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5) 협력행사 장소 섭외

소형교회들을 모아서 성경학교, 수련회, 일일 집회 등 행사를 할 때, 작은 사무실에서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이 때, 특정교회가 아닌 중성적인 장소를 선택하여 소형교회 목사들이 아이들을 다른 교회행사에 참가시키는 듯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치원이나 문화관 등을 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은 시간 선택의 제한과 예배 장비 동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장소 제공이 가능한 몇몇 교회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CSO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와 행사를 열고, 소형교회들과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6) 행사에 관한 홍보 및 관리

여러 개의 교회가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홍보와 관리가 어렵다. 매 주일 정규적으로 만나는 한 교회 내의 행사와 달리, 자주 만나지 못하는

수십 개의 교회들에게 행사를 알리고, 포스터와 참가서를 발송하고,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행정팀에서는 회원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의 현황과 담당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으며, 능률적인 연락체계 구축에 숙고하고 있다.

5.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활성화에 미친 영향

CSO 의 연구과제는 교회학교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실행되었고, 그 결과로 여러가지 주목할 평가들을 남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목사들의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었다는 것,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하여 행사를 실행함으로 더욱 활기찬 행사를 열 수 있었다는 것, 부모들의 소형교회의 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 CSO 의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육 체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준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CSO 의 연구과제 수행은 소형교회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CSO 는 이 연구과제 활동들을 통해 소형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신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해 가는 데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1) 목회자들의 교회학교 사역에 동역

교회를 개척하거나 소형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할 때, 목사들은 매 주 홀로 고전분투하는 경우가 많다. 담임 목사가 예배도 구상하고, 심방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찬양도 인도하고, 사무 행정도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

때, 많은 목사들은 교회학교의 중요성은 절감하지만 어린이 사역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서 교회학교 운영을 포기하거나 차일피일 뒤로 미루어 두기도 한다. 교회학교를 도와줄 다른 사역자를 찾는 것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불가능할 상황의 교회들을 CSO 는 연구과제 실행 대상으로 보고 현장사역팀을 파송하여 예배 및 성경공부 등으로 돕고 있다. 이 현장사역팀의 활동은 담임 목사들에게 교회학교의 교육분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준다. 잘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고, 여기에 부수적인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의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예배에의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고, 학부모 세미나와 같은 세미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교회학교의 프로그램을 CSO 와 함께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점은 담임 목회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2) 협력사역을 통한 활기찬 교류

소형교회는 소그룹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재충전을 받는 것도 필요로 한다. CSO 는 일 년에 정규적으로 소형교회 아이들을 모아 집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는 여러 교회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악기팀과 찬양팀이 반주를 하고, 특별 강사가 말씀을 전하게 한다. 아이들은 모처럼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신나는 찬양을 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하던 아이들은 몇번의 만남을 통해 친해지고 서로 메일을 주고 받으며 영적 교제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협력행사는 아이들에게 분명 영적 활력소를 불어 넣는 계기들을 제공하고 있다.

3) 체계적인 신앙교육

많은 목회자들과 학부모들이 CSO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은 단체의 사역자들이 모두 정규 신학교 출신이거나 교회의 담임목사로부터 추천 받은 신실한 평신도 리더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사역자들은 어린이 사역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직 전도사 또는 목사인 경우가 많고, 평신도 리더들도 교사 또는 소그룹 리더로 경력을 가진 자들이며 출석교회의 담임목사로부터 추천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CSO의 사역의 비젼이 어린이 사역임을 알고 헌신하기로 한 자들로서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진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띠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들은 소형교회의 담임목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한다.

4) 학부모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 충족

현대의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이 멋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에 다니며 갖가지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형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부모를 따라 교회는 왔지만 제대로 된 교회학교가 없어서 혼자 있거나, 두 세 명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소형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CSO의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지원사역은 아주 가치롭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 수행을 통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교회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킬 수 있는 안도감을 가지며, 여러 협력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형교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동경심을 접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의 관심과 변화는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음식과 헌금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Ⅷ. 목회 유능성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CSO 의 사역은 목회현장에서와 같은 여러가지 사역자의 자질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는 CSO 의 사역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조직을 이끌어 가는 행정력과 리더십을 갖춘 기독교교육 전문가적 유능성 계발에 촛점을 두었다.

1. 행정능력

Alvin Lindgren 은 행정을 어떤 분야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서 조리 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정의 했다.[175] 소형교회의 사역들을 지원해 주는 CSO 의 디렉터의 직책을 맡으면서 한 단체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행정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CSO 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도와 주고 싶다는 꿈 같은 비젼을 붙잡고 협력 사역운동을 열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CSO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전도사, 목사, 사모 등이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우수한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CSO 의 각 분야의 역할을 능률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고 지침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척초기 단계인 CSO 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가도 체계적인 행정의 강화가 절실하다. CSO 는 교회와 교회간의 연합, 교회와 단체와의 연합, 교회와 사회간의 연합 등 다양한 관계성을

[175] Alvin J. Lindgren, 19-20.

안에서 움직여지는 단체이므로 교회 행정은 물로 기독교 선교 단체의 행정 운영까지 연구하며 조화로운 운영과 행정 체계를 키워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막연한 교회 행정보다 기독교 행정 또는 일반 행정 관련 사례나 연구를 살피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CSO에 적용하며 운영하고 있다. CSO의 전체 행정 부서를 프로그램 개발팀, 홍보팀, 현장사역팀, 문서 재정 관리팀 등으로 세우고 각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적성에 적합한 부서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든 팀원들이 공동의 비젼을 나누며 동역하는 일치감을 갖게 하기 위해 정규 월요모임, 부서별 디렉터 모임, 전체 스텝 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각 부서는 한 주간에 일어난 사역을 보고하고, 다가오는 행사를 위해 함께 논의한다.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며 안건을 조절하면서 구성원들은 구성원 간의 결속력과 협동심과 이해심을 넓히게 되며, 조화로운 조직의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Robert Katz가 말한 행정가가 가져야할 세가지의 기능인 실무 기능적 기술(Technical Skill), 인간관계 기술(Human Skill), 전체 조직 통합 기술(Conceptual Skill)을[176] 총체적으로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가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2. 리더십

리더십이란 어떤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

[176]박경순, "기독교 교육행정가로서의 담임목사의 역할," *교수논총*, 2004년 16호, 143-164.

끼칠 수 있는 능력과 과정이다.[177]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때,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의 리더십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상대방을 사랑과 겸손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성경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생활에서 열심을 다했던 자들이다. Robert Katz 는 '성경속 지도자들은 사고의 훌륭함과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뛰어난 교양과 타고난 자질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다.[178] 참된 리더자는 성경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 기도에 가장 우선을 두는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CSO 의 대부분의 임원진이 남성 사역자로 이루어졌으며 사역 대상인 소형교회의 담임 목사와 전도사 또한 거의 남성이므로 여성 리더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자에게 적합한 성향을 계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여성의 리더십을 남성과 뚜렷이 다른 성향에서 분석하며 강조한 Judy Rosener 는 '여성들은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시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그들의 정보와 능력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는 강점이 있다' 라고 하며, 이런 여성의 지도력을 '상호적 리더십(Interactive Leadership)' 이라고 규정지었다.[179]

이에 반해 남성의 리더십은 명령과 지배 중심의 독재적 리더십의 측면의 성격이 강한 반면, 여성의 리더십은 유연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 사회구조에서 환영받는 리더십이 되고

---

[177]안경승, "목회자의 지도력과 상담," *신학과 선교*, 2005 년 9 호, 397.

[178]J.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148.

[179]박보경, "목회를 위한 여성 리더십," *교회와 신학*, 2005 년 61 호, 35-43.

있다고 했다.[180] 리더십을 성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듯 하나 Judy Rosener 가 주장한 상호적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다. 리더자는 어떤 업무의 추진에 앞서서 먼저 리더자로서의 품성계발 곧 온화한 대화의 기술, 일에 대한 열정적인 추진력, 위기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순발력 등을 꾸준히 계발시켜야 할 것이다.

단체의 리더자는 여러방면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특별히 중보기도자와 따뜻한 여성 리더십의 소유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요 중보기도팀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를 구하고, 동역자들과 소형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매주 월요일 사역자 모임에서도 회의에 앞서서 경건회 시간을 가지며, 매주 회의지에는 간단한 사역과 사역자 동향을 알림으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크리스챤 여성 리더십을 계속적으로 고찰하며, 동역자들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 두어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많은 동역자들을 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3. 교육전문

CSO 사역이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 복음을 전달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만큼 교육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교회 교육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

[180]Ibid.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며,[181] 이것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넓게는 기독교 전통에 교육적 근거를 두고 있다.[182]

CSO 사역이 복음 전달이란 사명에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인 복음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사들은 복음 전달의 교육자로 활동함에 있어서 지식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는 일반 교육가와는 달리 가르침과 섬김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가의 자리는 결코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다.

가끔 기독교 교육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교육의 바탕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함으로 학문적 체계나 교육적 방법론들이 무시되어도 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교육은 신과 인간, 교회와 세상, 고대와 현대 등 복합적이고 통괄적인 양상을 띔으로 지침서인 성경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학적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켜 나갈 때에만 기독교 교육이 활성화되며 복음은 왜곡없이 전승되어 질 수 있다. 기독교 교사는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교육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지만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으며[183] 그에 따른 노력은 교사 각자의 몫인 것이다.

CSO 는 소형교회들의 교육 전반에 연관된 사역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교회학교 예배 인도, 교사 훈련, 교재 연구, 교사 세미나, 학부모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CSO 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 계발을 필요성을 절감 한다. 이것은 성경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

[181]전정희, *공교육에서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39.

[182]고용수 외, 31.

[183]Roy B. Zuck,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송원준 역 (서울: 도서출판 데모데, 2000), 16.

기독교 교육 역사, 교육 방법론, 아동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안목을 키워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 계발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기독교 교육가의 자질을 구비하여 소형교회의 교사, 자원봉사자, 전도사, 목사에게 기독교 교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X.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Church Support Organization(CSO) 사역을 중심으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았다. 소형교회들이 기독교 단체나 다른 교회들에게 문을 열고 함께 협력사역을 추진할 때,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열린 마음이 전제된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므로 교회가 서로 돕고 섬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질 등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어원적 기원을 살펴보면, 회중들 즉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체감은 물론, 서로를 돌아보고, 나눠 주고, 동일한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의식하며 지어져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며,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이라는 주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상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 조화로운 다양성, 상호협력의 관계를 가지는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참된 교회관의 정립을 위해서 무형교회에 대한 내면적 특성인 교회의 속성과 유형교회의 외면적 특성인 교회의 표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교회는 내면적으로 통일성(One), 거룩성(Holy), 보편성(Catholic), 사도성(Apostolic)인 속성을 가지며, 외면적으로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권징 시행인 표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교회의 표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순수한 전통신앙에서 벗어나 세속주의와 계급주의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단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속성과 표지의 고찰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근본을 상고하게 하며, 개 교회의 목적과 이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CSO의 사역이 교회들 간의 협력사역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효과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서 협력사역의 성서적 의의와 성경적 실례와 현대적 적용 등을 살펴 보았다. 협력(cooperation)이란 동일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장점들을 나누며 도와가는 활동이므로, 협력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동하여 이루어 나가는 전반적인 교회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익성과 장애요인을 발견하게 된다. 협력사역의 유익성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한 전문성과 다양성의 확보, 개인에게 편중된 권력 구조를 벗난 견제와 균형, 고독한 불안감 대신 타인들과 동행하는 안정감,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폭넓은 경험과 훈련,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 감에 있어서 협력자들 간에 활력을 받게 되며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협력사역의 장애요인은 물량주의로 인한 성장에 대한 부담감, 지배욕심,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오해, 협력사역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동역자들 간의 다양성 수용의 미흡, 인간관계의 부조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CSO 를 포함하여 협력사역을 하는 단체나 교회는 이상의 유익성과 장애요인을 염두에 두고 역동적인 운영을 위한 실체적 활동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며,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해 주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공개적이고 정직한 보고를 하며, 사역의 정보 전달을 통해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뢰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협력사역의 형태 속에서, CSO 는 주된 사역대상지를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로 하고 있으므로, 기독교 교육의 정의, 목적, 유래, 중요성, 발전과정 등에 대해 연구 또한 중요하다. 교회학교 교육이란 어린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성장시키는 영적인 교육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에 따라 변화되도록 도와 주려는 인간의 모든 계획적인 과정을 말하며,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교육을 계승하는 것이다.[184] 그러므로 참된 교회학교의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알게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시키고, 교회와 세상의 모든 활동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구약시대의 가정 신앙교육의 형태로부터 출발하여, 수천년을 이어 오늘날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대 기독교 교육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일어난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모체가 되었으며, 이 사회교육의 형태인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

[184]조종제, 47.

교회 안으로 안착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주된 교육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종래에 주일학교라는 말은 영국에서 태동한 주일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교회학교라는 명칭으로 고쳐 쓰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본분이 있으므로, 주일학교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시간적 제한의 의미를 보완하고자 근래에는 교회학교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되고 있다.

CSO가 지원하는 교회학교들은 형태에 있어서 소규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슷한 한계점들을 안고 있다. 소형교회 안에서 교회학교는 환경적 제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열약, 교사 부족, 또래 집단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아이들 영적 외로움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형교회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익성들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형교회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성, 제자 훈련과 참여학습의 효과, 신앙공동체의 삶을 체험, 주중 신앙교육의 주체인 가정과의 연계교육의 용이, 전도의 효율성, 다양한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제공, 또래나 선배와의 활동을 통한 리더쉽 계발에 유익성 등의 소규모의 교회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익성들이 있다. 소형교회가 교회학교의 외부적 열약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소규모 교육의 용이한 점들을 잘 찾아서 활용한다면 어린이들은 효과적인 내적 신앙교육의 성장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CSO는 앞에서 고찰한 교회의 본질의 회복, 협력의 가능성, 소규모 신앙교육의 활성화 등을 꿈꾸며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지어져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첫 사역의 대상을 소형교회의 교회학교로 정했다.

소형교회 사역이 대부분 성인 사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급급하여, 어린이 사역은 자칫 우선 순위에서 차선으로 밀려 나게 되고, 이로 인해 소형교회의 아이들은 올바른 교회학교의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소형교회에서 아이들은 주일에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여도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나 교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 예배에 부모들과 동석하거나 어른 예배가 마칠 때까지 교회 안을 배회하다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 오는 사례도 많다. CSO 는 주일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환경적 열약함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에 사역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파송된 사역자들은 예배와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하여 CSO 는 그 활동을 전개하면서, 교회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역자 파송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훈련이나 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 등 부차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 비슷한 또래 집단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성향을 감안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집회 등을 주관하게 되었다. 소형교회 안에서 제한된 소수의 아이들과 친교를 하던 아이들이 여러 소형교회들의 연합 집회나 행사 등을 통해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고,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한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형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알찬 신앙교육을 제공하고자 시작된 CSO 의 사역은 이제 교회학교와 연계된 분야는 물론 소형교회의 사역 전반에 걸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다. CSO는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겸손히 섬기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교회를 돕는 이 작은 운동을 통하여 소형교회들는 물론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이며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며 격려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2. 제언

소형교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교회의 기본 원리로서,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형태였고, 이것으로 세상을 교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185]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보다는 교회를 하나의 사회적 조직체로서 구조 안에서 이해하고, 그 조직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주의, 성장주의, 세속주의를 교회 속으로 투입시키는데 큰 물고를 틔우게 되었고, 이 양적, 외적 기준에 비추어 모든 교회는 성공한 대형교회와 기죽는 소형교회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숫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무능함이나 나태함에 돌리며 자책과 낙심 속에서 표류하는데, 이러한 폐배감과 열등감은 이웃에게 마음 문을 열거나, 교회의 난제들을 내어 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 조차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소형교회의 건전한 교회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워 나가야 하며, 이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

[185]안영혁, 191.

중심의 교회론 위에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로 구분 짓는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상기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므로, 오히려 소형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에 더 적합하다는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회자의 올바른 교회관의 정립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나 적은 무리를 이끌어 가다가 지친 소형교회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은 물론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소형교회는 작지만 견실한 열매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중대형교회도 외형적 성과 보다 내실적인 열매들을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또 소형교회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웃과 협력하게 되고, 중대형 교회도 이웃의 소형교회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교회와 교회 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진정한 협력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간의 상부상조로 이루어지는 협력사역은 현대 소형교회의 효과적인 목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각 교회는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고, 상호교류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한 지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 때, 협력사역은 일방적인 지원과 후원의 구조가 아닌, 서로가 평등하면서도 신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교회는 의무적으로

소형교회를 지원해야 하고, 소형교회는 항상 도움만 받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형교회는 작으면 작은대로 더 작은 교회와 이웃을 돕는 부요한 심령을 가져야 하고, 대형교회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로 소형교회를 돌아 볼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물이나 무리의 숫자를 초월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도 찾아 가셨고, 방황하는 수많은 군중들도 찾아 가셨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사랑 안에서 잉태되었고, 이 사랑을 지체인 이웃 교회와 온 세상에 실천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것이다.

소형교회의 협력사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교회학교의 활성화는 목회자가 협력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다른 교회 또는 기독교 단체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면 취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보완해 갈 수 있다. 한 교회의 틀에 박힌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조직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훨씬 다양하며 전문적이며, 아이들에게도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자체 안에서도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임 목회자는 물론 부모들과 교인 전체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어린이들이 교회생활을 하며 자라게 된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의 활성화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중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프로그램 계발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오늘날, 자칫 주일만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이 행해지는 듯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주일학교라는 용어를 지양하며, 주중 신앙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추세로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의 최고의 신앙교육 교사는 주중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이며, 이 역할을 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아이들을 대하는 교회학교가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형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모들을 주중 신앙 교육의 전수자이자 교육자로서 지침을 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주중 신앙교육은 열약하기 쉬운 주일에 행해지는 교회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소형교회의 교회학교가 소그룹의 운영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며, 각종 협력행사를 추진하며, 가장 좋은 동력자인 부모들을 주중 교사로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면, 어린이들은 체계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신앙교육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충성된 일군들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주역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교회학교의 소형교회는 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작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작지만 교인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Appendices)

1. 설문 조사

<1 차 설문 조사>

본 설문조사는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정혜성 목사의 논문 '협력사역을 통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활성화'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진솔한 답변을 토대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활성화에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년 9 월 정혜성 목사

설문 응답자:

나이	성별	신앙연륜	직분	사역분야

1.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

(1)출석교인수 30 명이하
(2)50 명 이하
(3)70 명 이하
(4)100 명이하
(5)200 명 이하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소형교회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가족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다.
(2)목사님 등 사역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양육을 받을 수 있다.
(3)자신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함으로 보람을 느낀다.
(4)자신의 비젼과 의견 등을 교회에 제시할 수 있다.
(5)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소형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1)목사님과 교인들의 지나친 관심
(2)헌금에 대한 부담감
(3)중대형 교회에 비해 열악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 혜택
(4)출석 파악이 쉬운 관계로 편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
(5)교회 운영, 전도, 부흥에 대한 부담감
(6)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소형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목회 비젼 제시
(2)전도 운동
(3)교회학교 활성
(4)설교
(5) 친교
(6) 성경공부
(7) 예배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협력하여 행사를 실행한 적인 있습니까?( )

(1)예   (2) 아니오

6. 연합행사를 한 적이 있다면 어떤 분야였습니까?

7. 연합행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1)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므로 힘이 있고 활기차다.
(2)새로운 사람들과 교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므로 새롭고 흥미롭다.
(3)여러사람들의 재능과 노력이 합하여 짐으로 행사의 추진 효과가 높다.
(4)단독 교회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행사를 치룰 수 있다는 만족감이 있다.
(5)기타____

8. 연합행사를 실행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1)의견 조율이 힘들다.
(2)몇 교회가 주도권을 잡는다.
(3)행사를 위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연락망 구축이 어렵다.
(4)본 교회의 비젼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5)전 교인들보다는 사교적인 몇몇 교인들의 활동만 돋보인다.
(6)기타____

9. 교회학교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교회들 간의 연합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1)여름성경학교 (VBS)
(2)Halloween 행사
(3)중고등부 수련회 (Youth Retreat)
(4)Lock -In
(5)중고등부 집회 (Youth Rally)
(6)교사 세미나
(7)학부모 세미나
(8)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2차 설문 조사>

본 설문조사는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정혜성 목사의 논문 '협력사역을 통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활성화'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진솔한 답변을 토대로 소형교회의 교회학교 활성화에 연구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정혜성 목사

설문 응답자 :

나이	성별	신앙연륜	직분	사역분야

1. CSO의 사역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① CSO의 스텝의 소개로
   ② CSO의 스텝이 아닌 다른 지인의 소개로
   ③ 신학교, 교회, 단체 등에서 CSO의 설명회를 통해
   ④ 언론매체의 기사 또는 포스터를 보고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

2. CSO 사역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CSO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소형교회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비젼
   ②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어려운 교회도울 수 있다는 보람
   ③ 동참하는 여러 사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배움의 기회를 가짐
   ④ 앞으로 자신의 목회를 구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됨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3. CSO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목회자들의 협력사역에 관한 의식의 부재
   ② CSO의 자원 봉사체제로 인한 책임감의 불명확성
   ③ 비영리 단체가 갖는 재정 충당의 어려움
   ④ 연합 행사를 추진할 공간 부족과 장소 확보의 어려움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CSO의 협력행사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연합 사역은 무엇입니까? (   )
   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BS)

② Holywin Party
③ 중고등부 수련회 (Youth Retreat)
④ Youth Rally
⑤ Youth Lock-In
⑥ Youth Mission Conference
⑦ 목회자 정규 모임 및 세미나
⑧ 교사 강습회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CSO의 사역을 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여러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교회관과 목회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다.
②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며 동역의 기쁨을 느꼈다.
③ 자신의 재능과 리더십을 계발하는 기회를 가졌다.
④ 기독교 단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CSO의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 사역 사진

CSO 사역자 회의

구미리암 교수의 목회상담에 관한 목회자 세미나

Youth Mission Training

Youth Winter Retreat (조별 장기자랑)

Field Trip

Vacation Bible School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외국 서적 및 번역 서적

Banks, Robert John.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룬, 1981.

Berkouwer, Gemit Comelis. *개혁주의 교회론.*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6.

BJUP, *기독교 교육.* 존스연구소 외 역. 부천: 도서출판 존스북, 2009.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Bush, Luis & Luts, Lorry. *Partnering in Ministry: The Direction of World Evangelism.* Illinois: Inter Varsity, 1990.

Calvin, John. *기독교강요 IV.*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Clowney, Edmund P. *당신의 교회생활은.* 서원교 역. 서울: 나침반, 1991.

________. *교회.*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8.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Conzelmann, Hans.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Dewey, John. *민주주의와 교육.* 이홍우 역. 서울: 교육과학사, 2007.

Duewel, Wesley L. *에큐메닉스.* 한국복음주의학회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Engend,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Griggs, Donald L, and Judy M. Walther. *삶의 현장에서의 기독교교육 작은 교회에서의 교회 교육 방법들.* 박명홍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9.

Horne, Herman H.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Huber, Wolfgang. *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Iverson, Dick. *팀목회.* 권혁재 역. 서울: 진흥, 1999.

Jay, Eric G. *The Church.* Atlanta: John Knox Press, 1978.

Kuiper, Rienk B.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이창우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78.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________. *카톨릭 교회.* 배국원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3.

Lindgren, Alvin J. *교회 개발론.* 박근원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5.

Lynn, Robert W, and Elliott Wright. *주일학교 역사.*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May, Philip R.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최수경 역. 서울: IVP, 1994.

Meeks, Wayne A.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황화자 역. 서울: 예장출판국, 1988.

Miller, Donald G.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Moltmann, Jürge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외 역.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6.

Neighbour Jr., Ralph W.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Oswald, Roy M. & Kroeger, Otto. *MBTI로 보는 다양한 리더십.* 최광수 이성옥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2.

Radmacher, Earl D. *What the Church is All About.* Chicago: Moody Press, 1978.

Reymond, Robert L. *최신조직신학.* 나용화 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Ridderbos, Herman. *바울신학.* 서영희 역. 서울: 지혜문화사, 1985.

Robertson, O. Palmer.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원, 1983.

Rush, Myron D. *성서적 경영 방법.* 임창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Sanders, J. Oswald.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4.

Sherrill, Lewis J. *기독교 교육의 발생.* 이숙종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Stott, John R. *기독교의 기본 진리.*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Stott, John R. W. *사도행전강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Tharp, Roland G, and Ronald Gallimore. *Rousing Minds to Life: Teaching, Learning and Schooling in social context.*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Verkhof, Louis. *조직신학.* 권수경 외 역. 경기: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Vygotsky, Lev.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978.

Westerhoff, John. H.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Wood, Leon J. *이스라엘의 선지자.* 김동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Young, Edward J. *성구약신학논문집 제2권.* 윤영탁 편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Zuck, Roy B.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송원준 역. 서울: 도서출판 데모데, 2000.

2. 한국도서

강용원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고훈. *교회성장을 위한 팀 목회.* 서울: 베드로서원, 1996.

김길성. *개혁신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7.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김인환. *기다려지는 주일학교 만들기.* 서울: 기독신문사, 2002.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김지호.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김형태. *아름다운 휄로우십.*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 서울: 총신대대학 출판부, 1987.

배본철. *기독교회사*. 서울: 문서선교 성지원, 1995.

박형룡,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안영복, *구약역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안영혁. *작은교회가 더 교회답다.* 서울: 겨자씨 출판사, 2001.

오인탁 외 4인. *기독교 교육사.* 서울: 교육목회, 1992.

은준관.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이병승 외. *쉽게 풀어 쓴 교육학.* 서울: 학지사, 2003.

이성희. *디지털 목회와 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영숙. *감각활용 어린이 성경교육.* 서울: 나침판사, 1977.

이종성. *거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________.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________. *이야기로 푸는 조직신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술원*, 2001.

이종윤 외. *교회성장론.* 서울: 엠마오, 1986.

이희학.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임세빈. *주일학교 교육이 살아야 21세기 교회가 보인다.* 경기: 온누리, 2002.

장원철.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사, 1999.

장일선. *다윗 왕조의 역사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전호진.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5.

정병관. *Cell사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조종제. *21세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다.* 서울: 은혜기획, 1999.

주영흠 외. *신세대를 위한 교육학 개론.* 서울: 지학사, 2003.

최홍석. *교회론.* 서울: 솔로몬, 1998.

홍근일. *교육원리.* 서울: 일신사, 1983.

황승룡.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3. 학술지

고용수.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론." *장신논단.* 8집, 1992.

교육학 다이제스트. "제1장 교육학 개론." *새교육.* 2월호, 2000.

권오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성경연구.* 5월호, 1999.

김광건. "한국교회 상황에서 팀목회의 필요성." *목회와 신학.* 4월호, 2006.

김덕수. "성공적인 팀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 *목회와 신학.* 6월호, 2006.

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1.

김요섭. "칼빈의 교회의 역할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경과 신학.* 제52권, 2009.

박경순. "기독교 교육행정가로서의 담임목사의 역할." *교수논총.* 16호, 2004.

박보경. "목회를 위한 여성 리더십." *교회와 신학.* 61호, 2005.

송제근. "성경에서 찾아보는 팀 목회의 모델 분석." *목회와 신학.* 9월호, 1995.

안경승. "목회자의 지도력과 상." *신학과 선교.* 9호, 2005.

이성희. "무엇이 팀목회인가." *목회와 신학.* 9월호, 2011.

장훈태. "순례자적 지도자로서 바나바의 선교사역 연구." *진리논단.* 제13호, 2006.

주정관. "교회론에 근거한 교육신학." *진리논단.* 제61호, 2005.

4. 논문

김덕영. "마틴 루터와 칼 바르트의 교회론 비교연구." 박사논문. 서울기독대학교, 2007.

박성식. “바울선교를 통한 협력사역에 실안연구.” 석사논문. 총신대학교, 2002.

전정희. “공교육에서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황기영. “소그룹 사역을 통한 한국교회 주일학교 성장 방안.” 석사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0.

5. 간행물

김성원. “개교회주의 대안 팀목회.” *기독뉴스*, 2011 년 2 월 24 일.

박종원. “소형교회만의 강점 살리며 건강해진다.” *뉴욕중앙일보*, 2007 년 5 월 10 일.

정보라. “크리스챤투데이 미주한인교회 현황통계.” *미주한국일보*, 2010 년 1 월 18 일.

조종무.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시위.” *미주한국일보*, 2010 년 5 월 17 일.

6. 주석 및 사전

Anderson, Arnold Albert. “2 Samuel” *Word Bible Commentary*, Volume 11, 권대영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1.

Brown, Driver and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Nelson, Richard. “열왕기상하.” *현대성서주석.*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Towns, Elmer L. *주일학교 교육백과.* 신원삼 역. 서울: 국제문서선교회, 1980.

강사문. “사무엘상.” *성서주석* 제 8 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송제근. “성경에서 찾아보는 팀목회의 모델 분석.” *두란노 목회자료 큰백과; 교회갱신과 목회행정* 제 15 권. 서울: 두란노, 1997.

이병철. *성서원어대전 I.* 서울: 브니엘 출판사, 1985.

7. Web Page

서성민. "한국장로교회의 선교협력." http://www.cwmpcts.org/89.

양태철. "협력선교의 중요성." http://www.gmiworldmission.com.

연합뉴스 사회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accessed, 12.16. 2010).

The Internet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Palisades_Park,_New_Jersey(accessed, 31 January 2011).

http://www.city-data.com/city/Palisades-Park-New-Jersey.html(accessed, 2.25. 2011).

Church Support Organization 홈페이지. http://www.churchsupport.org/history (accessed, 1.30. 2011).